北濟州郡 涯月邑 郭支里

社會背景 / 279
方　言Ⅰ / 289
方　言Ⅱ / 300
民　　謠 / 315
說　　話 / 344
信　　仰 / 380
地　　名 / 397
遺　　跡 / 411

郭支里部落全圖



社 會 背 景

指導教授 金 永 和
班 員 姜 亨 叔 (國文・3)
梁 運 信 (國文・2)

目 次

Ⅰ. 地理的 環境
Ⅱ. 歷史的 背景
Ⅲ. 人文概況
Ⅳ. 產業構造

Ⅰ. 地理的 環境

濟州市에서 서쪽으로 약 27 *km* 떨어진 곳에 位置한 郭支里는 2個 自然部落으로 區分된 農村으로, 行政區域上으로는 北濟州郡 涯月邑에 속한다.

총면적 469 *ha*인 이 마을은 본래 〈금성〉까지를 포함하는 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894年 分離됨으로써 現在 郭支里와 錦城里로 나눠져 있다.

인접부락으로는 2 *km* 동쪽에 涯月里, 2 *km* 동남쪽에 納邑里, 1 *km* 서쪽에 錦城里가 있다.

마을을 中心으로 東쪽에는 승세미오름, 南쪽에는 155 *m*의 〈과오름〉(郭岳)이 있고 西北쪽으로는 바다가 있다. 特異한 것은 海岸部落이면서도 浦口가 없다는 점이다.

海岸에 近接한 마을인 까닭에 土壤이 대부분 沙壤質로 특용작물 재배에 적합하여 양배추와 양파로 많은 所得을 올리고 있다.

또한 海岸에 자리한 郭支海水浴場은 현무암층 위에 패사층이 퇴적하여 이루어진 海水浴場으로, 특히 조개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樹種은 동백나무·가시나무·소나무 등 여러 종이 분포되어 있으며, 마을 여러 군데에 100~200년 樹齡의 팽나무가 있어 그곳에 정자(亭子)터가 마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사진 1)

유물 유적으로는 烈女碑·朴季詹之碑·貝塚등이 있다.

Ⅱ. 歷史的 背景

上·下 2個洞의 自然部落으로 形成된 郭支里는 設村된 지 900餘年의 歷史를 가지고 있다.

郭支里라 불리워진 것은 100餘年밖에 되지 않으며 當時에는 곽기리(郭岐里)라 쓰여졌고 이 이름은 세오름 밑에 大城을 쌓았었는데 이 城이 성냥곽과 같다 하여 붙여진 것이라 한다.

이 마을은 西紀 1007年 穆宗 10年 翰林邑 挾才里 앞바다에 飛揚島가 湧出하면서 漢拏山 西北쪽 九德里로 噴火가 始作되니 地上과 地下가 急連流하여 楮旨里밭, 느지리쾌로 噴火口가 되어 七週間 火光이 連續하여 하늘이 冲天하고 곽지리 연해안에 있는 砂丘가 부서져 남당물(錦城 所在) 석경게진 모래바닥 마음물(郭支 所在)까지 휩쓸어 民家를 埋沒해 버렸다고 傳해지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當時 海岸가에 設村하여 살던 金海金氏 等 住民들은 移徙하여 俗稱 강남밭에 定着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 噴火로 말미암아 곽마니오름, 돗마지(돼지)峰이 생겼다. 또한 元나라에서는 成祖 王朝를 敗亡시키기 위해 石迭里라는 사람을 濟州에 派遣하여 達魯花赤府를 設置했는데, 이곳에는 군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兵文舍가 있었고 關門高上台에는 派遣大將이 앉아 훈련시켰다고 전해진다. 곽금국민학교도 옛날 활을 쏘던 곳이라 하여 射場터라 불리워지고 있다. 또한 이 마을은 절왓(寺田), 스님이 다녔다는 중질(길), 盜可備童山(도깨비 동산) 等이 있어 큰 절이 있었던 것

으로 전해지며 現在도 耕作地에서는 옛 기와조각이 發見되기도 한다.

이 마을은 확실한 考證은 없으나 적어도 金通精將軍이 三別抄를 일으켜 抗蒙하기 위하여 入島(元宗 2年 1271年 5月)하기 二百餘年 前에 設村되었으며 옛부터 양반과 儒生들이 많이 살아 양반과 선비村으로 이름나 있는 곳이다.

西紀 1300年 高麗 忠烈王 26年에는 곽지현이라 하였다는 記錄이 里事務所 沿革誌에 밝혀져 있고, 1942년에는 縣을 里로 改稱하고 1894年에는 錦城里를 獨立시켜 2個里가 되고 1916年에는 上·下洞을 2個區로 나누어 里政을 펴 오다가 1950年 4月 1日에 合區하여 郭支里라 불려지고 있다.

곽지리의 人物로는, 秋史의 門下生 朴季儋과, 1851年(철종 2년) 여름보리농사가 안 되고 겹치어 가을농사까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이를 구한 秦基千, 그리고 烈女 姜有眞과 金天德이 있다.

(郭支里 沿革誌, 耽羅誌 등 參照)

Ⅲ. 人文概況

郭支里는 上洞과 下洞의 2개 自然部落으로 구성되어 있는 海岸地帶로, 班은 13個班(1반~13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家口는 410戶이고, 人口는 1,553名으로 戶當 평균인구는 약 3.8명이다.

〈表1〉 家口 및 人口

家口	410 戶	農家	361 戶
		非農家	49 戶
人口	1,553 名	男子	743 名
		女子	810 名

1982. 12. 31. 現在. 郭支里 事務所 提供

〈表2〉 住宅現況

초가	기와	스레트	스라브	함석	계
84	3	322	4	8	421

1983. 8. 19. 現在. 郭支里事務所 提供

제주도의 전형적인 가옥형태라 할 수 있는 초가집은 18%도 안 되고 있는 반면 스레트집은 76%를 상회하고 있다. 이것은 官支援에 의한 지붕개량으로 인해 住宅形態가 변화된 탓이라 할 수 있다. 里內에는 26姓이 살고 있는데 그 分布(表 3, 4)를 보면 390세대 중에서 金氏가 131세대를 이루고 있어 압도적으로 많고, 李·張·姜·高·梁氏도 20여 세대 이상 거주하고 있어 비교적 많은 편이다.

〈表 3〉 **姓氏分布** (세대주별)

	金	朴	李	張	姜	高	梁	秦	洪	申	文	宋	趙	崔
男	95	32	28	20	15	16	5	13	7	8	2	4	2	3
女	36	7	9	7	9	8	16	1	4	1	6	2	4	3
計	131	39	37	27	24	24	21	14	11	9	8	6	6	6

	尹	徐	任	鄭	左	玄	康	邊	孫	安	丁	咸	計
男	3		2	2	3	2	2			1			265
女	2	3	1	1		1		1	1		1	1	125
計	5	3	3	3	3	3	2	1	1	1	1	1	390

1983. 8. 20. 現在. 郭支里事務所 班員名簿에 依據

한편 戶主別로 본 姓氏는 모두 22氏로 다음의 分布 〈表 4〉를 이루고 있다.

〈表 4〉 **姓氏分布** (호주별) (단위 : 名)

金	朴	李	張	高	姜	申	秦	洪	梁	趙	文	尹	左	宋	崔	任	安	玄	康	徐	鄭	計
122	48	35	34	26	20	20	18	18	10	6	5	5	5	4	4	3	2	2	1	1	1	390

1983. 8. 20. 現在. 郭支里事務所 班員名簿에 依據

〈表 3, 4〉에서 본 것처럼 세대주별 姓氏의 수는 모두 26이나 戶主別로는 姓의 수가 22이다. 세대주별이든 호주별이든 金·朴·李·張·姜·高氏는 여전히 20여세대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 梁氏는 戶主別로 본 수는 10이지만 세대주별로 본 수는 21이어서 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申氏는 세대주별로 본 수는 9이고 호주별로 본 수는 20이어서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里內의 公共機關으로는 里事務所와 郭錦國民學校가 있고, 그 밖의 團體로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어머니교실·在日大阪郭支鄕友會·청년회·유아원 등이 있다.

郭錦國民學校는 里內 유일한 學校로 郭支里와 錦城里의 學生을 주로 수용하고 있다. 〈表 5〉에서 郭支里와 금성리의 學生數를 對比하여 볼 수 있다.

〈表 5〉 國民學生 現況

단위 : 名

里區分 \ 學年		1	2	3	4	5	6	計
郭支	男	17	15	26	15	17	15	105
	女	15	13	17	17	19	18	99
	計	32	28	43	32	36	33	204
금 성		13	14	17	14	25	21	104

1983. 8. 18. 現在. 郭支國民學校 提供

〈表 5〉에서 금성리 학생수(104명)에 비해 郭支里 학생(204)이 배에 가까운 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郭支里만을 중심으로 볼 때, 3～6학년은 평균 36명이나 1～2학년은 평균 30명으로 학생수가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인구문제에 따른 家族計劃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郭錦國校는 1946년 12월 17일 개교하여 33회 졸업생을 배출했고 그 수는 2,087名(男 1,115名, 女 972名)이며 현재 11代 校長이 취임해 있다. 1981년 3월 1일 郡指定兼用 과학실운영시범학교로 되었고, 현재 施設은 대지 2,250 ㎡, 체육장 14,455 ㎡, 교재원 396 ㎡, 총 16,705 ㎡이다.

〈表 6〉 學力別 現況

卒業					在學					미취학	기 타	계
大	高	中	國	計	大	高	中	國	計			
79	294	109	227	709	34	103	117	175	429	95	320	1,553

1983. 8. 18. 現在. 郭支里班員名簿 參照

〈表6〉에서 보듯이 대학졸업자와 재학생 수를 합하면 113名으로 비교적 高學歷者들이 많은, 이른바 班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다 里內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住民登錄地는 里內로 되어 있으나 實際 거주하는 곳은 다른 곳인 경우도 많았다.

〈表7〉 年齡別 人口現況

연령 / 구분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	計
計	84	159	205	199	125	107	64	71	91	98	70	60	56	49	41	34	29	11	1,553
男	45	91	93	109	85	52	37	32	44	41	28	19	23	16	11	11	4	2	743
女	39	68	112	90	40	55	27	39	47	57	42	41	33	33	30	23	25	9	810

1982. 10. 1. 現在. 涯月面事務所 提供

〈表7〉에서의 年齡分布를 본 결과 35歲 이상에서는 女性(379名)의 수가 男子(231名)보다 148名이나 많아 女性人口가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이고 특히 65歲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배 이상 많다. 그러나 34歲 이하에서는 男子 (512名)가 女子(431名)보다 81名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8〉 文化施設

신문		T·V		냉장고	세탁기	라디오	전 축	재봉틀	통신시설
중앙지	지방지	칼라	흑백						
61	21	33	234	144	2	228	27	214	115

1983. 8. 20. 現在. 郭支里事務所 提供

宗教를 보면, 한림 천주교 곽지공소와 第七日安息日 再臨教會가 있으나 教人은 극히 소수이고, 堂으로는 「남당」[1]이 있다. 祭日은 正月初丑日이다. 佛教信徒는 布教堂이 있는 이웃 마을인 錦城里에 가서 宗教儀式을 갖는다.

1) 玄容駿, 濟州島 巫俗資料事典, p. 784.

Ⅳ. 産業構造

郭支里는 地理的 條件으로 볼 때는 동서로 약 500 m나 되는 白沙場인 海水浴場을 갖고 있는등 海岸部落임이 틀림없으나, 水産物로 약간의 大蛤이 있을 뿐 海岸에서의 所得은 거의 없다고 보아 무방할 정도다. 따라서 浦口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一般的으로 他 海岸部落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漁村契가 없고 涯月 漁村契 산하에 13명이 소속되 있을 뿐이다. 主所得源은 양배추와 양파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보리류·감자류와 함께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다.

〈表 9〉 面 積

계	밭 (田)	임 야	기 타
469 ha	234 ha	216 ha	19 ha

1983. 8. 20. 現在 里事務所 提供

戶當 경지면적은 0.63 ha이며 戶當 농가소득은 3백 41만 7천원 ('82.12.31)이다.

〈表 10〉 농기계 보급실태

차 량	경 운 기	동력분무기	탈 탈 이
18	65	45	11

1983. 8. 20. 現在 里事務所 提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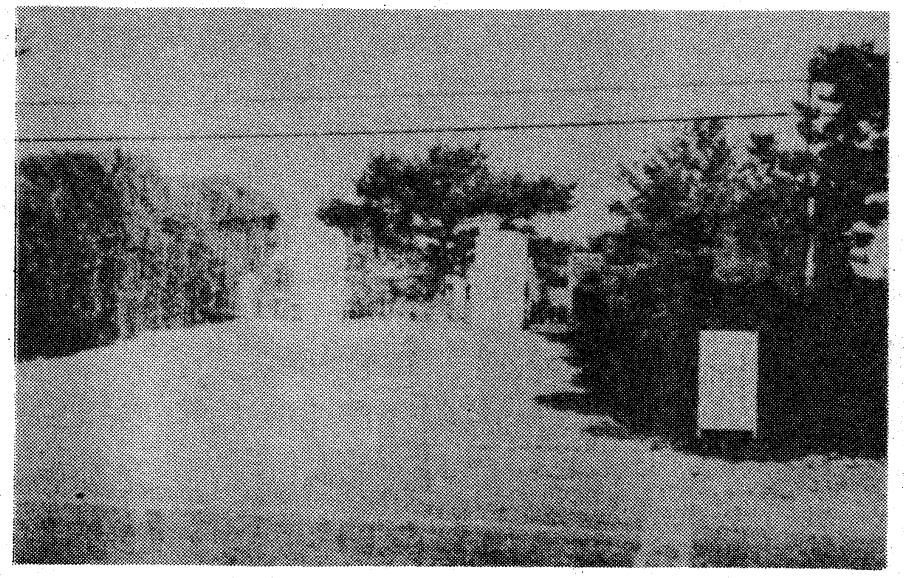
주로 기르고 있는 가축은 '82. 12. 현재 소 117두, 돼지 291두, 개 57두의 順으로 사육되고 있다.

한편 里內에는 農藥·肥料 等의 판매소가 없는데, 1972년 2월 11일 30명으로 창립된 곽지신용협동조합과 1978년 4월 29일 17명의 회원으로 창립된 곽지새마을금고가 있어 유기질 비료를 구입, 염가판매 함으로써 화학비료사용을 지양토록 하고 있으며 판매에 대한 이익도 회원들에게 환원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다. 兩 단체에서 里出身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유아원 및 탁아소지원 그리고 경로잔치를 벌이는 것 등이 이익금 환원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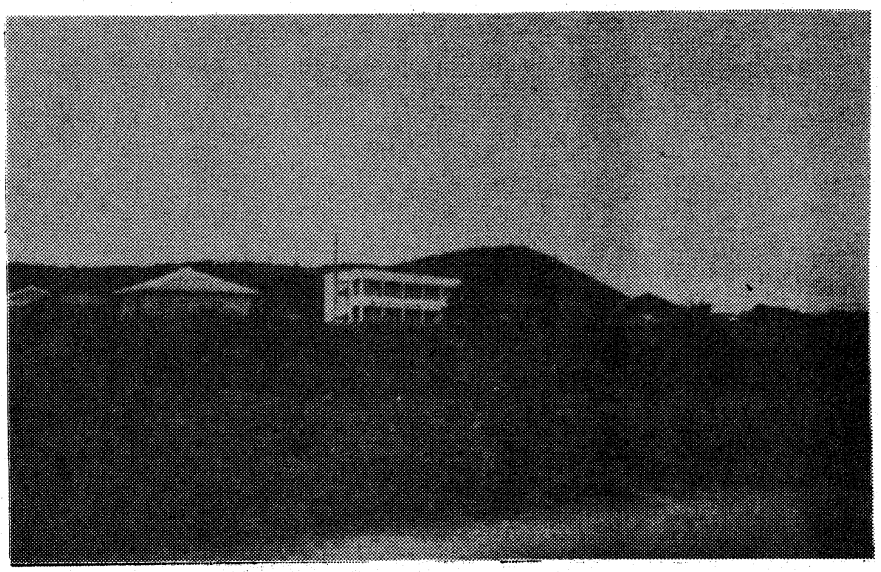
이라고 볼 수 있다. 이 兩 단체로 말미암아 里民들은 1인 1통장(85%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경제적인 활동의 원천은 해안부락이면서도 수산업에서의 소득이 없는 대신 원예작물·맥류·서류 등의 소득이 높은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사진 1)
팽나무와 亭子터. (里內 여러곳에 이와같은 장소가 있어 對話의 場이 되고 있다).



(사진 2)
郭錦國民學校 校門 (1946년 12월 7일 開校).



(사진 3)

里事務所와 와오름 (臥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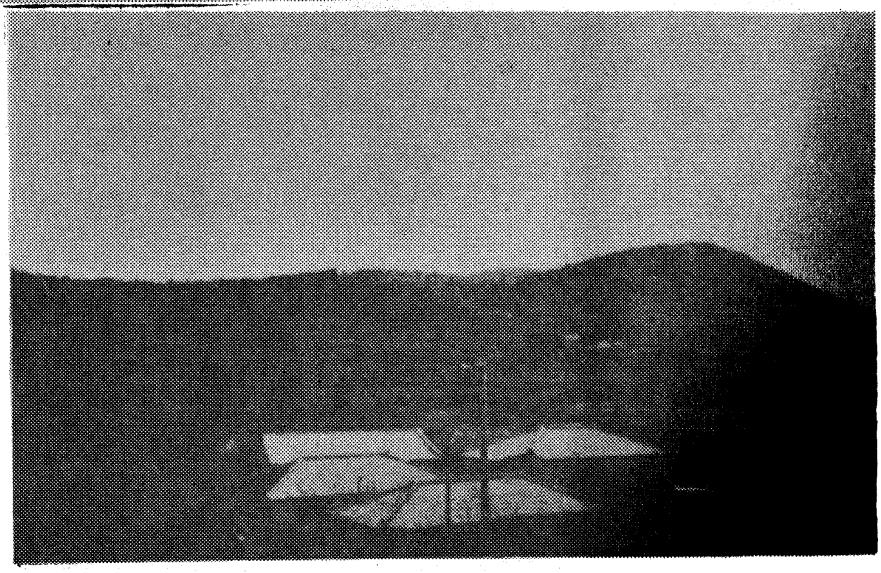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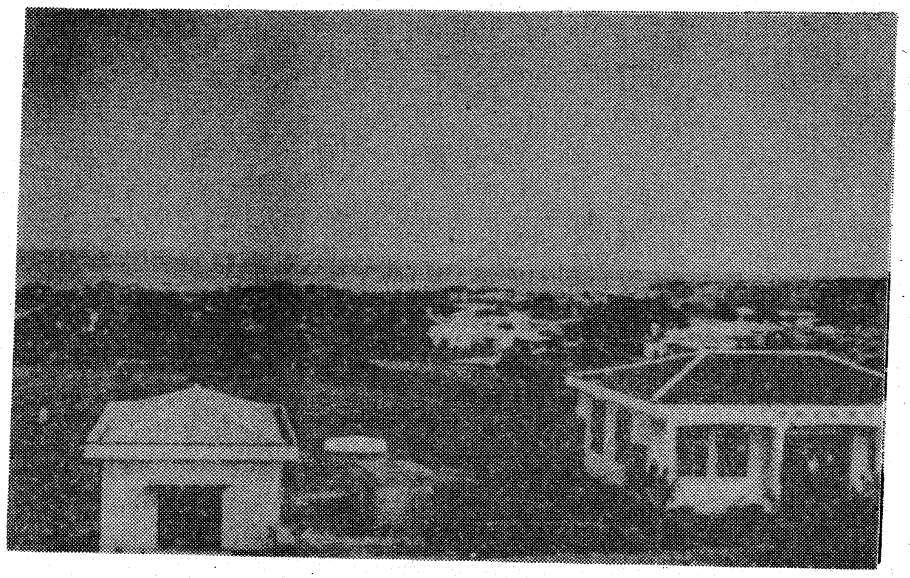
(사진 4)

郭支里 事務所入口 碑石거리 ('협동'이란 글자가 보이는 곳은 搗精工場임).

(사진 5)

과오름 (郭岳)
〔일명, 와오름 (臥牛峰)〕
(산이 郭支里 境內에 위치하기로 과오름이라 불리우나, 한편 이 산의 봉우리가 마치 소가 누워 있는 것 같다고 와오름이라고도 命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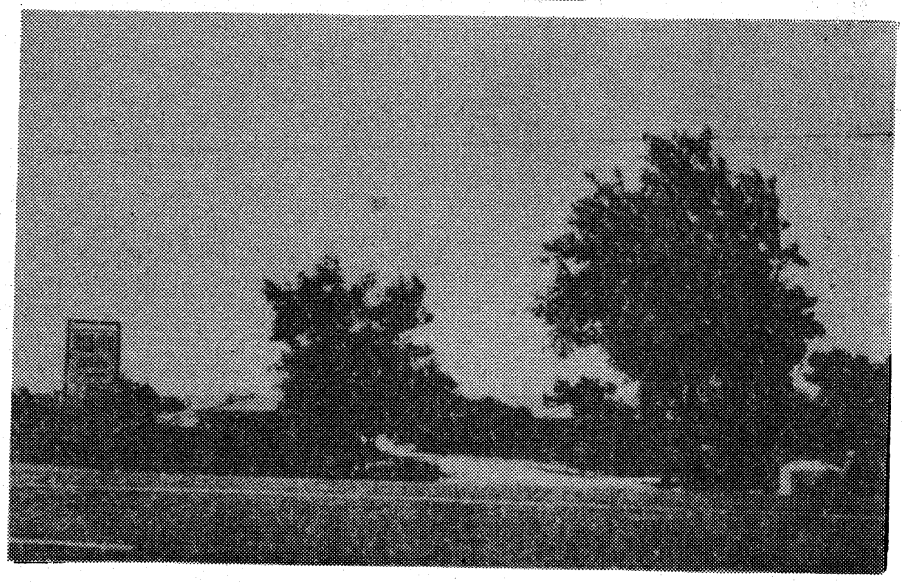




(사진 6)

郭支里 前景

(사진 5)와 함께 곽지리 경치가 나타나 있으나, 이것은 리사무소 좌측이고 사진 5는 리사무소 뒷쪽이다.



(사진 7)

郭支海水浴場入口

郭支海水浴場은 東西로 약 500*m* 가량의 白沙場이다. 길이가 길어 里內에선 「진모살」(긴모래)이라고도 불린다.

北濟州郡 涯月邑 郭支里

方　言 I

指導教授 金 洪 植
班　員 高 定 佑 (國文・3)
金 和 生 (國文・3)
吳 昌 命 (國文・2)

目　次

Ⅰ. 農耕에 관한 語彙
Ⅱ. 動物에 관한 語彙
Ⅲ. 疾病에 관한 語彙
Ⅳ. 親族稱 및 人稱
Ⅴ. 鬼神에 관한 語彙
Ⅵ. 其 他

Ⅰ. 農耕에 관한 語彙

o 가 름 팟 : 부락 안에 있는 밭
o 캐　　왓 : 초목을 불태워 개간한 밭
o 잿　　밭 : 契를 해서 자금을 모아 마련한 밭
o 절　　왓 : 원래 절터(寺址)였던 밭
o ᄀᆞ 실 팟 : 추수를 다 끝낸 밭
o 물　　왓 : 물이 잘 안 빠지는 점토질 밭
o 질　　왓 : 물왓보다는 물빠짐이 좋은 점토질 밭
o 머 을 왓 : 잔 돌이 많이 있는 밭
o 새　　왓 : 띠밭

o 왕 돌 왓 : 岩石이 있는 밭
o 격 대 왓 : 홍수 때 물이 넘침을 막기 위해 세운 격대가 있는 밭
o 등 캐 : 인가 근처에 있는 밭
o 난 전 : 부락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밭
o 뜬 밭 : 부석거리는 흙으로 된 밭
o 사 록 밭 : 경사진 밭
o 흠 팟 : 흠이 진 밭
o 가 분 밭 : 지력(地力)이 다 떨어진 밭
o 드르궹이 : 작은 밭 (100평 이내)
o 벨 진 밭 : 큰 밭 (2,000평 정도)
o 우 영 팟 : 터밭

o 용 시 : 농사
o 농부완이 : 농부
o 마 가 지 : 장마가 그친 사이에 파종을 끝내는 것
o 번 허 다 : 부종하기 전에 밭을 갈아서 일구어 두는 것
o 바 령 : 휴경기에 우마를 가두어 두엄 등을 받아 밭을 기름지게 하는 것 * 밭을 바령한다.
o 사대 (사대소리) : 김을 매면서 부르는 노래
o 불 림 질 : 곡식을 타작한 후 찌꺼기를 바람에 날려 제거하는 일
o 반작/벵작(병작) : 수확량을 밭 주인과 소작인이 반씩 나누어 가지는 것
o 수 눔 일 : 농사 지을 때 집마다 돌아가면서 힘을 모아 하는 일
o 흔 쉐 역 :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밭을 갈 수 있는 면적
o 늡 : 일군
o 일 쿰 : 품삯

o 질 빵 : 짐을 지는 데 쓰는, 실(絲)로 엮어 땋아서 만든 줄
o 짐 패 : 짐을 지는 데 쓰는 줄
o 쉐 석 : 소를 매는 줄

o 쉐 압 배 : 소를 묶어 두는 줄
o 물　　배 : 물을 길 때 사용하는 멜빵
o ᄀᆞ랫방석 : 맷돌 밑에 까는 멍석의 일종
o 맹 탱 이 : 멱
o 밀맹탱이 : 메고 다니는 작은 멱
o 걸 름 착 : 거름을 담아서 옮기는 작은 멱
o 섬　　피 : 부종하고 난 후 씨앗이 고루 흙에 묻히도록 하는 데 쓰는, 나뭇가지 등을 엮어 만든 도구

o 각　　단 : 짧고 좋지 못한 띠
o 콩 꼬 질 : 콩의 열매를 털어 버리고 남은 줄기와 깍지
o ᄀᆞ 시 락 : 보리 까끄라기
o 부 군 대 : 밭벼를 타작한 후에 남은 짚
o ᄂᆞ 람 지 : 낟가리를 쌓아 놓고 위에 덮는 것
o 보 릿 낭 : 보릿대
o 고고리／이석 : 이삭
o　　니　　: 뉘
o 검　　질 : 김
o 호미ᄌᆞ룩 : 호미자루
o 조캉매기 : 조를 타작하고 난 뒤 남은 찌꺼기
o 허 재 비 : 허수아비

o 흙 토 리 : 흙이 좋고 나쁨을 말함
o 벙　　애 : 흙덩이
o　　종　　: 빈 밭에 우마 등의 출입 금지 표시로 꽂아 놓는 대나무
o 감　　저 : 고구마
o 지슬／지실 : 감자

Ⅱ. 動物에 관한 語彙

1) 牛

ㅇ쉐 : 소
ㅇ부릉이·부사리 : 거세 안 한 숫소
ㅇ중 성 기 : 거세된 소
ㅇ암 쉐 : 암소
ㅇ맴 쉐 : 배냇소
ㅇ번 쉐 : 여러 사람이 순번을 정해서 먹이는 소
ㅇ밭 갈 쉐 : 농경우(農耕牛)
ㅇ곳 쉐 : 방목우(放牧牛)
ㅇ드 릇 쉐 : 들에서 사는 소
ㅇ황 어 럭 : 누런 색과 흰 색이 섞인 얼룩소
ㅇ검은어럭 : 검은 색과 흰 색이 섞인 얼룩소
ㅇ석 쉐 : 줄무늬가 있는 소
ㅇ태 상 : 이마에 점이 있는 소
ㅇ모 카 니 : 목에 흰 줄이 반쯤 둘러진 소(短命)
ㅇ게 우 눈 : 눈이 사팔뜨기인 소(매섭다)
ㅇ코간전이 : 頭部에서 코언저리까지 흰 소(열등소)
ㅇ복수쟁이 : 발을 절룩거리는 소
ㅇ쉐 촐 : 소꼴
ㅇ쉐태우리 : 소를 보는 사람 (牧夫)
ㅇ곰돌끈다 : 소를 훈련시킴을 말함
ㅇᄆᆞ시모는 소리 : 가축을 몰 때 내는 소리
ㅇ다 간 : 두 살 된 소
ㅇ사 릅 : 세 살 된 소
ㅇ나 릅 : 네 살 된 소
ㅇ다 습 : 다섯 살 된 소
ㅇᄋᆞ 습 : 여섯 살 된 소

2) 馬

o 몰 : 말
o 금 싱 : 금년에 난 말
o 이 수 : 두 살 된 말
o 청 총 : 흰 점이 있는 말
o 가 라 몰 : 검은 말
o 적대몰/고추몰 : 빨간 말
o 걸 몰 : 누런 색에 눈 언저리가 흰 말 (열등말)
o 유 마 : 누런 말
o 광 간 전 : 앞이마에서 콧등 부분까지 흰 말
o 황 골 리 : 눈이 노란 말 (우등말)
o 봉 통 마 : 절름발이말
o 고 래 몰 : 적황색말
o 월 래 몰 : 적대말의 일종으로서 목에서 가슴 부분까지 흰 띠가 둘러 있는 말
o 구 렁 몰 : 연한 황색말
o 사퉁이몰 : 외눈배기말
o 재 미 : 준마(?)

3) 豚 (돼지)

o 돗 : 돼지
o 도 새 기 : 돼지 (小豚)
o 자릿도새기 : 어린 돼지
o 어 럭 돗 : 얼룩돼지
o 속 돗 : 검은색에 누런 얼룩이 있는 돼지
o 물 톳 : 개량종 돼지
o 지시랭이 : 생식 능력이 없는 암돼지

4) 蛇

o 배　　염 : 뱀
o 물 패 기 : 독사
o 만 주 미 : 독이 없는 뱀
o 돗 줄 래 : 물뱀
o 부 구 니 : 구렁이. 왕뱀
o 독 다 귀 : 도마뱀

5) 鳥類 및 昆虫

o 생　　이 : 새
o 촘 생 이 : 참새
o 소 로 기 : 매, 독수리
o 재열／푯재열(小)／왕재열(大) : 매미
o 곳 재 열 : 산 속에 있는 매미
o 맹마구리 : 맹꽁이
o 맨 주 기 : 올챙이
o 두 태 비 : 두꺼비
o 가 개 비 : 나무에 사는 개구리 (청개구리)
o 게 우 리 : 지렁이
o 지냉이／노공이 : 지네
o 남　　새 : 벌레
o 밥 주 리 : 잠자리
o 말　　축 : 메뚜기
o 꼭 재 기 : 사마귀
o 공 쟁 이 : 귀뚜라미
o 장콜래비 : 모기알
o 픈　　리 : 파리
o 돗 뿌 리 : 덜 말린 보리 등에 생기는 검은 곤충

Ⅲ. 疾病에 관한 語彙

o 학실／꽃터는 병 : 학질, 말레리아
o 지　　질 : 치질
o 마누라／손님 : 홍역
o 동　　굼 : 이질
o 고 슨 병 : 동상
　* 손이 곳다／발이 곳다
o 광절다리 : 정신병자
o 비　　리 : 옴
o 고　　뿔 : 감기
o 용 다 리 : 문둥이
o 귀막시／귀마구리 : 귀머거리
o 얼 챙 이 : 언청이
o 모 로 기 : 벙어리
o 버 버 리 : 반벙어리
o 설　　새 : 설사
o 새　　경 : 장님
o 급　　징 : 갑자기 아파서 죽는 병
o 배　　접 : 생손앓이
o 허　　물 : 종기, 부스럼
o 독　　짓 : 頭部에 종기가 생기는 병
o 놋 싸 움 : 여드름
o 개　　쎕 : 눈다라끼
o 보프래미 : 작은 종기
o 말　　축 : 사마귀
o 사　　막 : 사마귀
o 배꼬즈다 : 배아프다
o 지　　미 : 기미

o 픈 리 침 : 주근깨
o 톨국질／톨곡지 : 딸국질
o 발　　재 : 목 뒤에 나는 종기
o 구모끄다／곱트다 : 삐다
o 자 리 다 : 저리다
o 얽　　음 : 홍역 후 치료 부진 등으로 얼굴에 생긴 자국
　* 구완 : 병을 치료함을 말함
　　유울다 : 앓다

Ⅳ. 親族稱 및 人稱

o 왕하르방 : 증조할아버지
o 왕 할 망 : 증조할머니
o 하르방／하르벰 : 할아버지
o 할망／할멤 : 할머니
o 넛하르방／넛할망 : 나에 대한 널손지의 호칭
o 아　　방 : 아버지
o 어　　멍 : 어머니
o 아지방／아즈방 : 아저씨
o 아지망／아즈망 : 아주머니
o 가시아방 : 장인
o 가시어멍 : 장모
o 동　　새 : 동서
o 매　　비 : 매부
o 오라방각시 : 올캐
o 오 래 비 : 남동생
o 오 라 방 : 오빠
o 아　　시 : 동생, 아우
o 손　　지 : 손자

o 조　　캐 : 조카
o 널 손 지 : 형님 또는 동생의 손자

o 궨　　당 : 친척
o 우더니／우던 : 같은 혈족
o　　느　　: 너
o 지녁／이녁 : 당신
o 지서어멍 : 대가의 맏며느리감 (착한 사람)
o 에미우리 : 어머니 없는 집의 자식

V. 鬼神에 관한 語彙

o 귀　　껏 : 귀신
o 그 신 새 : 밤에 나타나는 검은 기둥처럼 보이는 환영
o 도 채 비 : 불빛 등의 빛깔로 밤이나 장마철에 나타나는 환영
o 헛　　깨 : 소리나 울음, 웃음으로써 사람을 홀리는 귀신의 일종
o 축 산 이 : 원귀, 죽은 혼이 들린 귀신
o 조 왕 신 : 부엌신
o 물 귀 신 : 물에서 죽은 원귀
o　　새　　: 잡귀
o 방 애 쌀 : 밤에 방애모양이 붕덩이로 나타나는 것을 말함
o 생이귀껏 : 사람을 홀리는 귀신

Ⅵ. 其 他

①

o 틋 가 리 : 턱
o 굴　　레 : 입
o 야개기／모개기 : 목

o 눈 두 깨 : 눈두덩
o 하 우 염 : 하품
o 헛 깽 이 : 재채기
o 게 끔 : 거품

②

o 바ᄅ와치/바롯챙이 : 어부
o 바롯궤기 : 바닷고기
o 보 재 기 : 어부
o 맨 내 : 면화
o 도 로 기 : 면화실을 감는 것
o 우미수세 : 바닷가에서 지면 위로 물이 용출하는 것 (용출수)
o 모 살 : 모래
o 절 : 파도
o 누 이 : 파도가 센 것

③

o 굴 매 : 그림자
o 새철/새쩔 : 입춘
* 새철 든다.
o 돌 갓 : 달무리
o 햇 머 리 : 해에 테두리가 둘러 있는 것
o 황 고 지 : 무지개

④

o 불잉겅/불껑 : 불씨
o 불 치 : 재
o 디끌/드끌 : 티끌
o 등 캐 : 절단한 나무밑둥
o 솔 칵 : 불이 잘 붙는, 송진이 엉킨 소나무 속

⑤

o 이 버 지 : 혼사시 신랑측에서 신부측에게 주는 물품
o 비 바 리 : 미혼녀, 처녀
o 살 래 : 찬장
o 숭 키 : 푸성귀
o 출 래 : 반찬

⑧

o 팡 : 짐을 얹어 놓기 위해 괴어 놓은 돌
o 궁 기 : 구멍
o 사금바치 : 깨진 사기그릇 조각
o 백 ᄇᆞ 름 : 벽
o 동 곳 : 고드름
o 이 왁 : 이야기
o 자 파 리 : 장난
o 굴 : 구리
* 쌀말다 : 벼락맞다.

〈提報者〉 장 권 아 (남 · 79)
신 기 숙 (남 · 82)
강 전 설 (남 · 68)
박 성 배 (남 · 54)
이 태 언 (남 · 72)

方 言 Ⅱ

指導教授 金 光 雄
班 員 洪 貞 杓 (國文・3)
李 成 俊 (國文・2)
洪 明 子 (國文・2)

目 次

Ⅰ. 文 法
Ⅱ. 人 倫
Ⅲ. 經 濟
Ⅳ. 動 物
Ⅴ. 植 物

Ⅰ. 文 法

1. 대명사

01. 누구

—가 : 누게가
—의 : 누게네
—냐 : 누게라
—로 : 누겐 줄
—한테 : 누게신디, 누게안티

02. 자기

—의 : 지

—가 : 이녁이, 지가

—들이 : 이녁이, 이녁네가

—들의 : 이녁, 이녁네, 지네

03. 나 : 나

저 : 나

04. 너 : 느

너희 : 느네덜, 지네덜

2. 조 사

01. —이／가

① 값이 : —이

② 돈이 : — zero

③ 사람이 : —이, — zero

④ 코가 : — zero

⑤ 모가 : — zero

02. —은／는

① 보리는 : —ㄴ, —는

② 나는 : —ㄴ

03. —을／를

① 물을 : — zero

② 돼지를 : —ㄹ

04. —에／에게

① 사람에게 : —안티

② 동생에게 : —안티

③ 밭에 : —디

④ 집에 : —이

⑤ 총소리에 : ―에

05. ―와／과

① 나와 : ―영

② 여우와(비교) : ―광

③ 삵괭이와(비교) : ―광

3. 경어법

(명 령)

01. ―어／아라

① 앉아라 : ―이라, ―아바

02. ―게

① 앉게 : ―아, 으라

03. ―(으)세요

① 앉으세요 : ―읍써

(청 유)

04. ―자

① 가자 : ―게, 글라

05. ―세

① 가세 : ―게, 그러게

06. ―(으)ㅂ시다

① 갑시다 : ―읍써

(서 술)

01. ―는／ㄴ다

① 큰다 : ―ㅁ쩌

02. ―네

① 크네 : ―ㅁ쩌

03. -아/어요

① 커요 : -ㅁ수다

(의문 1)

01. -니

① 오니 : -ㅁ시냐, -ㅁ샤

02. -나

① 오나 : -ㅁ서

03. -아/어요

① 와요 : -ㅁ수가

(의문 2)

01. -니

① 가니 : -ㅁ디, -ㅁ시니

02. -는가

① 가는가 : -ㅁ시니, -ㅁ서

03. -(으)세요

① 가세요 : -ㅁ수가

(의문 3)

01. -이니

① 장날이니 : -가

02. -인가

① 장날인가 : -가

03. -이어요

① 장날이어요 : -이우꽈

(의문4)

01. -이냐

① 무엇이냐 : 머시라, 무시거라

02. -인가

① 무엇인가 : 머라, 머시라, 머이라

03. -이어요

① 무엇이어요 : 머시우꽈, 무시거우꽈

(부가의문)

01. 그랬잖아 : 경 허지 안 해시냐

02. 그랬지 : 경 안 해시냐, 경 허지 안 해시냐

(존대)

01. -(으)시-

① 계시니 : 시냐

② 가셨니 : 가시냐

③ 계셔요 : 십써

④ 입으셔야겠어요 : 입읍써, 입어야쿠다

4. 시 제

01. -겠-

① 가겠다 : -켜

② 오겠다 : -켜, -ㅁ직허다

③ 좋겠다 : -켜, -암직허다

02. -는/ㄴ-

① 먹는다 : -엄서

② 안 다 : 알주, 알아저

③ 간 다 : -ㅁ서, -ㅁ쭈

④ 크 다 : 커, 크주

⑤ 큰 다 : 커

03. -었/았-

① 왔었니 : 와나샤

② 왔 니 : -ㄴ디, 와서

04. -더-

① 잡더냐 : -아-

② 오겠더라 : 왐직허다

(관형형)

01. -은

① 먹은 : 먹은

02. -었/았던

① 먹었던 : 먹은

03. -는 :

① 먹는 : 먹는

04. -고 있는

① 먹고 있는 : 먹는

05. -을

① 먹을 : 먹을

(보조용언)

01. 싶다

① 싶어서 : 퍼서, 펀

② 싶 다 : 프다

02. -는가/나 보다

① 고픈가 보다 : 고픈 거 답다

② 쌌나 보다 : 싼 거 답다

③ 쌌나 봐요 : 싸수다

④ -인가 보다 : -답다

⑤ -이었나 보다 : -답다

03. 않다

① 춥지 않다 : -안혀다

② 깨끗하지 않아요 : -안허다

③ 생각하지 않았다 : -안햇쩌

5. 부 사

01. 찬찬히 : 추곤추곤

02. 널리

① 널리 : 널직이

② 너르게 : 널르게

③ 넓게 : 널찍허게

03. 잘

① 잘 : 잘

② 좋게 : 졸바로

04. 깨끗이

① 깨끗이 : 코콜 (이)

② 깨끗하게 : 코콜허게

05. 빨리

① 빨리/얼른/급히/속히 : 재게

② 빨리/빠르게 : 재게

06. 곧장 : 구짝

07. 갑자기 : 뜬그므시, 두렁청이, 금차키

08. 나중에
① 나중에／뒤에／다음에 : 말제랑／조름에
② 나중에／뒤에 : 말제랑／조름에

09. 먼저／앞에 : 문져／아피

10. 설마 : 츤마이

11. 하마터면 : 홈마해시믄

12. 일부러 : 역불로

13. 알맞게／마치맞게 : 똑 좋게／똑

14. 살짜기 : 술째기

15. 모 두 : 무딱, 문딱, 무도

16. 송두리째 : 문딱

17. 얼마나／어떻게 : 어떵사

18. 어찌
① 어찌 : 무사, 어떵해연, 어떵
② 어쩌다가 : 어떵허단

19. 왜 : 무사

20. 예 : 예

21. 그래 : 오, 오게, 기여

Ⅱ. 人 倫

1. 가 족

01. 어머니 : 어머니, 어멍

① 엄마 : 어멍
② 어미 : 에미

02. 아버지 : 아버지, 아방
① 아빠 : 아방

03. 할머니 : 할머니, 할망

04. 할아버지 : 하루버지, 하르방

05. 형 : 성님, 성
① 언니 : 성님
② 누나 : 누님
③ 오빠 : 오라방

06. 아우 : 아시

2. 결 혼

01. 결혼 : 잔치
① 결혼잔치 : 잔치

02. 며느리 : 메누리

03. 처 녀 : 비바리

04. 새색시 : 새각시

05. 사 위 : 사우

06. 올 케 : 아지망, 아즈망

07. 시누이 : 씨누이

08. 매 형 : 매비, 매형
① 매제 : 매비
② 매부 : 매비

09. 시숙 : 아즈버님

① 시동생 : 아즈방

② 도련님 : 아즈방

③ 서방님 : 아즈방

10. 홀아비 : 홀아방, 호래비

11. 홀어미 : 홀어멍, 홀에미

12. 환　갑 : 환갑

13. 효　자 : 효재, 소재

3. 친　척

01. 백부 : 큰아방, 큰아버지

02. 중부 : 샛아방

03. 숙부 : 삼춘

04. 조카 : 조캐

① 조카딸 : 조캐

05. 이모 : 이모

06. 남 : 놈

Ⅲ. 經　　濟

1. 마　을

01. 이웃 : 욥찝

02. 마을 : ᄆᆞ실

① 이야기 : 말

② 마을간다 : ᄆᆞ실간다

03. 가게 : 점빵

04. 얼마 : 얼마, 얼매

05. 잔돈 : 존돈

06. 우수리 : 우수리

2. 대장간

01. 대장간 : 불미왕

02. 풀 무 : 불미쑥닥

03. 모 루 : 모리똘

① 모루채 : 쇠막깨

② 벼리다 : 베린다

04. 바퀴 : 도로기

3. 단 위

01. 마지기 : 말지기

02. 마 리 : ᄆᆞ리, 바리

03. 쌍 : 혼자리, 쌍

04. 켤 레 : 배

05. 그 루 : 줴

06. 포 기 : 패기

07. 뼘 : 뽐

08. 자 루 : 즈록

09. 병 : 펭

4. 수

01. 하나 : ᄒᆞ나

02. 둘 : 둘

03. 셋 : 싯

04. 넷 : 닛
05. 다섯 : 다슷
06. 여섯 : ᄋᆞ섯
07. 일곱 : 일곱
08. 여덟 : ᄋᆞ덟
09. 아홉 : 아옵
10. 열 : 열

Ⅳ. 動 物

1. 물고기 (1)

01. 고기 : 궤기
    ① 생선 : 바릇궤기
    ② 민물고기 : 연못궤기
02. 미끼 : 니껍
03. 지느러미 : 등쑬
04. 아가미 : 구생이
05. 창자 : 창지
06. 올챙이 : 맨주기
07. 개구리 : 돌개비, 가가비
08. 두꺼비 : 두태비

2. 물고기 (2)

01. 멸치 : 멜
02. 갈치 : 갈치

03. 게 : 깅이

04. 새우 : 새비

05. 달팽이 : 돌뱅이

3. 벌 레

01. 서캐 : 쉬

02. 벼룩 : 베룩

03. 장구벌레 : 장굴레비

04. 파리 : 프리

05. 쉬 : 쉬프리

06. 구더기 : 똥버랭이

07. 회충 : 게우리

08. 거머리 : 거말

09. 벌레 : 버랭이

10. 바구미 : 돗뿌리

11. 하루살이 : 누네누니, ᄒᆞ루살이

12. 메뚜기 : 만축

13. 방아깨비 : 심방말축

14. 여치 : 밴말축

15. 버마재비 : 곡쳬기

16. 소금쟁이 : 엿장시

17. 반딧불 : 불난디

18. 진드기 : 진독

4. 가 축

01. 소 : 쉐

① 황소 : 숫소, 부사리

② 암소 : 암쉐

③ 송아지 : 송애기

02. 고삐 : 쉐석

03. 멍에 : 멍에

04. 소입막이 : 망울

05. 외양간 : 쉐막, 쉐왕

06. 두엄 : 걸름

07. 구유 : 것통

08. 염소 : 염송애기

09. 말 : 몰

① 망아지 : 몽생이

② 마구간 : 몰방

5. 산짐승

01. 여우 : 여히, 여시

02. 노루 : 노리, 노루

03. 올가미 : 코고리

04. 삵괭이 : 식

05. 쥐 : 중이

6. 날짐승

01. 새 : 생이

02. 깃 : 터럭

03. 솔개 : 솔기

04. 꿩 : 꿩

① 까투리 : 암꿩

② 장끼 : 장꿩

V. 植　物

1. 꽃

01. 꽃 : 고장
02. 봉선화 : 봉숭아
03. 해바라기 : 강낭께

2. 나 물

01. 냉이 : 난쟁이
02. 질경이 : 배채기, 배치기
03. 달래 : 꿩마농

3. 야생수

01. 도토리 : 동고리
02. 상수리 : 츠낭
03. 뿌리 : 뿔리
04. 줄기 : 등치
05. 솔가리 : 솔닙
06. 갈퀴 : 글갱이
07. 도끼 : 도치

〈提報者〉 홍 재 학 (여 · 73)　김 기 석 (남 · 71)
강 인 수 (남 · 41)　이 시 춘 (남 · 60)
송 의 섭 (남 · 72)　좌 남 식 (남 · 32)
김 태 문 (남 · 75)　진 영 봉 (남 · 54)

北濟州郡 涯月邑 郭支里

民　　謠

指導教授 金 榮 敦
班　　員 任 贊 善 (國文・4)
夫 山 玉 (國文・3)
姜 成 大 (國文・2)
金 珍 旭 (國文・2)

目　次

Ⅰ. 勞動謠
1. 따비질노래
2. 흙덩이 바수는 노래
3. 흙 이기는 노래 1) 2)
4. 밭 밟는 노래 1) 2) 3)
5. 김 매는 노래 1) 2) 3)
6. 타작노래 1) 2)
7. 방아노래 1) 2) 3) 4)
8. 맷돌노래
9. 나무 베는 노래 1) 2)
10. 나무 켜는 노래
11. 나무 내리는 노래
12. 꼴 베는 노래
13. 베틀노래
14. 해녀노래 1) 2) 3)
15. 뱃노래
16. 멸치 후리는 노래 1) 2)
Ⅱ. 童　謠
1. 自然謠(天體氣象謠 및 動植物謠)
(1) 비 올 때 1) 2) 3) 4)
(2) 아카시아 이파리를 손 안에 넣고 흔들면서 1) 2)
(3) 쇠비름 뿌리를 두드리면서
(4) 보리피리 만들며
(5) 방아깨비를 잡고 춤추길 바라면서 1) 2) 3)
(6) 풍뎅이가 돌길 바라며 1) 2)
(7) 매미를 잡을 때
(8) 잠자리를 잡으며 1) 2)
(9) 조개 잡을 때 1) 2) 3)
(10) 게 잡으면서 1) 2) 3)
(11) 게 거품 낼 때 1) 2)
(12) 꿩 노래 1) 2) 3)
(13) 기러기 뜬 것을 보고 1) 2)
(14) 가마귀노래
(15) 달팽이 나타나길 바라면서 1) 2)
(16) 지렁이 우는 소리
(17) 뱀 보일 때 1) 2)
(18)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19) 수영 후 신을 말리면서
(20) 몸의 물기를 말리면서
(21) 이 뺄 때 1) 2)
(22) 이 빠진 애를 놀리면서
(23) 이 빼서 지붕으로 던지면서
(24) 머리 깎은 애 놀리면서
2. 語戲謠
(1) 야유할 때
(2) 꼬리따기
3. 遊戲謠
(1) 고무줄놀이할 때 1) 2) 3) 4) 5)
(2) 공놀이할 때
(3) 공기놀이할 때
(4) 원님놀이 1) 2) 3) 4)
(5) 어깨동무하면서
(6) 줄을 지어 놀이하면서
4. 자 장 가
(1) 자장가 1) 2)
(2) 아기 어르면서 1) 2) 3)

郭支里 조사에서는 짧은 調査期間이었지만, 勞動謠와 童謠에 力點을 두어 採錄하였다.

勞動謠는 특수한 民謠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民謠를 採錄하였으며, 너무 단조롭거나 사설 자체가 자료로서의 값어치가 없는 경우는 제외했다.

童謠는 곽금국민학교 문 명자 교사의 도움에 따랐으며 다채로운 유희요 등 새로운 자료를 확보했다는 데 意義가 있겠다. 유희요는, 근래 어린이들 사이에서 새로이 유행되는 유희에 따른 諷刺的 童謠다.

現場論的 調査方法에 따라 口演狀況, 제보자에 대한 해설이 각각 따라야 하겠지만, 지면 관계상 아쉽게도 이를 생략하고 사설만 소개한다.

1. 따비질노래

이산고개 놀단흑아
오늘날은나손에 일어난다
이산고개 놀단흑아
오늘날은나손에 일어난다

(김기섭, 남・72)

2. 흙덩이 바수는 노래

요놈오벙에야 벗어지라
요놈오벙에 맬라지라

(김기섭, 남・72)

3. 흙 이기는 노래

3—1

어어어어허어량 하아량
허어어서꺼자 흔저꺼자
어허허아하랑

(김기섭, 남・72)

3—2

하량하량하량 돌— 호— 요놈오송아지덜아 요흑더레 들어상 지근지근 드려 볼려보자 아허허허 호오호오 어러러러 덜덜덜덜얼 헤헤헤 어허허허호 어

허량 하아량 어허허호오 돌돌돌돌

뱅뱅돌라 요놈오 송아지덜 허허허 호호호 어러러러 어러러러 호응홍아 어어 어량 하아량 어러러러 요놈오 송아지덜 아차차차 아차차 어러러러 돌라

(이남호, 남 · 62)

4. 밭 밟는 노래

4－1

어러러러 어어어돌돌 요ᄆᆞᆼ생이덜아 올라서멍 노픈디 ᄂᆞ직ᄂᆞ직불르라 구석드레 드러사멍 ᄌᆞ근ᄌᆞ근불리라 어러러러 어어어어돌돌

느지기오름광 검은오름새로 갈라부쩐 구름의ᄒᆞᆫ가달은 바당으로가고 ᄒᆞᆫ가달은 산으로가난 틀림엇이 마가지야뒐티여 들어사멍 나사멍 ᄂᆞ직ᄂᆞ직불리라 어러러러 어어어어돌돌

(강인한, 여 · 82)

4－2

어러러 덜덜덜덜 어어어어 허어허호호 어러러 어러러 호호호아 요놈오 망아지덜아 어허러러 어러럴

아아아하량 아아량 어러러 돌돌돌돌돌 돌호오호오 어서어서 돌아보라

요놈오 망아지덜아 에헤에 헤에헤헤헤에 조랑나건 벙덩시리로호오 들락들락 나줍서

어러러러러 허허허허어 호오호 어러러러러러러 어어어홍아 오로로로로로 돌돌돌돌

(이남호, 남 · 62)

4－3

요망아지덜아 어서걸으라 돌돌돌 오홍오야 하량

요런날에 요일홈사 성도언매나 가실소냐 어허어러러 돌돌오호 어량하량 돌돌돌돌 돌

저하늘에 번구름은 마가지를 시켜줄라 하는구나 돌돌오호 어량하량

요밧듸 조랑나건 낭간디입간디 쉐ᄋᆞ름을 시겨줍써 어허량하량

(강이절, 여 · 72)

5. 김 매는 노래

5－1

검질짓고　　굴늦인밧듸
고분쉐로　　여의멍매게
앞멍에야　　날ᄃᆞ기라
뒷멍에야　　무너나라
우리성제　　삼성제들민
제안지　　제진체말라
우리성제　　삼성제들민매여주마
어긴너랑　　사디로구나

(강인한, 여 · 82)

5－2

허어허량　　사대야
앞멍에야　　들어나오라
뒷멍에랑　　배멀로삼앙
허긴너랑　　사대야
사대불렁　　요검질매자

검질짓엉　　굴너른밧듸
고분쉐랑　　여해멍매게
어긴너랑　　사대야
허어허여어　　이러러어허야
저산중에　　놀던새야
어서잠깐　　ᄒᆞ고야말리

(이름모름 합 2명)

5－3

어긴너랑　　사디로다
검질짓고　　굴늦인밧듸

고분쉐로　　여헤멍가게

앞멍에에　　곤아장앚앙
혼저오랜　　손이나친다
뒷멍에야　　무너나나라
어긴너랑　　사디로고나

검질제운　　앙작이여
혼소리에　　두좀반썩
어긴너랑　　사디로고나

(장성일, 여 · 68)

6. 타작노래

6－1

이야도홍　　어야홍
이지러엇인거　　뭐이시리
신망태에　　신ᄉᆞ래에
신물금에　　신좁쌀에
어야도홍

(강인한, 여 · 82)

※ '신망태'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이 노래를 부른 다음 '신망태'로 불리어짐.

6－2

노픈동산　　올라사멍
　　하야도홍아　어야홍아
ᄂᆞ직ᄂᆞ직　　둘러매멍두드리자
　　하야도홍아　어야홍아
요것도생국이여　　요거영저거영
　　하야도홍아　어야홍아
둘러매멍　　무럭무럭두드리자

하야도홍아 어야홍아
어깨를 둘러매멍
하야도홍아 어야홍아
요거영저거영 요것도생국이여
하야도홍아 어야홍아
둘러매멍 두드리자
하야도홍아 어야홍아

(고내숙, 여 · 66)

7. 방아노래

7－1

이여이여 이여도ᄒᆞ
이여이여 이여도ᄒᆞ라
옛날옛적 상수ᄆᆞ름부ᄌᆞ리칩
상아덜에 메누리들언
너른드르 가지전답두덕넙은
너른드르 남전북답
너른드르 날아니준덜
은방엣귀 아홉에
비방애ᄌᆞ록 날아니주랴
이여이여 이여도ᄒᆞ
이여이여 이여도ᄒᆞ
ᄉᆡ콜방애 새글럼서라
상수ᄆᆞ름 부ᄌᆞ리칩이
큰메누리 열두콜방애
비잡아서라 이만ᄒᆞ민
은방엣귀 아홉에
비방애ᄌᆞ격 아니뒈랴
이여이여 이여도ᄒᆞ라

이여이여　　이여도ᄒᆞ라

(강인한, 여 · 82)

7－2

이여이여　　이여도ᄒᆞ
이여이여　　이여도ᄒᆞ
서도노미　　올레바른강좌수첩이
놀멍먹젠　　메누리드난
어디놀아놀아　　놀아서니

보리방이　　천ᄀᆞ득노앙
도웰사름　　하나이웃언
부를노래　　다불런보난
보리난　　솔가렷고나
어느제건　　정도령오건
나서룬말　　다일러두엉
온질르로　　내돌아가리
이여이여　　이여도ᄒᆞ
이여이여　　이여도ᄒᆞ

(강인한, 여 · 82)

7－3

이여이여　　이여도ᄒᆞ랑
제주놈은　　굴목낭방애
육지놈이　　도기방애

콩콩짛으라　　혹뚤라지게
잘짛으민　　쏠이나뒈고
능근쏠은　　밥맛도좋나

(장성일, 여 · 68)

7－4

이여도ᄒᆞ랑　　이여도ᄒᆞ랑
제주놈의　　굴묵낭방애
육지놈의　　도애낭방애

하늘왕제　　말젯뚤아기
금시상에　　내려오란
쉬콜방애　　새글럼서라
이여도ᄒᆞ랑　　이여도ᄒᆞ랑

(고달생, 여 · 79)

8. 맷돌노래

이여이여　　이여도ᄒᆞ랑
독은울엉　　날새건마는
나사울엉　　날새어지랴

날놀래영　　산넘엉가라
저산뒤에　　서룬어멍살안
설룬아기　　소린가ᄒᆞ게
나놀래랑　　물넘엉가라
저물저대에　　서룬성살앙
서룬동생　　소린가ᄒᆞ게
이여이여　　이여도ᄒᆞ랑

(고달생, 여 · 79)

9. 나무 베는 노래

9－1

시르릉 시르릉 요나무 흐흐흐 끈엉으네 이산앞으로 끈어다가 개불포여 중돌이여 연못이여 에헤헤헤야 호오오

이낭비어당 대들보만들엉그네 와개집이여 초가집이여 허어허어허어호아 많

이로구나

(이남호, 남 · 62)

9－2

이나무 저나무 패여당 화목을 만들어보자 도치로 쩍어난디 쩍곡ᄒᆞ영 착착소리로 잘도나간다 야드러마 호오호오 드러떠러마 에헤야 호오 호오

이나무 저나무 비여당 화목ᄒᆞ영 멧년페칠살젠 애랑간장타멍 이아이고 이 솔기불렁 ᄯᅳ려보자 자호오 〔아따 잘도 나간다〕 착착소리로 솔기로 도치 둘러매영 ᄯᅳ려보자 야호오 요놈오저놈오 〔아따 요거 참 잘도 나간다 요놈오 저 놈오 참 아따 요렇게도 잘 나가는구나〕

(이남호, 남 · 62)

10. 나무 켜는 노래

이나무 저나무 골려보자 어느때에 이집을 성공ᄒᆞ영 만들아볼꼬

요톱소리 스르렁 자귀밥을 내영 놀밥으로 나서가멍 아이고자라 하이고 이건 불쌍한사름 살집이로구나

아이고 요런때 어서어서 빨리빨리 독닥독닥 톡소리여 마깨소리여 끌마깨 씨러가는 소리로구나 애이고야 에헤헤헤허

(이남호, 남 · 62)

11. 나무 내리는 노래

이나무 저나무 끗어다가자 상원님네들 권력ᄒᆞ영 어서가자 어서가자 어러렁렁 실실실 산앞으로 ᄂᆞ려가는 솔기로구나

헤헤헤헤에 오호 해솔기로 불러가멍 어서 일심동력ᄒᆞ영 상원님네들 권력ᄒᆞ여 주옵소서 어허허허

(이남호, 남 · 62)

12. 끌 베는 노래

성금성금 어허홍웅 홍애기로구나 오호홍

성금성금 어허홍옹 홍애기로구나 아허홍아홍
성금성금 어허홍옹 홍애기로구나 허 넘어간다

(고달생, 여 · 79)

13. 베틀노래

하늘옥황 상제님이뚤이
금시상을 내려산
홀일이 엇어젼
앞낭알에 베클걸언
ᄇᆞ름잡앙 잉에걸고
구름잡앙 잉에걸언
왈각잘각 차암더니
서울서도 펜지가온다
앞문전의 받아오민
뒷문전의 펴완보니
시왓죽은 펜지러라
반찬에도 씨단밥이
소금에도 돌아서라

(강인한, 여 · 82)

14. 해녀노래

14－1

우리선관 가는데랑
메역좋다 여끗트로
놈의선관 가는데랑
감태좋다 웅덩개로
검은빌레 날ᄃᆞ기라
우리먼바당 간오젠ᄒᆞ난
뒷고개가 제차지고

어느제랑　　열다섯나건
비양도섬　　짓넙은메역
섭조개로　　긁으레들리
여긴녀랑　　사대로구나

(강인한, 여 · 82)

14 — 2

요년덜아　　요네젓엉
메역좋다　　여끗트로
감태좋다　　웅덩개로
양석싸라　　섬이가게
총각차라　　물에들게
배엔가난　　뱃방귀소리
배엔가난　　메역질소리

(강인한, 여 · 82)

14 — 3

총각차라　　물에들게
감태좋은　　봉당개로
메역좋은　　여끗트로
우리서낭　　가는디랑
메역좋은　　여끗들로
놈의서낭　　가는디랑
감태좋은　　엉덩개나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우리배는　　솔나무배여
솔솔ᄒᆞ게　　잘도간다
우리서낭　　가는디랑
빗전에　　감태좋은웅덩개랑
놈의서낭　　드리치라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우리배는 잣낭으로짓인배여
잘도잘잘 잘도간다
이허이허 어서가자
솔솔ᄒᆞ게 잘도나간다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고내숙, 여 · 66, 고달생, 여 · 79)

15. 뱃노래

요바당에 노는고기
오늘날랑 나사돌에걸려도라
어여도싸 이싸

(김기섭, 남 · 72)

16. 멸치 후리는 노래

16－1

야 동줄이여 서줄이여 ᄃᆞᆼ이라 ᄃᆞᆼ이라 아이고 소복꼴련 요거 멜넘엄져 멜넘엄져 어서덜 요 동줄ᄃᆞ리라 서줄ᄃᆞ리라

아이고 이거이거 멜도 이거 많이 싸ᄂᆞ난 멜버치켜 그물 꼴지말앙 혼저 ᄀᆞᆺ듸 개코만부찌라

야 이거 혼저 개코만 부찌민 허던 먹엇져덜 부지런히 ᄃᆞᆼ이라 동줄이여 동줄ᄃᆞᆼ이라 서줄ᄃᆞᆼ이라 ᄃᆞᆼ이라 ᄃᆞᆼ이라 야 이거 막 멜 꼴렴져

이거 어디 이거 혼저혼저 꼴련 부찌라부찌라 멜 막 넘엄져

(이남호, 남 · 62)

16－2 테우 위에서

이여싸나아아 이여도사나
한코떠넌 땡기곡밀엉가자
어여차디여차 에야디야

어서가자　　잘도간다
잘도간다　　앞으로물결령
어서맹기곡　　때밀어라
잘도간다　　어서어서
멜저디　　돌암져
저거훈저　　막으라막으라
어서젓으라젓으라　　네젓으라

(이남호, 남・62)

1. 自然謠(天體氣象謠 및 動植物謠)

(1) 비 올 때

(1)－1

비야 비야　　오지말라
장꿩밧듸　　물들엄져

(이남호, 남・62)

(1)－2

비야 비야　　오지말라
꿩×에　　물들엄져

(장순녀, 여・56)

(1)－3

비야 비야　　오지말라
묵은 복닥　　벗겨뒹
새 복닥　　입혀주마

(고내숙, 여・66)

(1)－4

비야 비야　　오지말라

장독 밧듸　　비 ᄀᆞᆯ람져

(홍옥녀, 여 · 60)

(2) 아카시아 이파리를 손 안에 넣고 흔들면서

(2)－1

얼레기 차라　챙빗차라

얼레기 차라　챙빗차라

(이남호, 남 · 62)

(2)－2

챙빗 차라　얼레기 차라

챙빗 차라　얼레기 차라

(강이절, 여 · 72)

(3) 쇠비름 뿌리를 두드리면서

동더레　　불싸라

서러레　　불싸라

(강이절, 여 · 72)

(4) 보리피리 만들며

멍 깔라　　장 깔라

배염 잡앙　헤치지

(홍옥녀, 여 · 60)

(5) 방아깨비를 잡고 춤추길 바라면서

(5)－1

심방 만축　춤추라

심방 만축　춤추라

(장지영, 여 · 중2)

(5)－2

심방 만축　춤추라
살레왕이　돌아감져

(장순녀, 여・56)

(5)－3

춤추라 신방신디 돌아가마
춤추라 살레방이 돌아가마

(고달생, 여・79)

(6) 풍뎅이가 돌길 바라며

(6)－1

뱅뱅돌돌 뱅뱅돌돌(방방돌돌 방방돌돌)

(고달생, 여・79)

(6)－2

대정할망　ᄀᆞ래ᄒᆞᆯ라
대정할망　ᄀᆞ래ᄒᆞᆯ라

(고내숙, 여・66)

(7) 매미를 잡을 때

주열 자열　내려오라
개똥 범벅　ᄒᆞ여주마

(홍재학, 여・73)

(8) 잠자리를 잡으며

(8)－1

곤밥주리　쨍쨍
앚아난디　앚이라
곤밥주리　쨍쨍

앚아난디　　앚이라

(강이절, 여 · 72)

(8)－2

청청 밥주리

앚아난 방석에 앚이라

(고내숙, 여 · 66)

(9) 조개 잡을 때

(9)－1

새끼 살려 주크매

어미 나와라

(양윤정, 여 · 6년)

(9)－2

맨발에　　디뎌도라

아강발에　　디뎌도라

(이남호, 남 · 62)

(9)－3

웬발에　　거러지라

ᄂᆞ단발에　　거러지라

(강이절, 여 · 72)

(10) 게 잡으면서

(10)－1

밥ᄒᆞ라　　죽ᄒᆞ라

밥ᄒᆞ라　　죽ᄒᆞ라

(이남호, 남 · 62)

(10)－2

발 털어　　지지말라
니주방에　　돌아가마

(고달생, 여・79)

(10)－3

발 털어　　지지말라
진주방장　　술안주ᄒᆞ게

(강이절, 여・72)

(11) 게 거품 낼 때

(11)－1

곤밥ᄒᆞ라　　조팝ᄒᆞ라

(고내숙, 여・66)

(11)－2

밥허라　　죽허라
밥허라　　죽허라

(홍옥녀, 여・60)

(12) 꿩노래

(12)－1

꿩 꿩 장서방　　앚아난디 앚이라
요레오랑 곱으라 나는 율로 간다

(김기섭, 남・72)

(12)－2

꿩 꿩 장서방　　어찌어찌 살앗나
그럭저럭　　살앗다
뭣 먹어　　살앗나
저 산 앞의　　부돌 줏어먹고 살앗다

(강이절, 여・72)

(12)－3

꿩 꿩 장서방 어찌어찌 살앗나?
이리 저리 사노라
뭣 먹고 살앗나?
마실(ㅈ실) 밧듸 콩 흔방울 줏어먹고 살앗다
뭐 입고 살앗나?
알록달록 저고리 알록달록 치마 알록달록 바지에
알록달록 후리매에 야개기에 붉은 띠로 띠고
대가리 붉은 고장을 달고 그럭저럭 살앗다

(고달생, 여·79, 홍재학, 여·73, 장성일, 여·68)

(13) 기러기 뜬 것을 보고

(13)－1

오늘 날이 좋암직허다
저디 강 장항 더끄레 감져

(김기섭, 남·72)

(13)－2

동쪽으로 가믄
장항 더끄레 간다
서쪽으로 가믄
장항 을레 간다

(홍옥녀, 여·60)

(14) 까마귀노래

가마귀야 가마귀야 어디 가오란디?
할망칩이 불담으레 가왓져
무신밥 줘니?
자굴밥 줘라

무신 숟가락 줘니?
자굴 숟가락 줘라
(강이절, 여・72)

(15) 달팽이 나타나길 바라면서

(15)－1
창문 욜라 기게문욜라
(이남호, 남・62)

(15)－2
창문 욜라 곤애기 보게
(강이절, 여・72)

(16) 지렁이 우는 소리
나 눈 돌라 도르르르
나 눈 돌라 도르르르
(장성일, 여・68)

※ 매미는 흰 띠가 있고 지렁이는 눈이 있었다. 지렁이가 눈하고 흰 띠하고 바꾸자고 해서 바꾸었는데, 매미는 장사 잘했다고 '재'하고 울고 지렁이는 눈을 잃어버려서 눈을 달라고 '도르르르 도르르르' 하면서 운다고 한다.

(17) 뱀 보일 때

(17)－1
큰 칼 줄라 족은 칼 줄라
(고달생, 여・79)

(17)－2
큰 배염 잡앙 훼치게
(장성일, 여・68)

(18)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침 뱉고나서)
나 침간디 나 발 가라

생이랑　　고운 물 먹고
가마귀랑　　궂은 물 먹으라

(고내숙, 여 · 66)

(19) 수영후 신을 말리면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얼씨구 씨구 돌아간다
절씨구 씨구 돌아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얼씨구 씨구 돌아간다
절씨구 씨구 돌아간다

(김은양 · 곽금교 6년, 김홍숙 · 3년, 신경림 · 6년,
신지희 · 6년, 김미나 · 6년)

※ 각설이타령의 한 대목을 불렀다.

(20) 몸의 물기를 말리면서

물 털어지라
늬영 나영 갈랑 먹게

(장지영, 여 · 중2)

(21) 이 뺄 때

(21)－1

묵은 늬랑　　돌아가곡
새 늬랑　　돌아오라

(김은양, 여 · 6년 외 9명)

(21)－2

묵은 늬랑 돌아가곡
새 늬랑 돌아오라

(김기섭, 남・72)

(22) 이 빠진 애를 놀리며

늬 무사 우녁담 ᄆᆞᆯ아부런디

(고달생, 여・79)

(23) 이 빼서 지붕으로 던지면서

새 늬랑 돌아오고
묵은 늬랑 돌아가라

(강이철, 여・72)

(24) 머리 깎은 애 놀리면서

중ᄇᆞ록 상ᄇᆞ록
ᄆᆞ진년이 ×ᄀᆞ록

(장순녀, 여・56)

2. 語戱謠

(1) 야유할 때

새벽종이 울렸네 '땡'
땡하고 울렸네 '그만'
그만 자고 일어나 '나가'
나가서 일 하세

(김은양, 여・6년)

※ 노래자랑할 때 심사위원이 제지시켜도 계속 불렀다고 한다.

(2) 꼬리따기

저 산뒤에 꼬박꼬박ᄒᆞ는 것은 뭐이냐?
훤 하르방이다
훤 하르방은 허리 굽나
허리 굽으믄 질맷가지여
쉐질맷가지는 늬고망 난다
늬고망 나믄 시리여
시린 검나
검으믄 까마귀여
까마귀는 놉뜬다
놉뜨믄 심방이여
심방은 두드린다
두드리믄 털갱이여
털갱이는 더 뛴다
〔청취불능〕
익으믄 대추여
대추는 돋다
돋것은 엿이여
엿은 훌친다
훌치믄 지레기여
지레기는 보리 먹나
보리 먹으믄 쉐여
쉐는 뿔 돋나
뿔 돋으믄 깡녹이여
깡녹이믄 뛴다
뛰믄 베룩이여
베룩이믄 죽여분다

(고달생, 여・79, 장성일, 여・68, 강이절, 여・72)

3. 遊戲謠

(1) 고무줄놀이할 때

(1)－1

순이 아버지　　순이 아버지
담배 꽁초에　　불이 붙어서
영순아 영순아　　종이 가져와

(김은양, 여・6년)

※ 4・5월에 한다.

(1)－2

우리는 대한의 아들딸
새 정신 새 힘을 기르자
모여라 동포야 함께 함께 뛰어놀자

(김은양, 6년 외 5명)

※ 고무줄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하는 놀이다.

(1)－3

앞에는 운전수　　뒤에는 조수
달려라 달려라　　서울역까지
달려라 달려라　　서울역까지
여기는 서울역　　내려주세요
운전수 아저씨　　고맙습니다

(김은양, 여・6년 외 9명)

(1)－4

딱따구리 구리　　마이나스
마이나스깨끼가　　맛 좋아
인도 인도　　인도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오세요

(김은양, 여・6년 외 9명)

(1)--5

순이 엄마　　검은 머리에
껌이 붙어서　　영순아 영순아
종이 갖다줘

(김은양, 여·6년 외 9명)

(2) 공놀이할 때

하나 짜리여　　하나 짜리여
하나 주고 샀다고　　지랄을 말라
짬뽕

두 개 짜리여　　두 개 짜리여
두 개 주고 샀다고　　지랄을 말라
짬뽕

세 개 짜리여　　세 개 짜리여
세 개 주고 샀다고　　지랄을 말라
짬뽕

네 개 짜리여　　네 개 짜리여
네 개 주고 샀다고　　지랄을 말라
짬뽕

다섯 개 짜리여　　다섯 개 짜리여
다섯 개 주고 샀다고　지랄을 말라
짬뽕

여섯 개 짜리여　　여섯 개 짜리여
여섯 개 주고 샀다고　지랄을 말라
짬뽕

일곱 개 짜리여　　일곱 개 짜리여

일곱 개 주고 샀다고 지랄을 말라
짬뽕

여덟 개 짜리여 여덟 개 짜리여
여덟 개 주고 샀다고 지랄을 말라
짬뽕

아홉 개 짜리여 아홉 개 짜리여
아홉 개 주고 샀다고 지랄을 말라
짬뽕

열 개 짜리여 열 개 짜리여
열 개 주고 샀다고 지랄을 말라
짬뽕

하나 짜리여 두 개 짜리여 세 개 짜리여 네 개 짜리여 다섯 개 짜리여 여섯 개 짜리여 일곱 개 짜리여 여덟 개 짜리여 아홉 개 짜리여 열 개 짜리여 짬뽕

(김은양, 여・6년 외 9명)

※ 다음에는 "하나 짜리여여 두 개 짜리여여" 하는 식으로 계속 "여"를 하나씩 덧붙여가면서 부른다.

(3) 공기놀이할 때

○○씨 ○○씨 죽어라

(양윤정, 여・6년)

※ 웃기게 해서 공기를 잘 못 잡아 지게 한다.

(4) 원님놀이

(4)－1

연어장시야 얼마 받겠니
일 원 받겠다 아이고 비싸다 아이고 비싸다

(김은양, 여・6년 외 9명)

※ 겨울에 여러 명이 마주 앉아 다리를 펴고 건드리면서 하는 놀이다.

(4)－2

인다리	저다리
대청	저청
원님	서청
넘어	가니
할미	꼭지가
불대통	

(강이절, 여・72)

(4)－3

한나	이나
매우	때
너기	삼춘
어디	가
지장	밧듸
총 사레	가
부지땡	

(홍옥녀, 여・60)

(4)－4

깡녹	깡녹
깡	도량
얼레기	챙빗
너	도량
진독	진독
진	도량
〔청취불능〕	홍초장
오줌	싸주라
졸락	장

(홍재학, 여・73)

(5) 어깨동무하면서

어깨동무 내 동무 이야기길로 가자
어깨동무 내 동무 미나리밭에 앉았다

어깨동무 내 동무 이야기길로 가자
어깨동무 내 동무 미나리밭에 앉았다

(김은양, 여・6년 외 9명)

(6) 줄을 지어 놀이하면서

깽깽 질락락 깽깽 질락락
(돌아가다가)
하르방 하르방 문 열어줍서
너 조름에 탄거 뭐야
삼년 묵은 엿 더렁붙이요
하나 줘

(고내숙, 여・66)

4. 자 장 가

(1) 자장가

(1)－1

웡이자랑 웡이자랑
우리 아기 잘도 잔다
빨리 자야 빨래허곡
빨리 자야 과자 사먹는다

(김은양, 여・6년)

(1)－2

어진 애기 자랑ᄒᆞ게

금ᄌᆞ동아　　옥ᄌᆞ동아
금실동아　　웡이자랑
어진손지　　할망손지
어서 자라　　구덕젓게
어서 누라　　웡이자랑
웡이자랑 웡이자랑

자는것도　　놂이여
노는것도　　좀이여
불아래랑　　옥돌ᄀᆞ뜬
우리 아기　　저기 저기
알래기 ᄀᆞ뜬　　우리 아기
웡이자랑　　잘도 잘도 논다
까마귀젓놀개ᄀᆞ뜬　　우리 아기
웡이자랑 웡이자랑

금실동아　　옥실동아
어린 애기　　자랑ᄒᆞ자
수원때기　　자랑ᄒᆞ자
지픈지픈　　천지소에
드리첫닥　　내첫닥
웡이자랑 웡이자랑

놈의 아기　　우는 소리
고추 먹엉　　우는 소리
우리 아긴　　곤밥 먹엉
자는 소리　　웡이자랑
웡이자랑 웡이자랑

부모에게　　효신동아
일가방상　　화목동아
동네방네　　인심동아
어서 자자　　어서 놀자
웡이자랑 웡이자랑

(홍재학, 여 • 73, 홍옥녀, 여 • 60)

(2) 아기 어르면서

(2)－1

도사라　　대사라
돔베주짝　　해주마
(강이절, 여・72)

(2)－2

울단 장콜래비　　벳낫져
(장지영, 여・중2)

(2)－3

울단 장콜래기　　허이 허이 허이
울단 장콜래기　　허이 허이 허이
(강이절, 여・72)

說　　話

指導教授 金 昞 澤
班　　員 金 永 淑(國文・4)
高 錦 順(國文・3)
高 貞 善(國文・2)
左 恩 女(國文・2)

目　　次

1. 토인딸이 임금 며느리된 이야기
2. 월계 진좌수
3. 동방삭이
4. 김천덕 열녀비 이야기
5. 지혜있는 며느리
6. 수만이
7. 생불도채비
8. 과거합격기
9. 당오백 절오백
10. 업보받은 이야기
11. 고양이와 개
12. 자청비 이야기

1. 토인딸이 임금 며느리된 이야기

옛날, 거세기 임금이 이젠 토인이라고 ᄒᆞ민(하면), 뭣인고 ᄒᆞ니, 이제 ᄒᆞᆨ교민(학교라면) 급사라. 토인 뚤이 어떻게 영악핸는지, 사름이 잘 나서!) 이제 임금이 요걸 꿸(꾀를) 뽑아 봐서 잘 안다 ᄒᆞ니, 내 며느릴 ᄒᆞᆫ다구. 이젠 오라고 ᄒᆞ난 토인이 가서. 가난,두 가지로 예순을 맨들앙 오랜 ᄒᆞ난, 아, 오란(와서) 탄복핸. 밥도 안 먹고 막 해 가난 뚤이 ᄒᆞ는 말이,

"아버지는 어째 식살 안 햄수과?"

1) 남보다 뛰어남.

허난, 아버지 허는 말이,

"아, 임금이 오랜 핸 가난, 두 가지로 예순을 맹글앙 오랜(만들어 오라고) 허난, 어찌 맹글 수 있느냐, 난 암만 해도 두 가지로 예순을 맹글 수가 없다."

허난,

"나가 아맹이나 허쿠다."[2] 허난, 이제 아무 날은 오라 허난, 쉰다리[3] 해여(만들어서) 놓고, 열무수 해여서 두 가질 해여서,

"이거 어정 갑서.[4] 어져 왓느냐 허거들랑 이거 쉰다릴랑 이것은 쉰이우다. 열무수는 이거 열이우다." 허랜 허난 예순이 딱 되여. 게난,

"아, 이걸 누가 했느냐?"

허난,

"집이 뚤이 해수다."

허난 며느리를 해 가드란다.

(1983. 8. 19., 애월읍 곽지리, 장인휴, 여·84.)

2. 월계 진좌수

아 집이 암톡이 혼 두어 마리가 이서 가지고 계란을 문지작문지작[1] 햄신디, 항문더레 아 그 계란이 옴막 기어들어가 부럿단 말이여. 이놈을 ᄀᆞ따가 아무리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서?[2] 못 뺏다 이거여. 야 이거 참 큰일났구나 생각허는디 아무리 머 눌떠 봐도(눌러 봐도) 절대 까지질 안허여(깨지지 않아). 아 그러니 월계진좌수네 집이 지금 떡하니 지금 가 봐야 씨겠다고(하겠다고) 생각허연 가신디, 이문간(대문)에 강 보난(가서 보니) 사름이 솜박허영[3]

---

2) 제가 알아서 하겠읍니다.
3) 밥을 발효해서 만든 음식.
4) 가져 가십시오.

1) 계란을 가지고 노는 모양.
(만지작 만지작)
2) 뺄 수가 있어?
3) 꽉 들어 차 있다는 뜻.

월계진좌수가 야개기(목) 영 내밀어 가지고 아 저 여자 지금 저 이리 좀 오랜. 그 올레(골목)에 저 듬돌 들르고 오라고. 영 허연 매껴단 말이여. 이레 사름이 한한햇는디(많이 있었는데).

〔조사자 : 아 듬돌 들엉.〕

아 듬돌 들엉 오라고. 허니깐 그 말을 듣고는 영 간 올래에 강 보난, 아니, 그렇게 되어서.

하, 이거를 어떻게 들르리오 해 가지고 여자는 스뭇 근심 걱정으로 지금 허고 잇는디. 아, 그러나 그 하르방이 허니까 홀 수 어시(할 수 없이) 들러야 씨겠다 (하겠다) 혼 그 생각을 가젼 이렇게 핸 우꾸허게 영 둘르난 멜록허게 나와 부렀다 허여.

(1983. 8. 17., 애월읍 곽지리, 박 문각, 남・76.)

3. 동방삭이

동방삭이가 3천년, 3천년 생명이 매기옌 허난. 무학난 동방삭이가 돌아난(달아나서), 돌아낭 어디 그자 이레 뒤척 저레 뒤척 집에 살지 안허영 돌아난 댕기난, 염라대왕이 체시를 보내도 동방삭일 간 딜(간 곳을) 몰란(몰라서) 잡지 못허여. 잡지 못허연. 못 잡우쿠덴 허난, 염라대왕사(이야) 오죽 실력이 든든헌(든든한) 염라대왕가! 아무 강가에 강이네 안자시민,[1] 강가에 가민 그 강가에 숫(숯) 싯는 놈이 동방삭이옌.

〔조사자 : 숫? 불사르는 숫마씸?〕

응.

〔조사자 : 그거 무사 시켜마씸?〕

그 저승 체시ᄀᆞ라(에게) 동방삭일 잡잰 ᄒᆞ민 숫을 싯이랜. 숫을 싯엄시민 동방삭일 잡을 때가 온덴. 경ᄒᆞ난 저승체시가 냇가에 강물에 숫을 싯엄거든. 싯임시난 길래레(길가에) 넘어가멍 군소리 허는 말이 배염(뱀) 죽은 디 헛소리

1) 가서 앉아 있으면.

말랜. 좀좀허영(조용히) 가민 동방삭인 줄 몰라실 건디 넘어가멍,

"왜 숫을 싯노냐?"

"검은 숫을 싯으민 흰덴 허영 싯엄수다."

"삼천년 살암시난 벨놈 다 봐졈쪄.[2] 검은 숫 싯엉 흰다 헌 놈 처음 봤네."

허난 그땐 동방삭인 줄 알안 동방삭이 생이(목숨이) 3천년이 매긴다. 무학난 경 돌아난 살아도 염라대왕이 명령허연 잡앗젠. 경헌 엿말을 들어서.

(1983. 8. 19., 애월읍 곽지리, 장 인휴, 여·84.)

4. 김 천덕(金天德) 열녀비 이야기

김 천덕인 김 여진의 뚤인디, 젊은 때에 서방(남편)이 죽어 부난, 과부가 뒈어부런.인기[1]는 아주 도내에 ᄒᆞ나(하나) 뒐까 말까 ᄒᆞ는, 그런 인기란 모양이라. 수절을 지켠 어떤 방향(곳)에서 오라서 문안을 드려도 절대로 거부햇댄. 개가는 절대 안 ᄒᆞ켄. 부락에 부랑한 총각이 오라서 배필을 정혼댄 ᄒᆞ여도 절대 거절햇댄.

이 말이 어디 전해진고 ᄒᆞ난 관가에 전해져서. 아, 우리 부락에 이러한 열녀가 이신가 허영, 관가에서 적당한 사름을 보낸. 신용을 알아보젠 허영. 부락에 유지며, 높은 사름을 술 멕영, 다 짜놩(짜서),

"여기, 천덕이랜 ᄒᆞ는 부인네가 이시냐?"

"잇습니다."

"그 부인네를 소개해 줄 수 어시냐?"

이러니까,

"어떤 사름이 오라도 수절을 지켱, 불응합니다."

"경 해도 날 소개해 주라."

술 멕이곡 요령을 쓰는디, 부락에 나타난 사름이 가민, 듣지 않을 것이라,

---

2) 별 이상한 사람 다 본다.

1) 얼굴 생긴 모습.
(김 천덕이 아주 예뻤었다 함.)

순수헌 농부를 보내신디,

"관가에 왕 이신 분인디, 우리나라에 멧(몇)째 안 가는 분인디, 부인네가 멧(몇) 달 전에 죽엇젠 이런디, 부인네 ᄒᆞ나를 어떵 소개해 줄 수 이시냐?"

ᄒᆞ는 소탁(부탁)이 이섯댄(있었다).

"하지만 우리 부락엔 엇다(없다)."

이러니까, 그 사름(사람) 말이,

"듣기에 쉐송(죄송)허곡, 거북ᄒᆞ나마, ᄒᆞ끔(조금) 돌은 바가 이신디(있는데), 츠츠ᄒᆞᆫ 부인네가 잇댄 ᄒᆞ니, 그 부인네를 소개해 도라."

"거, 잘 안 뎰 거우다."

허여도, 연구허여 주랜 ᄒᆞ난, 먹은 짐작이 이시니까 수작을 다 부련. 부인네신디(에게) 가니까 영(한마디로) 거절허여 부런. 경 ᄒᆞ난 관가에서 온 사름이,

'내가 ᄒᆞᆫ번 가켄(가겠다)' 허연. 하루는 물을 질레(길러) 물통(우물)에 가신디, 물지는 곳에 가시니까, 거기강 비추어 보랜 허연. 보니까, 절대 이 사름이랜 허여도, 절대 불응ᄒᆞ니까, 나라에 강, 이 부인네는 절대 아무런 요령을 써도 안 뎬댄 ᄒᆞ난, 그때 열녀비를 내렷댄 ᄒᆞ는 이야깁주.

(1983. 8. 18., 애월읍 곽지리, 양 원이, 남·73.)

5. 지혜있는 며느리

엿날 사름이 씨어머님은 돌아가불곡 씨아바님을 모셩 사는디, 씨아바님이 항상 얼굴에 고민이 이시난, 메느리(며느리)가,

"아바님, 무신 일이 이수과?"[1]

"아무 일도 엇다(없다)."

---

1) 무슨 일 있읍니까?

"아바님, 경 해도 말을 골읍서(하십시오). 무슨 일이 이수과? 아바님, 암만 해도 고민이 이수다."

허나네, 어디 조문 헐 디가 시언[2] 조문을 가젠 허난 늘ᄀᆞ라(너에게) 이복이라도 깨끗이 해 놔야 헐 건디 원 ᄌᆞ들아졍 못 골암쩌.[3] 허나네 '아이고 아바님, 거 무신 말씀이꽨' 판찍허영(깨끗하게 해서) 이네 씨아바님을 보냇거든. 조문을 보낸 원 올 시간이 뒈어가도 오질 안허여. 오질 안해 가난 메느리가 씨아바님이 가는 딜 안 오라가난 촞아보레(찾으러) 갓젠 허여. 가당보난(가다보니) 호랭이(호랑이)가 막 놀려사 물어먹넨 홈치(한꺼번에) 물어먹질 안허영. 막 놀령이네 이 사름을 정신어시(정신없이) 해사 그 호랭이가 물어 간덴게. 호랭이가 씨아바님이 조문 간 술잔이나 얼근이 먹고 돌아오는 길에 호랭이를 들리난(만나다) 호랭이가 씨아바님을 막 놀렴거든. 놀렴시난 그 메느리가 간, 아이고 이 중생아(짐승아) 이 늙은 어른, 팡(뼈)만 거드랑헌 어른 무신 먹어 볼 팡 잇느넨. 우리집의 구덕에 애기 눅전 놔 두난[4] 그 어린 애기가 팡도 보드랍곡 꼬륵꼬륵 맛이 좋지 안허느넨.

경 골으난(그렇게 말을 하니) 그 놈의 호랭이가 말을 알아들언 확 돌아나거든. 씨아바님을 도랑 오란 보난, (데려와서 보니) 호랭이가 아긴 방에 눅전 구덕에 놔 둔디 문 밧껴디(밖에) 썩 꿀련 안자꺼든(앉았거든). 호랭이가 오란 안자신디 아길 아니 주젠 허여도(주려고 해도) 아니 줄 수 없거든. 어시난 이젠 이 사름이 허는 말이 우리 벤소(변소)에 새끼 벤 뒈야지(돼지)가 잇젠. 그거 오족(오직) 맛 좋느넨(맛있느냐). 이 아기보단 그 뒈야지ᄀᆞ튼 건(같은 것은) 사름의 반찬으로 난 거난, 그걸 반찬 먹젠 이제 그 할망 조켄 아길 물어강 뒈느넨. 허나네 그자 그 통(변소)더레 활짝 호랭이가 가네 그때 그 도새길 확 허게 둘러매영 나 돌아난.

그 사름이 소대관문 내리곡 잘 집이 되엇젠. 경헌 엿말이 이서.

(1983. 8. 19., 애월읍 곽지리, 장 인휴, 여 · 84.)

---

2) 해야 할 곳이 있어.

3) 걱정되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애기침대(요람)에 애기를 눕혀 놓았다는 뜻.

6. ᄉᆞ만이

ᄉᆞ만이가 가난해낫젠.

메느리가 애기들은 ᄋᆞ라이고(여럿이고) 홀 수가 어시난, 예펜 머리 고산이 풀안[1] 돈을 닷 냥인가 받안.

장에 강 무시거(무엇을) 사당이네(사다가) 아이들이영 어멍이영 멕이젠, (먹일려고) 장에 간. 강 보난 마다리총 장시(장수)가 시여(있어). 원 이것도 불쌍허연 이걸 사 주어사 흠직허연[2] 지도(자기도) 불쌍헌 게.

〔조사자 : 아 총장시도 불쌍허연 마씸?〕

응. 원 아무도 안 사거든. 이젠 얼마 받을틴.[3] 경 ᄒᆞ나네, 석 냥 받으켄 ᄒᆞ난, 두 냥 반만 받으랜 허연이네 마다리총을 사네(사서) 오란. 이젠 노리(노루)랑 이리랑 마쳐당이네 살아 보카 허연. 뒷날은 심드렁만드렁허연 산에 올랏지, 올르난. 자, 그 노린 새총 마다리총 메영 댕기는 놈 아래(사람에게) 맛젠 흔 게(맞으려고 하는것이) 어디 시어게(있어?).

〔조사자 : 마수다(맞습니다)〕

원 노리도 못 마치곡(쏘고) 아 좀을 자니 밤중, 야심경엔 어디 굴 소곱으로(굴 속에서)

"ᄉᆞ만아 ᄉᆞ만아 날 잘 구완해 주민 늴(너를) 살릴 도릴 허마."

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밤이 밤ᄃᆞ리난 이 소릴 예사들언.[4] 그 소리 들으멍 기언 들어강 보나네 때난 불근 햇거든. 그걸 줏언(주워서) 설렁 오란. 집인 들어 오진 못ᄒᆞ곡 이. 그 어디 올래(골목에)에 오란이네(와서) 그 징심(점심) 지언, 엿날은 맹탱이, 이젠 그 맬망탱이에 지엉 오란에 낭(나무)에 걸어 두언. 낭에 걸어 두난, 아이고 ᄉᆞ만아 ᄉᆞ만아 해 가난; ᄉᆞ만이 각신 어디 간 그 죽게 살리지 안허여네 죽산인가 해 왓젠. 어디 앞 밧ᄃᆡ(밭)에 메어당 망탱이를 데껴(던져) 부런. 데껴 부난. 하도 ᄉᆞ만이 이제 어느 날 ᄉᆞ시에 저승

---

1) 아내 머리를 잘라서 팔았다는 뜻.
2) 사주어야 좋겠다는 생각을 가짐.
3) 값이 어느 정도인가를 물어봄.
4) 가볍게 흘려 들었다는 뜻.

생이(새)가 잡으레 오람젠. 인정을 잘 걸랜 경 허연 허난, 이젠 신발 ᄎᆞ리고 허연. 메(밥) ᄒᆞᆫ 사발씩 ᄒᆞ곡 허영이네 체시(差使) 잡으레 오람시매 액을 막으랜. 아 경 허난 그날 죽지 안허영 살아지거든. 살아지니. 이젠 가져당이네 그 빼를 안방에 모산 이(모셔서), 안방에 모시난, ᄉᆞ만이 각신 촙쏠(찹쌀)을 싯언. ᄎᆞ벌 싯은 물은 씨아바님, 씨어머님을 멕이곡(먹이고) 두벌 싯은 물은 남편 멕이곡, 세벌 싯은 물은 애기덜이영 지영(자기)먹곡, 경 허영 ᄆᆞᆯ 굴무멍 살단(살다가) 그 귀신을 경 모산(모션) 허나네, 그자 가민 노리랑목 대마다리 허여사 가져오게 빌련 경 부자걸을 허연.

ᄉᆞ만이가 생(生)이 30년이 매긴디, 경 인정걸언 이젠 오래 살앗젠.

(1983. 8. 19., 애월읍 곽지리, 장 인휴, 여·84.)

7. 생불도채비

엿날 ᄒᆞᆫ 사름이 아 질래(길(道))에 어실먹이 댕기단 보나네 생불도채빌 들렷젠.

〔조사자 : 생불도채비마씸?〕

응, 생불도채비.

생불도채빈 엿날에 촘멍에 쓰곡 사름으로 변장허영 다녓젠 허여. 왁왁(캄캄)헌 어느 나라 시국이사신디. 경 허연 ᄒᆞ난 아! 생불도채빌 들려지거든. 도채빌 봐지난 심언(잡아서), '느애비 때에(너의 아버지 때에) 돈을 멧(몇) 천냥을 비쭈아(빌려) 주난 느애비 뒈어지난(죽어버리니) 고맙덴 말 ᄒᆞᆫ 번도 안 허난, 이놈이 ᄌᆞ석(자식), 이 ᄌᆞ냑(저녁)은 심어진 짐에 답ᄃᆞ리허켄.' 생불도채빌 심어 놘 답ᄃᆞ리허난, 과연 살려줍센. 살려주민 이(利)에 이성거리 해당 물쿠덴.

〔조사자 : 이(利)에 이성거리마씸?〕

여(利)가 나민 이(利) 원전드레 노앙 그것도 이(利)가 날 것 아니라게. 그것도 이(利)가 나민 원전드레 부치민 이것도 이(利)가 날 거 아니라게. 그것ᄀᆞ라 이(利)에 이성거리옌 허매.

〔조사자 : 예.〕

경 허난 원전만이라도 도랜(주라). 이 사름은 돈 빚지지도 안허여도 도채빌 봐지난 답ᄃᆞ리로 경 헌 거주게. 경 허연 허난 이젠 내부렷지. 그냥 장난기로 경 허연. 그 사름은 허염상말암상 허연(심드렁하게), 집에 오랑 누웡 자당 보난(자다 보니) 원, 들으난 무신 소리가 들칵들칵. 중이(쥐)가 댕겸신가 (다니고 있는가) 경허멍. 아, 이 뒷녁날(다음날)은 일어난 문을 욜젠 ᄒᆞ나네(열려고 하니) 문을 활짝 욜지 못허여. 이거 어떵헌 일이곤(어떻게 된 일인가). 욜앙 보난 엿날 풍선으로 육지 댕길 때에 배태ᄒᆞ민 그 욥전(엽전)으로 ᄒᆞᆫ 뽐(한 뼘)으로 뽑으민 백잎 ᄒᆞᆫ 냥이랜 해서. 백 냥 ᄒᆞᆫ 죽이민 이젯말로 이십 원 백 냥.

경 허영 허는 때에 그 바당에 배태허영이네 쏟아분 엽전을 끄서단 데며 노난 부재가 뒐 거 아니라게. 부재가 뒈연 살암시난, 친귀(친구)가 느(너, 2인칭) 잘 살아지건 날 살려주곡, 나 잘 살아지건 늘 살려주곡 경혈 만헌 친귀가 시언.

친귀가 오란 어떵ᄒᆞ난 이영 잘 살아졈신. 'ᄉᆞ실(사실)이 이만저만허영 술 아니 먹은 걸 먹은 체허영 댕기단 보난 생불도채빌 답드리허연. 이에 이성거리 돈 물어 주켄 헌 거 아니. 엽전 바당이서 그 ᄉᆞ문 푼 거 허연 설러다 노앙 부재가 뒈ᄀᆞ랜' 허난 아 ᄋᆞᆫ 사름은 나도 영 허영 부재 뒈젠. 술 아니 먹어도 먹은 체허영 댕기단 보난 그 도채빌 들련ᄀᆞ라 심어놘 답ᄃᆞ리허난, '느애비적에 돈 멧천냥 비쭈아 주난 느애비 뒤어져 부리난 고맙덴 말 ᄒᆞᆫ 마디 안 허연. 요놈 답ᄃᆞ리허켄' 허난, '그자 살려주민 이에 이성거리까지 물쿠덴' 허연 내부난 이 사름은 친귀 말 들언 돌각돌각 설렁 오카부덴 귀 기울엿거든.

경 허연 돌각돌각 해 가난 이젠 부재가 뒈엇젠. 문 제우 욜앙 보난 엿날 배태허연 물에 죽은 영장 건져다네 문에 노아부나네 그 영장 치우젠 ᄒᆞ난, 그 사름은 부재랑 마랑 그걸 치우젠 ᄒᆞ난 복삭 망ᄒᆞ엿젠 허여.

(1983. 8. 17., 애월읍 곽지리, 강인난, 여·83.)

8. 과거합격기

숙종대왕이 밤엔 빙빙 변복허영 순찰을 잘 허엿댄 허여.

제주 사름이 과거 보레 12번 가신디, 다 낙방을 해서. 12번째 갈 땐 결심하길 이번 낙방ᄒᆞ민 죽어부리지, 다시 돌아올 수 엇다. 무산고ᄒᆞ민(왜냐하면) 부모 처자 멕영(먹여) 살릴 도리가 어시니까(없으니) 돌아가 봣자라. 12번째 역시 낙방해 부런. 주맹이(주머니) 털어 보난, 돈 몃 돈이 잇거든.

〔조사자 : 몃 돈마씸?〕

응. 그땐 한 돈, 두 돈, 한 푼 두 푼 헐 때 주게.

막걸리 쳐 사먹엉 막 취해 부런. 취해지난 질래(路)에 손발 벌령 누웡 어떤 구루마가 지나던지 지나민, 죽젠 ᄒᆞ는 거라.

영 자빠진 걸 숙종대왕이 당헌 거라.

일리난 죽을 사름이곡, 술도 취해졋곡, 해지난 일어나젠도 안 허여. 요라 번(여러 번) 일령 사연을 들으난,

"죽을 각오로 여기 누웡 이시난, 당신 나신디 묻지 말라."

ᄒᆞ난 숙종대왕이 ᄒᆞᆫ 번 ᄀᆞᆯ아 보라(말해 보라) ᄒᆞ난 사실을 ᄀᆞᆯ앗거든.

"12번째 과거에 낙방했고, 이젠 돌아가 봣자, 부모 처자 멕영 살릴 재간이 어시난, 막잡앙 누웡 이신 사름신디, 당신 무신 걸 묻느냐."

ᄒᆞ니 숙종대왕이 이 사름을 살리젠,

"나도 그런 사름이다. 이번째도 낙방했다. 들으난 또 ᄒᆞᆫ 번 과거가 잇댄 해라."

(과거는 숙종대왕이 내민(내면) 잇곡, 안 내민 어신 거니까)

"그추록 헐 리가 어신디(그럴 리가 없는데)……."

"나 역시 경 허난 죽을 것이라도, 내일 과걸랑 봉(봐서) 죽자. 절대 ᄀᆞᆯ아불지 말라. 과제도 알암져. 과제가 나오는디, 푼 채에 매연(鳶)재(字)를 썽(써서) 육안으론 분석 못 허게 둘룬다더라. 경 헌 뒤에 무신 글잰지 알아지는 사름은 왕 ᄀᆞᆯ으라 허믄 알곡 모르곡 매연재랜 ᄒᆞ민 됀다드라. 우리 과거나 봉 죽자."

뒨날 아춤 자당 깨나 보난 '과거다' 허영 강 보난 아닌게 아니라 높은 디서 빙빙 돌리멍 '무신(무슨) 글잰지 알아지는 사름은 왕(와서) ᄀᆞᆯ으라,' ᄒᆞ거

든, 하도 잘 훈들러 부난 뭔 놈이 글잰지 몰르거든. 경 허영 강 보는디, 이 사름은 잘못 ᄀᆞᆯ아부런. 매연이랜 ᄀᆞᆯ건디, 빙빙연(鳶)재랜 ᄀᆞᆯ아부런 〔조사자 : 웃음〕 잊어불지 말잰, 매가 빙빙 돈댄 생각허당, 빙빙연이랜 ᄀᆞ란 낙방해 부런.

그때 시골 선비가 두루막 클러 재치곡 뚬(땀) 촐촐 흘리멍(흘리며) 감서.

"당신, 어디 가느냐?"

"말 말라. 일 분이 중헌 사름이다. 과거보레 간다."

"난, 매연(鳶)재랜 ᄀᆞᆯ건디, 빙빙연(鳶)재랜 ᄀᆞ라 부난 낙방 해신디, 당신은 강 매연(鳶)재랜 ᄀᆞᆯ앙, 당신이나 벼슬 허영 잘 살아보라."

ᄒᆞ거든.

그 선비는 무신 소린고 ᄒᆞ멍 강 보난 아닌게 아니라, 그러고 잇거돈.

"이걸 서울말로 ᄀᆞ릅니까? 시골말로 ᄀᆞ릅니까?"

ᄒᆞ니

"서울말론 뭔 재랜 ᄒᆞ곡, 시골말론 뭔 재랜 ᄒᆞ느냐?"

"서울말론 매연재랜 ᄒᆞ고, 시골말로는 빙빙연(鳶)재랜도 ᄀᆞᆯ읍니다."

아, 이렇게 ᄒᆞ난 숙종대왕이 빙빙연(鳶)재랜 헌 사름을 살리젠 과거를 내신디, 빙빙연(鳶)재랜 ᄀᆞ른 사름을 안 춧을 수 어신 거라. 경허연 둘이 다 ᄀᆞ찌 동방급제로 허엿댄 허는 이야기주.

(1983. 8. 18., 애월읍 곽지리, 장 권아, 남· 75.)

9. 당오백 절오백

송목사 적에 송목사가 왕(와서) 보난(보니까), 제주도에서는 농민이 무신 성의를 가졍 당오백 절오백을 모시고 이섯거든. 사름(사람)들이 신에 미쳥(미쳐서), 절에 참여ᄒᆞ곡, 당[1]을 주장ᄒᆞ당 보난, 농사에는 게을러 부럿거든. 사는 정도가 약해 부럿거든. 교(종교)랜 ᄒᆞ민(하면), 교를 주장ᄒᆞ곡 허영, 식

1) 당 : 제주도 특유의 무속 신앙으로 영혼은 모셔 놓는다고 함.
할망당, 할으방당이 있음.

량이 부족핸. 사름이 60세, 70세 이상이 나서 죽거나 정신을 못 출리민(차리면), 도두리[2](地名)랜 허는 곳 위에 당을 모셩, 아버지, 어머니를 당에 두민, 아버지, 어머니는 신선이 뒈영 올라간댄 생각허연. 봉행(잘 싸서) 두민(두면) 메칠(며칠)이 지낭(지나서) 보민(보면), 어서지민(없어지면) 신선이 뒈엿덴 생각핸거든.

목사가 왕(와서) 보나네(보니까는), 제주도가 살 만흔디(살 만한데), 아주 어두와(어두워) 부렷거든. 이거 안 뒈켄 허연 목사 밑에 이신 이방신디(에게) 말ᄒᆞ길,

"지금, 아주 놀랜(날랜) 사름이 엇느냐?"

'아무가 용기잇다.' ᄒᆞ니, '불러내라' 허연.

불러내난 목사가 말ᄒᆞ기를,

"용기가 잇다 ᄒᆞ니, 내 말을 좀 들어라."

ᄒᆞ니까,

용기가 이신(있는) 사름은 안 들을 수 엇거든.

하루는 떠가 삭앙(삭아서) 밤중이 들민(되면), 동쪽으로 불이 훤하게 비쳐. '어떤 불이냐, 웬 불이냐' ᄒᆞ니까, 이방들이, 목사가 오민(오면) 죽으니까, 목사가 오민 죽고 죽엉, 사흘도 넘기지 못허영(못해서) 죽은 것이 6번째 죽곡 허연, 일곱번째라. 경 허연 이방들이 끄네끼(새끼줄)를 쳤던 모양이라.

"말ᄒᆞ기가 거북합니다. 여차여차 허영, 목사님이 돌아 가십니다."

"그러냐고, 경허민 장막 아홉 불을 가져오라."

ᄒᆞ니까, 영(이유)도 모르곡 거두이 들엿거든.

그러니까,

"땅파는 기구를 가져오라." ᄒᆞ니까 가져오니까, 광대 몃(몇)을 데리곡 허영 "불이 비추는 데로 가자." ᄒᆞ난,불이 비추니까 "장막을 아홉 불 치라."고 동굴을 파는디, 얼마 어시민(없으면) 문득 당을 치라고 ᄒᆞ난, 5불은 터추고(터뜨리고) 4불은 터추지 못허연. 좋은 상선가, 나쁜 상선가 몰라도 나쁜 상서로 봐서.

---

2) 도두리 : 지명.

송목사가 그 짓을 헌 버금에(다음에) 절로 가자, "절오백을 치라."ᄒᆞ고 절오백 당오백을 다 쳣댄.

또 서쪽으로 가자, 거기 강 보난 미신을 지키멍(지키면서) 시난(있으니까), "장막을 높이 달라."허영, 장막을 쳥(쳐서) 높이 걸곡(걸고), 무당을 불렁(불러서) "굿을 쳥 영(靈)이 잇댄 ᄒᆞ민 내 눈앞에 보이라."고 허연. 굿을 쳐 가난 뱀들이 장막 위에 몃 천 마리 올라간 메칠 뒤에 뱀들이 장막 위에서 ᄆᆞᆯ랑(말라서) 죽어부런. 심방(무당)들이 말이 안 나오거든.

말이 안 나오난, 목사신디 ᄉᆞ정(사정)을 ᄒᆞ는디, "우리는 조금 불편헌 분에게 말미(여유)를 가지고 구명[3]을 ᄒᆞ는디 말미가 안 나오난 살려 주십시요."허난, 거기 ᄒᆞ난(하나는) 해치지 못햇댄.

송목사가 떡 들어왕 안자신디(앉았는데), 명령을 내리길, (봉분이랜 ᄒᆞ민 임재(임자)어신(없는) 총이라.)

"총 수레(수리)를 하라." ᄒᆞ는 명령을 내련. 경 허난 부인네가 강(가서) 총을 수레햇거든. 목사가 일을 다 ᄆᆞ치곡(마치고) 허영 안자신디 밤중에 구척장군이 오라서(와서) 인사를 딱 해.

목사가 놀래서 말ᄒᆞ기를,

"군은 누구냐?" ᄒᆞ니까,

"고려적의 남장군입니다."

"어째서 왓소?" ᄒᆞ니,

"나는 생신[4]이 아니고 나는 영(혼령)입니다."

"어째서 왓소?"

송목사도 운이 닥치난 무ᄉᆞ왕(무서워) 허지 안허는 거라.

"아무 목의 총이 내 무덤입니다. 이번 목사님이 오라서 깨끗이 소재(청소)해 주난, 은혜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라 ᄒᆞ는디, 은혜라고 볼 수 이시냐. 치민치하[5] ᄒᆞ는 것이 내 임무인디, 은혜랄 게 뭐 이시냐(있느냐)?"

---

3) 목숨을 구함.

4) 생신 : 살아있는 사람이란 뜻.

5) 치민치하 :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

"그렇지 않읍니다. 내일 오시 미시가 되민(되면) 목사님이 욕을 당ᄒᆞ게[6] 뎃읍니다. 배를 준비해서 가잰 ᄒᆞ민(가려고 하면) 폭풍이 일어낭(일어나) 가질 못헐 것입니다. 그때 도끼를 준비햇당 돗(돛)을 잘랑(잘라) 노으민(놓으면) 갈 수 잇을 것입니다. 경헌디(그런데), 뭍에까지 가는디 뒤를 돌앙 보지(돌아보지) 마십시요. 돌앙 보민 안 뎁니다."

ᄒᆞ고 예를 ᄆᆞ치고(마치고) 돌아가거든. 송목사가 보난 이상ᄒᆞ거든. 이방신디 이 말을 ᄒᆞ난, 그때 도끼를 준비행 배를 독촉해신디(했는데) 폭풍우가 일어낭 배가 갈 수가 어선 돗을 끊으잰 허여도 끊을 수가 어선. 도끼로 치라 허연 쳐신디, 돗이 쫄라젼(짤라졌어).

그때 제주도를 향허연(향해서) 뒤를 영(이렇게) 돌아봐부런. 그때 점 석 점이 딱 딱 딱 박아젼. 그 점은 아들 세 명의 죽음이라. 다른 것이 아니라 당오백 절오백 귀신의 복수엿주. 원수를 갚은 거라.

(1983. 8. 18., 애월읍 곽지리, 양 원이, 남·73.)

10. 업보받은 이야기

엿날에 ᄒᆞᆫ(한) 사름(사람)이 세상도 좋곡(좋고) 살림이 좋아도 애기가 어선(없어). 애기가 어시난(없으니) 후실을 장만ᄒᆞ연 애기를 난(낳았어).

〔조사자 : 족은 각실 ᄒᆞ연마씸?[1]〕

응.

아길 큰 어멍ᄀᆞ라 돌랜 해 둬네[2] 어디 가 부렷거든(가 버렸거든). 어디 가 부난(가 버리니), 애길 흔들당 생각을 해 보니 예펜(부인)이 부애(화)가 나기를 네가 이팔 청춘 소년에 ᄒᆞ재년[3] 해다 봉(해다 놔서) 이 애기를 낳곡 살랜. 이 단장(살림)을 어떵(어떻게) 허여(하나) 허연(해서), 아길 둘러매영 큰 지

---

6) 욕을 당ᄒᆞ게 : 욕을 당하게.

1) 후처를 맞아 들였읍니까 라는 뜻.

2) 큰 어머니한테 봐 달라고 한 후에.

3) 여우같은 여자를 말함.

방(문턱)더레 딱 내부쩐(내던져서) 애길 죽여 부렀거든. 죽여 부니 그 남편 ᄒᆞ곡 씨앗(후처)은 오랑(와서) 보니 이거 놈이 헌(한) 짓이민 심언(심문)을 헌다. 홀 수가 엇거든. 경 허연 그 애길 파묻어 두곡 허영 사는디, 그 애길 내부찐 사름이 얼마 어선(없어서) 죽어.

그 사름이 죽으난 어디 부자집이 재상가에 집으로 간 사름으로 허연(해서) 나오란(태어났어). 어린 때 그런 부자집에 시집을 가고. 부자집에 시집을 간(가서) 애기를 낳는 게 그자(그냥) ᄒᆞᆫ 술 모지(한 살 차이)로 애길 둘 낳고 세째 배고 씨아방(시아버지) 축고 씨어멍(시어머니) 죽고 그 사름 그 운명으로 이, 씨아방 죽고 씨어멍 죽고 남편 죽곡 영 허여(이렇게 해) 가니, 그 예펜이 오히려 원 지(자기) ᄒᆞᆫ자 살아 볼 뭣이(능력) 엇거든.

에, 이제랑(이제는) 어멍 집이나 강 보젠(가서 보려고) 어멍 집더레 애길 업곡 안고 배고 경허연(그렇게) 가당(가다가) 보난 비가 오란(와서) 내(川)가 터젼. 내가 터젼 내를 넘길 수(넘을 수)가 어선(없어). 이 낼 넘젠(넘으려고) ᄒᆞ민 날이 저무를 거라 ᄒᆞ니, 이젠 욕은 애긴[4] 곳(邊)디(물가에) 놔두언. 애길 조끄뗄(옆에) 엎어다 두엉 낼(내를) 넘경(넘어서) 이 욕은 거 오랑(와서) 업어가젠. 낼 ᄒᆞᆫ 발(한 발) 넘단(넘는데), 아이고 호재(호랑이)나 오라시카(왔을까) 바래어보난(바라보니) 곳디(물가) 애긴 불써(벌써) 호재 물엉 돋주(달아나 버렸어) 이.

물어 돋는디(달아나는데),

아이고 어찌허랴 허난(하니까) 업은 애기도 오꼿(그만) 넘어난(넘어져서) 내에 끄서(휩쓸려) 불고. 내에 끄서 부난(휩쓸리니) 이젠 곳디(물가에) 오난 죽어지진 아니ᄒᆞ곡, 애기가 어디 그 바당더레(바다에) 끄선(휩쓸려서) 물샐(물살)속에 올라시카부덴(떠올랐을까 하여). 요 정지내[5], 요디(여기) 금성(地名) 정지내에 밖에 뽀디어(가까와). 아마 엿날 그런 디란고라(곳이었던 모양이라) 곳디 뎅겸시난(다니고 있는데) 아는 사름을 들련(만나서).

"느(너) 무사(왜) 이디(여기) 오랑(와서) 헐 처래고?[6]"

---

4) 조금 자란 어린 아이, 즉 큰 아이를 말함.

5) 정지내 : 금성에 있는 내(川) 이름.

6) '이러느냐'의 뜻. 무슨 까닭이 있는 것이냐?

ᄒᆞ난, ᄉᆞ실(사실)이 이만이만 허연이네(해서) 어멍네 집더레 가단(가다가) 욕은 애긴 호쟤 물어가곡 업은 애긴 내에…. 아이고 어찌하랴 허연 돌아사난(돌아서니) 오꼿허게(그만) 물더레(물에) 넘어나난(빠지니) 어디 올란 시카 부덴 댕겸수다.[7]" 허난,

"야! 느네(너네) 어멍집에 어저께 불난 전부 타 부런. 원 어멍 아방네 목숨만 살아나난, 어멍집에 갈 뭣이(이유가) 엇다(없다). 가지 말라."

허난,원 이 사름은 헐(할) 틈이(나위가) 어시난(없으니) 이젠 심중 산중을 넘어사 집에 오게 되곤 고라(되었던 것이라).

산중을 넘단 산도둑놈을 들련(만나) 도둑놈 집에 가다봤주 이(가둬봤어). 이 놈은 도둑질허래 댕기당(다니다가) 도둑질을 허민게(하면은) 밤중 야심녁(깊은밤)만 뒐 거 아니라.

가마(큰 솥)에 물을 뀌왐시랜(끓이라고) 허영이네(하고는) 도둑질허영 오랑 이제 물 데왐시민(데우고 있으면) 그 목욕ᄒᆞ곡, 경 ᄒᆞ곡 아긴 배여봤지. ᄒᆞᆫ 번은 나가멍 물을 뀌왐시라(끓이라) ᄒᆞ나네(하니까) 물을 뀌왐신디(끓이는데) 그 날 ᄌᆞ냑(저녁)은 어디간 도둑질을 못 허연 들어왓주. 들어왕 보난 그 서방은 경 허연 나가 불지(버리지) 애기는 놔 낳지. 애긴 노앙(낳아서) 이시난(있으니까) 이젠 오란, 그 놈은 도둑질도 못 허연 오랑 보난 애긴 나시난(낳아있으니) 눈이 뒈싸젼.[8] 그 곧난(갓난) 애길 가마에 뀌는(끓는) 물더레 드리치랜(넣으라고) 허난. 드리치라(넣어라) 드리치라 경 허연. 잘락허게 거러미난[9] 그 애기 안은 애기어멍은 쓰러지난, 이젠 애긴 그 가마물더레 빠진 모냥이라.

이젠 건져놘 칼허여 노콕 썰언 그 예펜ᄀᆞ라(부인한테) 먹으랜. 그걸 먹으랜 허난 먹을 수가 이서게(있겠느냐?). 엎치락뒤치락 허염시난(하고 있는데) 왈락 포위허연(포위해서) 그 도둑질 허래 간(갔는데) 도둑질을 못 허연 남겨두난 도둑놈 조름(뒤를)에 촞안이(찾아서) 산중에 그 도둑놈 사는 디를 간(가서) 포위핸 봣거든. 포위허연 탁 들어간 그 놈을 탁 심언(잡아) 결박ᄒᆞ거든. 결

---

7) 떠올랐을까 하여 헤매고 있다.
8)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래짐.
9) 탁 떠미는 모양으로, 넘어짐.

박허연 먹으라먹으라 허멍 확 허게 입더레(입에) 그 애길 죽여 놘. 경 허는 참에 왈락허게 달려드난 그 예펜ᄀᆞ라 너도 포징(포박) 받으랜 허난, 수실이 (사실이) 이만저만 해수다(했읍니다) ᄀᆞ르난(말하니까) 이젠 나가랜. 이젠 나가랜 허난 그 애긴 곧 난(곧 낳은) 그 모냥ᄒᆞ곡(모양하고) 그거 먹고 나오란. 그자 그 밤중에 죽엄신디 살아점신디[10] 허영 가당 보난(가다가 보니까) 산중에 불이 배롱[11] 허연.

들어간 말도 못 ᄒᆞ곡, 문을 두드리난 산중에 절(寺)이라. 문을 율안(열어) 보난 사름이 죽을 지경이난, 그 절간에 들여 놘 이제 잘 허영 멕이곡(먹이고) 허연 살려놘,

"어떵 허연 이것고?" 허난 그 살아온 역사를 멧 살(몇 살)에 시집가곡 애기 죽곡 다 엿말(옛말)을 ᄀᆞᆯ으난(말하니까), 들엉(들어서) 보난 이 그 전재(전생)에서 그 씨앗(후처) 난 애기를 죽인 죄로 멧 살에 시집가곡 멧 살에 애기 멧(몇) 낳곡, 씨아방, 씨어멍, 남편 죽엉 홀어멍(홀어미) 들곡(되고), 내에 끗곡(휩쓸리고) 애기 호재 물어 가곡, 이제 산도둑을 들렁이네(만나서) 그 고통 허랜(받으라고) 헌 걸 그 전재에 애기 죽인 죄로 경(그렇게) 허엿젠(했다는 거라). 전재를 들연(만나) 경(그렇게) 허엿젠 헌(했다는) 엿말을 들어 나서.

(1983. 8. 20., 애월읍 곽지리, 장인휴, 여·84.)

11. 고양이와 개

엿날 사름이 편안허게 살안 편안허게 사는디, 친귀(친구)가 느(너) 잘 살아지건(잘 살면) 날 살리곡 나 잘 살아지건 늘 살리곡 약조헌(약속한) 친귀가 이신디(있는데).

이 사름이 댕기당(다니다가) 부자가 뒈젠 허난 이 어디 강(어디 가서) 야광질(야광구슬을) 봉간(주웠어). 이놈이 야광신이 그자 쏠(쌀) ᄒᆞ쏠(조금) 봉(놔서) 쏠항(쌀독)에 놔 두어도 쏠이 ᄀᆞ득(가득), 무신 돈을 노앙 놔 두어도 돈이 ᄀᆞ득 허연. 급시에(갑자기) 부재(부자)가 뒈거든. 부재가 뒈언 살암시난

10) 죽을지 살지 영문을 몰라 함.
11) 불이 비치는 것이 보임.

(살고 있는데) 친귄 밖에 간 살았지. 밖에 강(가서) 살당(살다가) **오랑 보** 난 이, 친귄 난디어시(까닭없이) 급허게 부재가 뒈엇거든. 어떵허난 **부자질을** 허연딘(했냐고) ᄒᆞ나네(하니까), 야광질 봉간(주워), 부자질을 **허노랜** (했다고) 허난, 야광질 빌리민 집에 강 부자질을 허건(하면) **갖다다** (가져다) 주켄. 요 사름(이사람)은 고정들언(곧이들어) 야광지를 주엇거든. 밖에 간 친귀를 빌려 주난 야광질 아졍 갓지(가져갔지). 야광지가 어선(없어) 주어 버리난(주어 버리니까) 친귄게(친구는) 부재로 잘 살아지난 원 돌려 주젠 안 허곡, 노력은 안 허곡 허연 먹던ᄀᆞ라. 집엔 쏠 떨어져 가거든. 쏠 떨어져 가니 개가 중쉥(짐승) 중에 명물 고냉이(고양이)가 원 힐 중(헤엄칠 줄) 알암시민(알았으면) 밖에 강이네(가서) 야광지를 촞아(찾아) 오주마는(오겠지만) 힐 줄을 몰라부난 못 가켄. 고냉이ᄀᆞ라(한테) 날 업어글라(업어가라), 업어가민 야광질 촞아그네(찾아서) 늘(너를) 주건(주면) 오랑이네(와서) 한집(큰집, 집임자)안티(한테) 칭찬을 듣겐.

이젠 고냉이가 갤 업어 보젠(업어 보려고) 육질 갓다 허여. 업언 그때 고개에 그 굴무멍(굶으면서) 실리멍 업어간 부런 가난, 밖에 성담에 개ᄀᆞ라(개한테) 이디(여기) 살암시랜(살고 있으라고 하고), 살암시민(살고 있으면) 고냉이가 강이네(가서) 야광질 촞아 오켄. 경 허연 갠 성담에 앚져두언(앉혀두고) 고냉이가 갓지. 들어가당(들어가다) 보나네(보니까) 중이(쥐)가 봐지거든(보이거든). 중이를 앞발로 폭(꽉) 심언(잡았지). 중이는 물어 먹카부덴 ᄆᆞᄉᆞ울 거(무서울 거) 아니라. 물어 먹지 안허켄. 나 말만 잘 들으민 살려주마. 이 집에 야광진 어디 놓아시닌. 고팡(광)에 함 소곱에(함 속에) 노앙(놓아) 싯젠(있다고) ᄒᆞ난, 함 속에 강(가서) 글경이네(긁어서) 야광질 물어 오민 느넬(너희들) 살려 주켄.경 허난 함 속에 글경이네 야광질 끄성(끌어서) 물엉 나오젠(나오려고) ᄒᆞ난, 들그락허난 이놈이 중이 야광질 물어 감지, 오꼿(그만) 앗아(빼앗아) 간 궤 소곱드레 강 곱져부러(감추어 버렸어).

이젠 중이가 고냉이ᄀᆞ라 오란, 막 물엉 나오단 돌그락ᄒᆞ난에 오꼿 빼어단(빼앗아서) 궤 소곱더레 강 곱져랜(감추었다고) 경 허난(그러니까), 이제랑(이제는) 궤 모살(모서리)에 강(가서) 것덜(그것들) 자 불건(자 버리면) 물어 내랜.

궤 모살에 강 돌그락허게 끄성(끌고) 나오라 가난(가니까) 요놈이 중인(쥐

는) 야광지 물어 감지(물어가지). 오꼿허게 빼어단에(빼어서),

〔조사자 : 누구가마씸 ?〕

주인이.

구둘(방)이 벡장 위에(벽장 위에) 논 거 경 허연 나오라 가난 빼어단 엿날에 상투짜난 이, 베틀다리 소곱드레(속에다가) 강 곱져(감추어) 부런. 곱져(감춰) 부난(버리니까) 오란 경 곱져랜(그렇게 감추어라고) ᄒᆞ난 고냉이가 창고망(창구멍) 뚤랑(뚫어) 기여들엉, 머리 그창(끊어) 솔짝허게 허영 물엉 나오랜. 아니 창고망 뚤란 들어간 쥉이 돌그락이 물엉 나오젠 허난,돌그락허난 요놈이 생이 중인 야광지 물어 감지 오꼿 빼영이네 엿날 한복 입엉 이제도 한복 입는 사름이 옷깃 돌앙(달아) 곰(고름) 아니 매여. 이 옷깃 소곱드레 강 곱져 부런. 옷깃 소곱에 곱져랜 허난, 그자 누엉(누워) 자거드네 옷깃을 그치랜(끊으라고). 그창(끊어서) 물어오랜.

좁(잠) 폭(푹) 들어 부나네 옷깃 끄찬 물어오는 건 몰란. 이젠 물어단 고냉일 주난, 고냉인 물어가곡 중인 살려줫지. 야광진 보배난 야광질 물민 생ᄌᆞ냑(저녁)을 시장을 안 헌댄 허는 거라. 고냉인 야광질 물어노난, 그디 강게(거기 가서) 무시거(무엇이나) 도둑질 행 먹음도 ᄒᆞ곡, 고냉인 영양이시 먹엇주.

갠 고정헌 개라(개는 곧이 믿어 의심하지 않음) 울담 밑에 영(그냥) 울러시(우두커니) 맨날 안장(앉아서) 고냉이 올 디만(올 때만) 기다리난 고냉이가 야광질 물언 스스로 오거든. 오란 걸 주거든. 갤 주언 무난, 개가 원체 시장허여 노난게, 고냉이도 질(자기를) 업엉 오젠 허민 개도 돈돈해사(든든해야) 업어 올 거 아니라. 허난 이젠 바당 물더렌 히젠(헤엄치려고 하면)은 ᄒᆞ난 고냉이가 허는 말이, 느 날 업엉 가젠 허민 멀리 가당이네 물더레 바까부러질티(빠트려 질지) 야광질 날 주민 물엉 족곤 디(가까운 데) 가민 늘(널) 주켄 허난, 갠 고정허게 고냉일 도로 주엇주 이. 주난 업엉 오멍(오면서) 그자 야광질 물언디야(물었느냐)? 응. 야광질 물언디야? 응. 고냉인 경 허연 물곳디(물가에) 올랏주. 물곳디 오난 이디서(여기서) 저만인 허난 왈락 치돌안(치달려서) 돌담들에 왈락 치돌안 담고망(담구멍)드레 오꼿 기여들언. 고냉이가 그 물엉 오랑 한집안티(한테) 지가(자기가) 착허댄 헌 말 듣젠.

아~흥 아~흥 호령이난, 갠 그 고망에 기여들지 못ᄒᆞ곡, 영(그냥) 아장

(앉아) 수ᄆᆞᆺ 죽게 시장은 ᄒᆞ곡 영 배래곡(보고) 그것도 못 갖게 데영. 그 한 바당에 히영(헤엄쳐) 업엉 오젠 허난 오죽 밴 힘들어사 영 배래곡 허는디 고냉인 호랭이 물어 노난. 아~흥 아~흥 호령만 허거든. 갠 어이침이 없고(어이가 없고) 이젠 집이 들어온 후젠(후엔) 주인은 개 고냉인 잃어 부런. 이것덜 우리 못살아 가난 개 고냉인 도망가 분(버린) 생이여(모양이다). 내 쏠 당 보난 야광질 ᄎᆞᆺ이레(찾으러) 가분 걸.

개가 들어 오란 상짓물 방석에 오란 개가 탁 누언.

〔조사자 : 상잿물마씸?〕

응. 상짓물.

개를 상짓물 방석에 안쩡 이,어떤 손님이 나오라도 그 상재 모른 예펜은 웃사름신디레(한테) 상을 모녀(먼저) 들려놔도 상짓 집안에 난 사름은 개주. 안터레 상을 모녀 들어 놓는 거라.

〔조사자 : 예〕

상짓물 방석에 오란 가만이 누워 시난 고냉이가 야광질 물엉 들어와 가거든. 그자 마리(마루) 안터레(안으로) 확 들려들언 기여라. 목드레(목을) 딱 물엉 자쳔(물어재껴) 고냉이를 죽이더라 허는 거라. 그게 원수라 허는 거라. 개 고냉이 원수가 야광지 때문에… 그 놈이 고냉이가 벨(별) 놈이 짐승. 고냉인 오래 질놔도(길러도) 이익이 업곡 고냉인 거실루민(건드리면) 침입헌덴 허는 거라. 그 고냉이가 물엉 오랑 갤 주어시민 이,지도 살곡 개도 살곡 경 ᄒᆞ엿주만은 그 고냉일 죽여 불드라 허는 거라. 경 허난 그 개, 고양이 원수가 그 어느 멧 천 만 년 전의 원수가 이제도 원수라 ᄒᆞ는 거라.

(1983. 8. 19., 애월읍 곽지리, 장인휴, 여·84.)

12. 자 청 비

자청비엔 헌 사름은 옛날 부모네가 대감네 뚤인디, 아이가 어선(없어) 수국[1]

1) 정성을 드리는 것.

을 드려서. 수국 들인 아이가 복을 얻낸 헌다. 수국 들연 뚤 ᄒᆞ나 나난, 열 다섯 나두룩(나도록) 시집도 못 가고 막 허난, 장남이 싯꼬(있고) 허난, 장남ᄀᆞ라(에게) 구경을 시켜도랜 허난, 이젠 구경을 간. 궁 안에서 ᄒᆞᆫ 번은 출련(차려입고) 이젠 곱게 출련 나갓주.[2] 이젠 나간, 서답(빨래)을 허레 간 보난 서답을 이것도 천덕이(이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열녀 이름) 모냥으로(같이) 서답 햄시난(하고 있으니), 어떤 그 하늘 옥황 그 공부 가는 문도령이 가단 보난, 고운 사름이 서답을 햄서.[3]

〔조사자 : 문도령이 뭐꽈?〕

문도령? 성은 문가고, 도령은 이제 말허민 혹생이옌 헌다.

아, 요 처녀ᄀᆞ라(에게) 내가 말을 ᄀᆞᆯ앙(해서) 가주긴 간,[4] 이젠 물을 ᄒᆞᆫ 그릇 도랜(달라고) 허난, 이젠 물은 ᄒᆞᆫ 그릇 떠낸 그디 버드낭 이시난, 버드낭 잎을 확 훌턴 이젠 물 위레 티완 주엇주기.[5]

"아, 그 애기 고으문 곱다마는 속광 겉이 다르다."

영 ᄒᆞ난, 자청비 ᄀᆞᆫ는(말하는) 말이,

"신을 신은 건 보난, 먼 길 가는 거(가는 것) 닮앙(같아서) 물을 촌촌이 먹으라고 허영 버드낭 잎을 띄워 주난 그것도 대 숭이로구나, 숭이로구나." 허난,

"어딜 가는 길이우꽈?[6]" 허난,

"난 하늘 옥황 공부 가노라." 허난, 아, 이젠 이 처녀가,

"우리 오라방 하늘 옥황 글 공부 가젠 해도 분시 어선(철이 없어) 못 감수다(갑니다). 이디 ᄒᆞ꼼 셔시민[7] 우리 오라방 데령 오쿠다(오겠읍니다)." 허연, 서답허연 앞더레 뒤터레 몬딱 데껴 두고(던져 두고) 나산 후젠(나선 후에),

"저 난 하늘 옥황 글 공불 가쿠다(가겠읍니다)."

"아고, 지집년(여자)도 남도 남젠(생각하고 생각했다)· 어디 갈테고?"

---

2) 나갔다.
3) 하고 있었다.
4) 가고 싶어서 간.
5) 띄워 주었다.
6) 길입니까?
7) 여기 잠깐 서 있으면.

"경 해도 어머님 아버님 죽으민 지방이나 써삽니께.[8]"

암만(아무리) 못 가게 해도 책 허연 두려 메고, 그딜 가서.

"고찌(같이) 오랏던 그 아가씨허고 이렇게 닮으냐?"

"우리 오라방광 난 꼭 흔 살 모지기(차이)라 노난, 골미(모양이) 닮아 똑 닮음네다." 허난 ᄃᆞ랑 갔지.[9] 하늘 옥황에 ᄃᆞ랑 가난, 문도령은 숫거라(순진해서) 좀좀허연. 경 허난 자청비가 ᄀᆞᆫ는 말이 우리 은동이에 물을 흔 동이에 이만큼 떠 둠서(두고), 물을 그레 떠 놔 둠서 이 무남지에 떨어지민 당신이 (거시기)[10] 글을 못 헐 거옌. 이 무남지예 떨어지지 말고 이걸 족보라고 해서. 진, 자청빈 그 문도령이랜 헌 사름이 이것만 떨어지민 글 못 허카부덴[11] ᄉᆞ나이로만 알앗주게. 알만 허난 선생이 암만해도 ᄉᆞ나일 닮지 안허연(않았다). 글도 허민 일등, 하간(모든) 재주도 일등, 그 자청비가, 예펜이(여자가) 해 가난, "니네(너희들) 씨름이나 해 보라(봐라)." 허난, 자청빈 간, 귀에 물지름을 딱 불라서(발랐다). 물지름을 딱 불른 후젠, 씨름을 허난 문도령은 지고, 자청빈 이겻지. 이젠 하 이거 씨름도 이기고 이거 안뒈켄, 선생이 암만 해도 미덥지 못허연, 니네 오줌이나 흔 번 비출 재끼라고, 누게가(누구가) 오줌을 하영(많이) 누느냐고,[12] 대왓디(대 밭에) 기여들엉(들어가서) 대통을 베언 고망 뚤란(구멍을 뚫어서) 대충 질런 예펜이 열 두 방촉을 내끼고(나가고), 문도령은 아홉 방촉을 내껴서.

〔조사자 : 하하〕

이젠 이것도 허난 지연, 하, 오줌도 지여 노니, 선생도 이젠 암만(아무리)봐도 예펜인디 골리지 못허켄 허난, 문도령은 서시방에 장갤 가랜 펀질 가서.[13] 펀질 가난,

"닐랑으네(너는) 더 공비 행 오라. 난 장개 가랜 헌 따문에,[14] 난 가야켜

---

8) 써야 할 것 아닙니까?
9) 데려서 갔다.
10) 말이 안 나올 때 하는 무의미한 단어이다.
11) 글을 못 할까 봐서.
12) 많이 싸느냐.
13) 장가를 가거라 편지가 왔다.
14) 한 이유로 인해서.

(가야 하겠다)."

그 ᄉᆞ나이가, 그 하늘 옥황 문도령이, 문씨 아들이 ᄀᆞᆯ안. 자청비 ᄀᆞᆫ는 말이 "오라 불민 지만 떨어지느냐.[15] 아이고 나도 어멍도 보곡, 아방도 보곡, 나도 ᄒᆞᆫ디 가켜(같이 가겠다)."

경 허영 ᄀᆞ찌 오랏지.

ᄀᆞ찌 오단 우리 이때두룩 ᄀᆞ찌 살당 우리 모욕이나 행 가겐, 경 허겐 허영[16] 아, 늘랑 오줌도 떨어져, 씨름도 떨어져, 글도 떨어져 ᄒᆞ니, 늘랑 알통(아래통)에 강 허곡, 난 웃통에 강 고무겟다.[17] 허난, 그 숫것이, 문도령이옌 헌 건, 웃콜콜(깨끗이) 벗언 알통에서 물랑물랑 몸을 ᄀᆞᆷ노랜 허난, 자청빈 버드낭 잎 허연 글을 쓰는디, "글 공부 연 삼년 해도 남녀구별 모르는 그 공비 설러 불라.[18]" 경 핸, 그 글씨 썬 딱 틔와 노니 그걸 보앙 이젠 그제사 옷 입음이 ᄒᆞᆫ 가달이 디밀아 가고[19] 와들랑와들랑 해연, 나오는 게 자청비네 올래에(문간에) 가시난, 총각 머릴 확 잡아 댕연 나중엔 아랫도리가 시려라(추워라) 허난,

"난 글 공비 가 오라수다.[20]" 허난, 어멍 아방은 옛날은 어떵 허느니.[21] 이젠 막 에펜을 공부시켜도 옛날은 양반네 집이 그 모냥으로 나상 댕기민(나서서 다니면) 써 먹지 못헌덴 '자청 나다 자청비, 가랭 나다 가랭비' 오꼿(그만) 일름을 탁 지으곡 넌 너 갈 디 가랜, 우리 아기 어서도 살켄(살겠다) 오꼿 나 몰아 부난, ᄒᆞᆯ 수 어시(할 수 없이) 머리를 가깐 절에 가젠. 머리를 그만 오꼿 가깐 절에 나사서. 머리를 가깐 어떤 주모 할망(할머니)집에 간 이젠 "멩지(명주) 줍서, 멩지 줍서." 허연 간 보난 비단을 짬서(짜고 있었다). 아이고 이거 어떤 사름곤? 하늘 옥황 문씨 도령 장개 가젠 허난 이젠 비단 짠, 나가 주인 곡석 남의 의견 허연 짠 허는디, 아고 이리 오지 말아, 이리 오지 말아 아

---

15) 돌아와 버리면 너만 떨어지느냐.
16) 그렇게 하마 하니.
17) 목욕을 하겠다.
18) 그만 두라.
19) 한쪽 다리를 바지에 꿰면서.
20) 갔다 왔읍니다.
21) 어떻게 하느냐.

고 첫 술래에 오랑 내령갑니까?[22] 내령 혼 줌만이라도 줍서(주세요). 느련(내려서) 가 부난(가 버리니) 올란, 타는 게 그 할망 짠 것보단 혼 술 더 놘(놓고) 짜서. 자청비가 재주가 원상(워낙) 좋앙, 열 대유섯에 궁안에서 공불 막 해 노난, 어이구 어떤 애기고 나 보난 이 비단을 짜랜 허난 더 햄져.[23] 자청비가 학의 샐 명지(명주)예 그령(그려서), 옛날은 장개 가켄 허민 그런 옷 입엇져게. 검은 거 우이(위에) 학의 새 그린 거. 이제도 이실 거라. 학의 새 확 그리멍 그 명질(명주) 그렇게 짜난 어이구 이거 날보다 더 허는 사름이 섯구나. 이거 어떵혼 일곤(일이냐), 나 지득 뚤 허영 나광 살젠.[24] 이젠 그 주모 할망신디(에게) 참지 차난 이젠 하늘 옥황에서 그 문씨 도령이 자청빌 찾아 보젠 댕기당(다니다가) 보난 그 집이 멩지 짜는디 지득 뚤 허연 들엇젠 허연, 명지 짬젠. 문씨 도령이 허는 말이,

"여기 지득 뚤이 오랑으네(와서) 명지 짬젠 핸게(하던데) 지득 뚤 어디 가수과?[25]" 허난,저기 방에서 명지 짬젠 허난, 가거들랑 문 율아 주주기(줄 거 아니냐) 거 보라, 옛날도 보래 보라(보라). 팔자가 궂젠(나쁘려고) 허난,가난, 인기척을 허난, "귀신이냐 생인(生人)이냐 나 방에 오지 말고 귀신이건 하늘 옥황더레 올리고, 생인이건 인기척을 허라." 허난,손가락에 춤(침) 볼란(발라서) 창고망더레[26] 손가락을 꼭끼 내밀어서. 문씨 도령이 자청비더레 바늘로 꼭 질르난 핏내(피냄새가) 나난 문씨 도령은 오꼿 가 부러서(가 버렸다).

그 사름은 하늘 사름이난 핏내 나난 하늘 우트로 가 부런, 문 율아 주주마는, 그거 죽일 것가?

이젠 주모 할망은 수배길(수제비) 헌 후젠(후에) 숟가락 둘 놓고 허연 가져 가서. 문씨 도령허고, 지득 뚤허고 멕이젠 숟가락 둘 놓고 허연 가져 가난

---

22) 첫 수저에 와서 내려갑니까?
23) 더 하고 있다.
24) 나와 함께 살자꾸나.
25) 어디에 갔읍니까?
26) 창호지 구멍 쪽으로.

"어머님 이거 어멩 허난[27] 숟가락을 둘 놉디가?[28]" 허난,

"여기 어떤 사름이 안 와서냐(왔더냐)? 문씨 도령이 안 와서냐?"

"원, 문씨 도령산디(인지) 누게산디, 인기척을 허건테, '귀신이건 하늘 옥황더레 오르곡, 생인이건 질(길) 알더레(아래에) 내리라' 허난,강 발후젠 헙디다.[29]"

"경 허난, 이멍(어머니) 아방이(아버지가) 늘(너를) 낭으네(낳아서) 자청나다 자청비, 가랭나다 가랭비랜 햇져(했다) 허멍 어서 기어 나라고,[30] 그 할망도 나몰아 가는 거라.

그 자청비가 이를 말가게. 자청비가 갈수록 갈수록 이젠 울멍 해 볼 내기 어시[31] 질레(길에) 가단 보난, 애기 둘이 '니(너) 죽으라 나 죽으라' 햄서. 하늘 옥황 문씨 도령이 거시기 이 물을 흔 동이 떠오민 아래녀귀(여자귀신) 자청비가 올라 온다 허니, 이 물도 어떵 행 떠 올림광,[32] 자청빈 어디 성(어디 있어) 우리가 갑네까. 그건 자청비가 그디 갓지. 걸랑(그것은) 걱정말게. 게민 날도 ᄀᆞ찌 올릴 컷가?[33] 허난 걸랑 걱정 맙서(마세요). 우리도 ᄀᆞ찌 올리쿠덴 멩지로 수레박을 맹글아서. 멩지 짜는 사름이난 멩지 허단 거(하고 있던 것) 요만씩 헌 거 냉겨땅으네(남겼다가) 맹글안[34] 수레박에 물 흔 동이 딱 떤 양손에 줴연 날 올려 도랜(달라) 허난 그 아이들광 하늘 옥황더레 올라갓지.

문씨 도령네 집더레 그 수레박에 물을 들러 가. 자청빈 이젠 그걸 봐서. 뭬려 보난 그 집더레 가는 거 닮안(같아서) 중으로 머리 가까 놓고 허난 중질을 햇지. 이젠 중으로 간,

---

27) 어떻게 해서.
28) 놓았읍니까?
29) 가서 밝히려(확인하려) 하고 있었다.
30) 빨리 나가라.
31) 하여 볼 노릇이 없이.
32) 어떻게 해서 떠 올리겠으며.
33) 그렇게 하면 나도 같이 올릴 것인가?
34) 꼬아서 만들었다.

"소승 배 절을 비오, 소승 배 절을 비오." 허난,곤쏠(흰쌀) 혼 말을 치르르 허게 놔. 이거 문씨 도령이 올리(올해) 액수가 나쁘댄 허난 권제 받으레 오난, 아래 찰린 그만 터추어 놘. 찰리(자루) 터춘 후젠 터춘 찰리에 쏠 혼 말을 노니까 맨딱(모두) 떨어져 부런(버렸다). 쏠 혼 방울을 떨어지민 이 문씨 도령이 나쁘난 문 안 주민 그 쏠 혼 말을 밤새낭(밤새도록) 몬딱 집어 노쿠댄,[35] 이젠 밤새낭 줍아 놔 가난 어두워가. 이 어둔디 어디가? 문간이나 빌립서 허난, 문간일(을) 빌련 문간이 빌리난 이젠 자청비가 이제 노랠 짓는디 문씨 도령은 그 첨, 사랑에 간 눕곡 헌디, 아 글 공비 연 삼 년 해도 이 남녀구별 모르는 이 문도령이구나 허난,아이고 어디 십서 허난,[36] 경 허연 이젠 아이구 이런 말이 어디 시넨(어디 있느냐). 이젠 돌려오란(달려와서) 첨, 문간에 누운 중을 언주어(급히 끌어안아) 가는 거라,그 자청빌. 이젠 글 공비 연 삼 년 해도 남녀구별 모르고 자청비도 모르곡 허는, 중도 모르는 그 글 설러불렌;[37] 글로 지어 냇지. 말로 안 허고 허난, 글로 탁 지어 내난, 그젠 나산 확 언주아 안앙 간 누원 허난, 뒷녁날은(다음날은) 종년이 밥도 어정(가지고) 가민 남기는 게 몬딱 먹어 불곡, 시숫물도 ᄋᆞ져 가민 팍팍대곡, 아 ᄋᆞ것도 이상허댄(이상하다고). 아 이젠 이걸 그 어멍ᄀᆞ라(어머니에게) 허는 말이,

"이상허우댄,[38] 도련님신디 가 보민 밥도 냉기는디(남기는데) 몬딱 먹어 불곡, 시숫물도 팍팍 햄수다.[39] 혼 번 여상 봅서.[40]" 허난,그 어멍이 여상 보난 몸은 하나이고 대갱이는(머리는) 둘이우다. 이젠 아들ᄀᆞ라 막 문출 허는 거라.

"이거 어떤 일곤(일이냐)?"

허난 ᄉᆞ실이 이만 저만 ᄒᆞ여수댄[41] 허난, "아이구 서시방이 장개 가라. 질

35) 모두 집어 놓겠읍니다.
36) 어디 있읍니까 하니.
37) 그만 두어라.
38) 이상합니다.
39) 하고 있읍니다.
40) 열어서 보십시오.
41) 하였읍니다.

카 가민 소탕허영[42] 내 집 망허젠 햄구나." 새각시 구해논디(구했는데) 이 새각시영 미쳐노난 얼마나 허크냐(하겠느냐)?"

"아, 이젠 헐 수 어수다."

허연, 이젠 각시ᄀᆞ라 강 ᄀᆞᆯ아서(말했다). 저 자청비ᄀᆞ라.

"어멍이 이만ᄒᆞ고 저만ᄒᆞ난 ᄒᆞᆯ 수 어수다."

"거문 경 허라.[43]" 강 어멍ᄀᆞ라 문답을 해 보라."

"묵은 장이 좋읍네까? 새 장이 좁네까?(좋읍니까) 사름도 새 사름이 좁네까? 묵은(오래된) 사름이 좁네까? 옷도 새 옷이 좁네까? 묵은 옷이 좁네까? 허영 새 옷이 좋댄 허건 서시방신디 장개 가곡, 묵은 옷이 좋댄 허건 나신디 장개 오라."

허난 어멍신디,

"쉐는 어떵 헙니까?"

"쉐도 새 쉔 버릇이 들럭키곡(날뛰고) 묵은 쉐가 좋고, 옷도 새 옷은 몬몬치 안허영 묵은 게 존나(좋다). 장도 묵은 장이 좋곡, 새 장은 무슨 냄새가 난다."

허난,

"게민(그러면) 서시방신디 장개 안 가쿠다(가겠읍니다)."

허난 어멍이 오죽 들럭키여,

"내 집 망허젠 햄젠."

허연, 어딘 어떵, 막 들럭키여도 이걸 어떵 물리우리[44] 허난, 그 문씨 도령이 강 막 펜질 찾아 오라고, 찾아 오랜 허난, 이젠 가네 장남은 간 막 펜질 찾아 오람지(오고 있는데), 아, 거세기 서시방네 뚤은 물 질언(물을 길어서) 조로로 오란 아이구 어떵 허영 오란 감딘[45] 하인은 알앗주기게(알고 있었다) 펜지 ᄋᆞ정 핸 댕기곡[46] 허난,

---

42) 길 가는 여자와 가면(그 여자에) 미쳐서.

43)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44) 어떻게 반환하리(회복시키리) 하니.

45) 어떻게 해서 왔다 가느냐.

46) 가지고 해서 다니고.

"아, 그런 게 아니라 저 문씨 도령은 이딴 이시 저시 해부난(하였기에) 이제 저 막 펜질 촞앙 와수다.[47]"

아 경 존는 거라(말하는 것이었다). 경 허난 서시방네 뚤은 이젠 딱 고정 들은 후젠 그래도 나 집 하인 저래도 나 집 하인이니 나 술 혼 잔 먹엉 가랜 올래에 간들해영 강 청해다 놓으네. 안쪤,[48] 술 혼 그릇 먹는 동안 막 펜지 해연 술에 칸 확 들이싼(들이켜서) 그만 방안트레 드러누원 막 펜질 찾으러 간 종은(그 장남은) 이제 그 하늘 옥황 문씨 도령신디 보내 두고 서시방 뚤은 그만 문 중강(문을 잠가서) 탁 드러누워둠서(놓고) 나 방에 일레만에(7일만에) 문을 욥센(여십시요) 아니, 할망네도 그 전에 욜카불주![49] 게난 이젠 오꼿 죽어 부런게(버렸다). 그 막 펜지 해여 솔라 부난 잔치 때에 궂은 새가 들엄젠 허난 거 콩도 삐곡(뿌리고) 소금도 삐곡 햄세(하고 있다). 그 새가 든댄. 경 허연 오꼿 서방은 장개 가잰 죽지도 않곡 햄신디[50] 그만 곡헌 ᄆᆞ심 먹언[51] 서방 죽은디 나 살앙 뭐 허느넨, 막 펜질 술에 탄 확 들이씨난(먹으니) 일레만이 문 욜앙 보난 청나비영, 흑나비영, 악신 새영, 궂은 새들, 그신새여, 흘기새여, 나비여, 호루여, 몬딱 생이(새)로 나가 부런. 서시방네 뚤이.

그거 죽어 부난 이젠 자청비광 살림을 살아 노난, 헐 수 어시 하늘 옥황 문씨 도령 그 아방이 또 하늘 옥황이 선디사(있었는지), 그냥 그 서시방네 뚤 해시민 경 안 헐 건디[52] 그 질 가는 년하고 허난 어떤 년인고, 숫불 살루고 칼전들을 탁 놓앙(놓아서),

"그 숫불 위에 칼전등 위를 발아오민 나 며느리고, 탁 털어지민 나 며느리 아니다." 해 노난 이제 문씨 도령은, "놈의 애기 불에 데영(데여서) 죽일 일은 무신 일, 칼에 베영(베어서) 죽일 일은 무신 일."

허멍, 문씨 도령은 탁 조드라 가난,[53] 자청비 하는 말이,

---

47) 찾으러 왔읍니다.
48) 놓아서 앉히고.
49) 열었어야 했는데.
50) 하고 있는데.
51) 급한 마음 먹어서.
52) 안 했을 것인데.
53) 근심을 해 가니.

"하다(하나도) 주들지 말랜. 나가 죽으라 허민 죽을 거, 죽으랜 해시민 (하였으면) 불 위에 털어정 죽을 거, 살랜 해시민 칼전더래 바래 갈 건디 원 걱정도 말랜."

경 허연 이젠 간 온 후젠, 더러 떨어부럼져.

〔조사자 : 아니, 다 골아 줍서게(주세요) 할머니.〕

갓 쓴 후에 바래 가멍(가면서) 허는 말이 막 거세기 정수남이옌 헌 건 종, 장남인디 구경시켜 주켄(주겠다고) 드랑 간디,[54] 가둠서(가 놓고) 2년을, 자청빌 줍젠 허난 아마도 장도칼로 왼도가를 빠 부리난 장남은 오꼿(그만) 죽어 부런. 경 허난 옛날 어멍 아방도 눈 배끄디(눈밖에) 난게, 구경시키켄 핸 가둰게[55] 호박산이여 호박구경, 연두산이여 연두구경, 해도 아무 산도 아니고 꽃밭에 드라다 노난 그 장남 (거세기) 그 처녀가 장남이 돌아가난 죽여부러 시네.[56] 그 자청비가 이 놈을 살렷당 뭣 허랜(무엇 하리), 그 죽여 부난, 그 어멍 아방은 이제 적시 아홉.섬 가는 장남, 콩씨 아홉 섬 가는 장남 죽여시난 양반네 뚤이옌 사람을 죽이곡 살리곡 허느넨, 그만 오꼿 내무라 부난 경 핸 나산 해시네.[57] 경 허난 이젠 간 숫불 살리곡 하늘 옥황더레 돌아 노난,

"난 쉐가 정수남이 죽인 쉐나밖에 아무 것도 어시매(없으니) 하늘님이 죽일 테건 불 알더레 털어지게 허곡, 살릴 테건 칼전더레 바래줍서(타게 해 주세요)."

허난, 칼전더레 바르르 하늘 옥황 시아방신디더레 발아가서, 발아가단 새끼 발가락을 아씩(약간) 비여서. 아씩 비난, 이젠 발아오라수댄 절을 허난 치매깍에 그만 피가 붙엇더라 헌다. 그 필 안 부터시민 우리 예펜들이 구실을 안 헐 건디 자청비의 새끼 발가락에 피 붙어부난 이젠 예펜도 그 구실을 햄시네(하고 있다). 그 구실이옌 헌다게.

경 허난 이젠 발아 가난 절을 햇지, 시아방신더레. 새끼 발가락에 피 잇젠 허민 며느리 안 헐 거주게(할 것이여서) 칼전더레 잘 안 발아 왓젠.

---

54) 데려서 갔는데.

55) 해서 갔으면서.

56) 죽여 버렸다.

57) 나서서 하였다.(자청비가 집을 나온 경과를 말하는 것.)

"그 치매깍에 것은 뭐냐?"

허난,

"그런 게 아니라 거세기 저 보름에도 흔 번, 흔 달에도 흔 번 오는 궹이 잇수댄(있읍니다)."

자청비가 오꼿 이름을 맹글아부난 그 구실을 해서. 그 시아방을 쉑이젠(속이려고) 허연 그 때문에 예펜들 다 구실들 햄세.

"아, 나 메누리 기특허댄." 하늘 흔 착 그차주고(끊어주고), 땅 흔 착 그차줘서 며느릴 강 여기서 농시도(농사도) 해영 살곡 허랜, 하간(많은 것) 거 허랜. 그제사 시어멍도 잘 해 주곡 허난.

경 허영 살암시난 그 선비들이 이젠 자청비가 스뭇 얼굴이 좋다 허니 이 집이 침식을 헌댄. 아무 날 이제 훼(회의를) 헌다 허연 펜질 오라서, 문씨 도령신디. 이젠 그 펜질 보난 이제 우리 아무 날 회의 햄쪄(하려고 한다) 허난 이젠 그 자청비가 깜짝 놀래연 이젠 이번 가민 이젠 이 서방을 죽일 꺼옌 이 노릇을 어떵허리[58] 허연 가슴에 소개(솜)틀고 허연 갓을 썽 가멍 맨딱(모두) 모여 이시난, 난 미천헌 선비랜, 늦엉 와수댄 허연 구석에 앉앗지. 갓 썽 가난 굽어둠서[59] 술을 주민, 술을 비왁 비왁 해 가난, 가슴속이 소갠 젖어가지, 소갠 젖어가난 미천헌 선비랜 난 가쿠댄(가야 되겠다고). 나오라 가난 선빈, 선비옌 그만 헌 약주를 먹어도 꿈적도 안 행 감젠.[60] 꾀 헌 후젠 눈 흔 착 까진 것이 그런 술을 맹글앙 취핸 안쪄 뒁(앉혀 놓고), 우리 친구 어데 오랑 감넨,[61] 우리 친구, 나 술 흔 잔 먹엉 가랜 허난,그런 게 아니라 선비의 술을 먹엉 감시난(가고 있으니) 안 먹엉 가켄 허난 해도(하여도) 아이고 나 술 흔 잔 먹엉 가랜 허난 물 위에서 이것사 무슨 용부름이 시리옌,[62] 흔 눈 까진(없는) 친구의 술을 호르륵 허게 들이씨난(들이 마시니) 물도 오꼿 물팡더레[63]

---

58) 어떻게 하겠는가.

59) 굽어 있으면서.

60) 안 한다.

61) 어디 왔다 가느냐.

62) 별 재주(신비한 재주)가 있으랴.

63) 말팡(말을 탈 때 짚고 올라 타는 돌)에.

떨어지곡 물자국 탁 디디고 죽언. 탁 떨어지는 바람에, 경 허연 탁 비오민 꼭 거기 물 골라(물이 괸다). 경 허연 이젠 물 탁 털어지난, 비단 짬시난(짜고 있으니) 자청비신디 간 물이 와랑와랑 핸. 아, 이젠 죽었구나 핸. 이젠 돌려오난 서방은 물팡더레 털어젼 죽어시난, 서방은 물만 강(가서) 와당와당 사름 죽엇댄 말만 해 가난 이젠 안아당(안아다가) 다른 사름은 영장허져,[64] 뭣이라도 허젠(하려고) 와당와당 허주마는[65] 바깥 사랑에 간 눅젼(눕혀놓고) 쥥이(취) 잡앙 녹두 씌와 주곡, 재열 잡앙 녹두 씌곡 이젠 줄 잡아 녹두 씌곡 낭(나무) 놔둰(놔두고) 소뭇 해 가난(한참 하여 가니), 비단을 타각타각 짬시난, 그것들이 오라서 우리 친구 어디 가시넨 허난 ᄉᆞ랑에서 장기 둠댄. 장기 두는 소리 장이여 뭐여 왕당왕당 허난 선빈 선비엔 선비네 집더레 왕 그냥 갑니껜.[66] 이젠 쉐방석을 툭 허게 데껴서 요것들 꼴앙(깔아) 앉입센(앉으십시요). 아, 그것들 요남은이[67] 모여도 쉐방석을 이겨져? 것도 이기진 못허연 이젠 아, 그냥 오랑 갑니껜, 이젠 ᄌᆞ배기나 먹엉 갑센(가세요) 무쉐로 조배기 허연 흔 사발씩 주난 무쉐로 ᄌᆞ배기 허난 너으러지느냐,[68] ᄌᆞ배기 하나 이기지 못허곡, 방석 하나 이기지 못허곡 허는 이런 놈들 이시넨(있느냐). 아, 이걸 이기지 못헴젠 백철(하얀 철) 몽둥이로 아사단(가져다가) 허난 이 년 건드리지 못허켄 허멍 밋밋 나돌아[69] 부난, 아, 이젠 나돌아 부난 이젠 허는 수 어시(없이) 서방 죽어 노난, 이젠 시어멍ᄀᆞ라(에게) 골으난 어서 기어나랜(나가거라) 야단허여. 시아방신디 펜지 허난 소뭇 오죽 허느냐게. 하늘 흔 착도 내불라(내 버리라) 땅 흔 착도 내불라 아유, 이 노릇을 어떵 허느넨(하느냐) 서방은 고만이(가만히) 눅젼 놔 두엉 이젠 내부러 두언 남장 옷으로 서방옷을 출리고 물 타고 꽃밭딜 가서. 사름, 옛날은 꽃밭 바랑바랑 허게 노민 검붕채로 시 번만(세 번만) 때리민 일어나는디, 이젠 서천 꽃밭디라, 이젠 가만 보난, 거세기 공작샌지, 하나

64) 영장(사람이 죽으면 묻는 일) 해야지.
65) 하고 있지만.
66) 갈 수 있겠읍니까.
67) 여섯 내지 일곱.
68) 쓉어지느냐.
69) 줄줄이 달아나 버려서.

놀아간 화술 허난 그 꽃밭더레 털어져 부런, 경 허연 이 꽃밭이 누게네 꽃밭이곤 허난, 올래에(문간에) 간 물을 세와 두언, 이젠 저 무사(왜) 우리 꽃밭에 화술을 떠와시넨(떠웠느냐) 허난 새가 놀아난 공작새 닮은 새가 놀아가난 그쟈 물 위에서 그냥 데끼니(던지니) 그만 화술은 꽃밭에 들으난, 그 화술 춪이레 가수다[70] 허난 아, 그디(거기) 집이 말잿뚤이(막내딸이) 가 나산 후젠, 아이고, 저런 사못 도련님을, 그디 안 풀아주민(팔아주면) 죽어 불켄(버리겠다) 막 들럭키는(날뛰는) 거라, 말잿뚤이. 그 처녀가, 도련님을 사위허렌 허는 거라. 이젠 ᄒᆞ꼼(조금) 이레(여기에) 오랜 허난 손꼽으로 물 주둥일(입을) 톡 졸라(짤라) 매 두고 허연 이젠 갓지. 가난, 촐(먹이)을 주난 아니 먹어, 촐을 안 먹엄젠 허난, 이거 난리나민, 촐 먹으랜 손꼽 트드난 아, 이렇게 아는 사름이 싯느넨(있느냐) 오죽허느냐게, 이젠 사월 맞아서. 사월 맞으난 이젠, 그 사위가 허는 말이 그 예펜이라 노난, 그 예펜과 예펜이 어떵말고게[71] 꾈(꾀를) 헌 후젠, 난 장중 보레 가는 길이라 부난 ᄀᆞ찌 못 누켄(눕겠다). 이젠 난 장중 보레 가노랜 허난, 그날 예펜광 상관 안 햇주게. 안 해연 초석 알더레 토서엔 헌 거 대비(보선) ᄒᆞᆫ 착 놓고, 손도매 ᄒᆞᆫ 착 허곡, 용올래기(참빗) ᄒᆞᆫ 착 행 놔 두언, 초석 알더레 톡 놔 두엉(놔 두면서) 나 오기 전엘랑 이 초석 걷지 말앙(말고) 놔두라, 허난 이 낭에 나가민 방도 안 씰곡, 이녁 남편이 어디 웨방(외출)이나 나가민, 초석 같은 거 안 걷는다. 정성허는 사름은 초석을 안 쓴다. 나, 오두룩(올 동안)은 초석을 걷지 말라 해 둰 이젠 장중 보레 가노라 해연 꽃밭에 화술을 춪아 주민 이젠 가켄 허난 그 각시 ᄃᆞ랑 간, 이건 무신 꽃곤 허난 요건 눈 돋을 꽃, 허민 톡끼 탕 놓곡, 요건 코 돋을 꽃, 허민 톡끼 타곡, 요건 입 돋을 꽃, 허멍(하면서) 요건 어떵 거고 허민 모두 타 놩으네[72] 이걸 다 버려 놩으네 삼시번만 때리민 사름이 죽곡 살암서(살고 있다) 사름이 살아나는 꽃이렌 허난 톡톡 타 놤서. 장중은 어디 간고(갔느냐) 허민 그 물 탄 이젠 돌려오난(달려오니) 서방 죽은 디 오란, 놩으네(놓아서) 이젠 그걸 막 빌련(빌러서). 무슨 검붕채로 삼시번을 때리난 와들랭이(펄

70) 찾으러 갔읍니다.
71) 어떻게 하느냐.
72) 따서 놓아 두고.

쩍) 일어난 후젠, 아이고, 나 너미(너무) 자져수댄[73] 좀 잔(잠을 잔)후에 일어난, 아이고, 이젠 하늘 옥황 간 시아방ᄀᆞ라 아들 살려 오라수댄(왔읍니다). 어떵허연? [74] 아니 양반의 ᄌᆞ식이 거세기, 재판관의 뚤이옌 핸 게(한 것이) 어떵 사름을 죽이곡 살리곡 해 지느넨, 어서 기어나가렌 또 나무래는 거라. 시어멍더레도 ᄀᆞ르난 또로(다시) 욕허연. 허, 이런 노릇이 어디 이시넨 허연, 서방은 ᄀᆞ찌 살곡 허연, 이젠 서방ᄀᆞ라 허는 말이 난 건달로 놈의 처녈, 머릴 걷져 놔 뒈시난(두었으니) 당신이 강(가서) 살앙 그디 강 스무날은 살곡, 나신디랑(나에게는) 열흘만 살아 줍센(주십시요). 이젠, 옷을 마딱(모두) 입젠, 몰 태우고 핸 보내시네(보냈다). 허난 그 백정놈이 그 문씨 도령이옌 헌 건 스무 날을 살앙 오카부네, [75] 각시신디.

〔조사자 : 안 완 마씸(안 왔읍니까)?〕

가난, 영 무소식이라, 그 각시에 빠젼 허연. 이젠 남도랑 치맬(치마를) 여덟 개 장물(간장)에 바래서, 이젠 서방 오라 불건 상관 말앙 떠나 불젠 이젠, 남도랑 치맬 장물에 바래멍 이젠 펜질 허는 게 가마귀신디(에게) 가마귀옌 헌 건, 몰 죽은 밭디 간 펜질 문드러 부런. [76] 그 몰 죽은 몰궤기(말고기) 먹음이옌(먹느라고) 오꼿 오라시민 그 편질 문드러 부럿젠 허난 자청빈 두드려 부난, 이젠, 자울락자울락, 가마귀 어서도 못 허켄(못 하겠다). 생이ᄀᆞ라(새에게) 이 펜질 가져다 도랜 아쳑이랑(아침이면) (거세기) … ᄌᆞ냑이랑(저녁) 동(東)가지예 소륵조륵 울곡, 아쳑이랑 서(西)가지예 조륵조륵 울엄시민(울고 있으면) 서가지옌 시수허렌 [77] 나오건 시수 전에 이 펜질 문드러(떨어뜨려) 주라 허난, 간 시수허레 나온 후에 손 안 젖기 전에 생이 도록게(빨리) 문드리난, 페완(펴서) 보난, 아 이젠 그디 강 스무 날 살곡, 나신디 열흘 살랜 허난, 이젠 3년을 살아도 한 번 가도 무소식이니 이렇게 무심헌 사름이 어디 시린(어디 있느냐). 아이구 이제사 튼날(생각나) 몰을 거꿀로 단다, ᄉᆞ뭇 맹긴(망건)도 거

---

73) 너무 잤읍니다.

74) 어떻게 해서.

75) 올 것 아니냐.

76) 떨어뜨려 버렸다. (잃어 버렸다.)

77) 세수하라.

꿀로 해간다, 허난, 각시 허는 말이 이거 어떤 말이꽨(말입니까). 각신 그 자청비 그 사름으로 알앗주게. 얼굴이 어떵 행 이추룩(이토록) 궂이녠(더러우냐) 허난 난 거세기 과거 낙방뒈언 ᄌᆞ들아 부난[78] 영 이추룩 지치고랜(지쳤다). 아파나고 죽엇당 살아나고 허난 얼굴이 자청비만 못 허난, 아니 내 서방 아니엔 말 허건 나 나동 등에 난짱 허난 본매 본 짱(본 적이) 없댄 허난 초석을 걷엉 보랜. 용올래기도 곱아, 토서도 곱아, 허난 그제사 이젠 서방이로구나 허연 들여 놘 해시네. 저 자청비 아니라 부난(때문에) 뚠(다른) 사름이라 부난.

경 허연 이젠 와들랑와들랑 해 가난 꽃가마기집 뚤은 이거 어떤 일이우꽨(일입니까) 허난 어멍 죽엄젠 핸 펜지 오라시난(왔으니) 난 가노렌 것도 쉑연(속이어), 아 나도 혼디 가쿠다 허난,[79] 나가 강으네(가서) 봉그네(봐서) 묻게나 뒈거든에 펜지나 허거든 오렌. 나만 강 보켄. 그건 경 해둰 이젠 그건 동동 오켄(올려고) 허는 걸 몰탄 왈랑왈랑 지만 오라서(왔다). 이젠 그 집 더레 들어 와가난 그 자청비 허는 말이, 그거 수적가 강적가[80] 이제 팔년 여덟 핸지 몇 해 살아도 이젠 이 집이 사름은 감감무중헌디(하니) 죽건디, 살앗건디, 난 사름이옌 해도, 서방이옌 해도, 서방도 아니옌 허멍(하면서) 그만 그쟈 남도랑 여덟 개 치매 장물에 바랜 거 확 입언, 창문으로 화르르 뽑아 나가난 이, 치매 떨매영 헌 거 치매 바랜 건 나비 되영, 청나비, 흑나비 되영, 그걸 바래지 안허영 그냥 입어시민 치매 입은 차(입은 채) 사름을 그냥 빠낼 건디, 그냥 하늘로 올라가 부러시네(가 버렸다).

하늘로 올라간 이젠 그 장남 죽인 디 강(가서), 꽃을 봉 그 또 장남도 살려, 장남을 살리난 이젠 아, 나 너무 자져수댄, 그 때도 장남은 ᄀᆞ찌 간 거세기 물 아래 간 탁 허게 비녀도 빵(뽑아) 들러 내껴 불고(버리고), 옷도 해영 저 물더레 다울련[81] 지쳐 두고 허난 어느 거 연두산이고 그 꽃을 촞아 도랜 허난 요거 아니우꽨[82] 허난 요거 연두산이고 호박산이우댄. 그 자청비 옷 해 둠서(해 놓고) 장남은 속연. 그 꽃밭디 돌아가지 못핸. 그 처녈 얻젠 헌 게 허

78) 걱정을 해서.
79) 같이 가겠다고 하니.
80) 해적인지 힘센 도적인지.
81) 쫓아서.
82) 이것이 아닙니까.

난 이젠 하도(많이) 물 그립댄[83] 허난 물 ᄀᆞ르쳔 이 물 먹으렌 허난 고운 물 먹으민 홀어멍 든댄 못 먹게 강 허곡, 궂인 물만 옷 벗엉으네(벗고서) 먹으랜 허멍(하면서), 그 놈의 아들은 쉬멍(쉬면서) 먹으랜 허멍 쉬멍 먹으난 물 먹는 체허연. 자청빈 점심은 뭣 허느넨(하느냐고) 허난 나찍신 민챙이ᄀᆞ루 허영 소금 ᄒᆞᆫ 줌 노나마나(놓을 듯 말 듯) 허곡, 상재님이랑으네(상재님은) ᄀᆞ루 닷 뒈예 소금 닷 뒈 노렌 해 부난(해 놓으니) 소금 닷 뒈 놓고, ᄀᆞ루 닷 뒈 놓으랜 해부난 무신 때(음식) 해 놀 줄 알아시냐게. 번찍(오로지) 글 허레만(하러만) 댕기당 펀찍 허난,[84] 소금 닷 뒈예 ᄀᆞ루 닷 뒈 노난 밥 먹어지느냐. 아고 ᄀᆞ찌 안장 먹겐 허난 이젠 ᄀᆞ찌 앉으민 갓대영 허곡, 날랑으네 질(길) 아래예 앉으커매(앉으겠으니) 질 우에 강 먹읍서(먹으십시요) 허난, 아 느 밥이나 가져오렌, 나 밥은 참 못먹켄 배고픔은 허곡, 참 못먹키여 허난 이젠 저 정수남이옌 헌 건 미친놈의 새끼, 밥이영 ᄆᆞᆫ딱 들러 먹엉 가고 자청빈 굶엇주게. 해천(하루종일) 굶언, 굶어노난 아 이젠 못 허켄 이놈 거슬려 노민 나가 이제 죽어질 꺼옌 허연 ᄒᆞᆯ 수가 엇댄 엄막을 메경(해 놓고) 이 놈을 ᄒᆞ끔(조금) 속여 본댄. 엄막 맨들앙 느영(너하고) 나영(나하고) 이 저냑이랑 누웡 자곡 ᄀᆞ찌 살켄 허난 그젠 지꺼젼(기뻐서) 서더레 이여차저여차 집을 지서서. 집을 지선 그날 저냑은 누으난 눅젠 허느냐게. 자청빈 안자둠서 하도 그 정수남이가 그저 못된 시무쟁일(행동거지를) 해 노난 자청빈 꿸 빼연 ᄋᆞ 고망(구멍) 도 막앙 오라 저 고망도 막앙 오라 해 가난 오꼿 붉안. 붉아 가난 부에난(화가나서) 이젠 소뭇 성내연, 소뭇 죽염직이(죽일것 같이) 허는 거라. 경 허난 이젠 자청비가 아이고 겨영져영(이럭저럭) 느풀엉 저 ᄒᆞ룻밤을 자젠 헌 게 그만 붉아 부난 나 동무립(무릎)에나 누라, 니나(이나) 잡아주마 아 그 허운데기(머리) 니 닷 말 헌 거, 이젠 동무립에 누어가난, 니 오득오득 큰 닌 ᄆᆞ소왕(무서워) 못죽이곡, 즉은(작은) 니만 죽염시난 오꼿 좀들언. 이제 이거 살리민 또 무신 일 저질렁, 또로 날 죽이나, 강탈을 허나 헐 거랜 핸 이놈 죽여분댄 첨 배우리른디 무슨 웬 가도로 확 베난 오꼿 정수남인 죽어 부런.

정수남이 죽어 부난 오란, 그 첨 이젠 정수남이 혼령이 잇거든에 나 ᄆᆞᆯ 우터

83) 먹고 싶다.
84) 다니다가 아무 것도 못 하니.

레(위로) 올리랜 허난 생이(새)가 난 이리 팔딱 저래 팔딱 해연, 혼령으로 그 우터레 올라 오더란다. 옛날도 올라오랜 허난 그 갓절래기영(끈들과)[85] 몰(말)하고 쉐(소)하고 허믄(하면) 낭 해 오켄(해 오겠다). 그 정수남이가 저 주인할망 할으방ᄀᆞ라 쉑연, 낭허연 간, 고자(이제까지) 안 오고 그 내부려 둰 오란 게난, 그 호박구경, 그 연두산이 연두구경 막 구경헌디 어디서 신선덜 구경오는 디가 십디댄(있읍니다) 허난,그 구경좋은 자청빈 아이고 나도 가민 구경해지커라녠 허난,[86] 홀려 안젼 굴 소곱에(굴 속으로) 가젠 헌 게 난 어떵 가느녠 허난 몰 탕 가랜 허난,몰은 정수남이옌 헌 건 속인 후젠 그 장남은 구쟁이 딱살[87] 세 개 놘, 안장 소곱에(속으로) 놘 몰 태완(태워) 허난, 몰은 살아지느냐게. 와들랑와들랑 들럭키연 자청빌 우트로 들려쏴가난 아이고 이거 어떵 허난 영 햄시냐,[88] 타던 몰이 아니옌 허난,경 말앙(그렇게 말고) 그 몰 코시가 심네댄. 그 정수남이가 허는 말이 그 몰 코시가 심네댄 허난,코실 어떵 허느녠 허난, 돍(닭) 흔 머리 허곡 멩지(명주) 석 장 허곡 허영 오랑으내(와서) 그디 제 드렁 이제 제사드레 절해영 젤(제사를) 빌민(빌면) 그 정수남이 먹곡,그거 소분(벌초)허곡 허민 몰 어떵 안헙니댄(안 합니다). 아이고 그젠 돍 흔 머리 해당으네(하여다가) 몰 코시 핸, 그 문전에 허는 거 정수남이가 지어 놘. 경 핸 완 이젠 그냥 타난 도로(다시) 와지끈와지끈 허는 거라. 아고 몰이 내타 보쿠댄(보겠다). 그 놈이 아덜(아들) 잘도 죽어 싸, 그 질구들락 흔 말 범벅에, 거 무신(무슨) ᄀᆞ루 흔 말에 말가웃(6되) 범벅에, 소금 닷 뒈 해 놓고 허난 오죽 배느냐게(무거우느냐). 그거 거세기 한 짐 지와 둰, 장남은 그 구젱이딱살 아사 둰, 몰 탄 와지끈와지끈 핸 천리만상 가느네. 발목으로 생전 안 걸어 보단 방 붕물고(부르트고) 시장허고,아이고 ᄋᆞ놈이 아이 그 몰 부리라(내리라), 나 ᄒᆞ꼼 타 보게(타 보자) ᄋᆞ놈아 ᄋᆞ놈아 해여간 허난, 거 인칙(일찍) ᄀᆞ루카 부겐.[89] 이젠 몰 거즘(거의) 몰아수댄 오꼿 쉑연, 이젠 배고팡(배고파서) 못 가켄 허난 그 범벅 흔 줌 꽐언 먹으난 물기리완(물먹고싶어) 그 지랄 허연.

(1983. 8. 18., 애월읍 곽지리, 장 인휴, 여 · 83.)

---

85) 끈들(헝겊들을 모아 엮은 줄)과.
86) 구경할 수 있겠냐고 하니.
87) 소라 껍질.
88)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느냐.
89) 말을 할 것 아닙니까.

信　　仰

指導教授 玄 容 駿
班　　員 金 明 淑 (國文・4)
金 沃 妊 (國文・4)
金 承 蓮 (國文・4)
夫 榮 淑 (國文・4)
洪 順 生 (國文・4)

目　　次

Ⅰ. 概　　觀
Ⅱ. 公認宗教
Ⅲ. 類似宗教
Ⅳ. 部落信仰
Ⅴ. 巫俗信仰
Ⅵ. 個人信仰
Ⅶ. 其他雜神

Ⅰ. 概　　觀

郭支里는 행정구역상 北濟州郡 涯月邑에 속하며 2개의 自然部落인 上洞과 下洞으로 나누어진 海岸部落이다.

設村 당시 이 마을은 郭岐라고 불리웠으나 1642년 郭支里로 개칭된 후, 1894년 錦城里가 分離되어 나갔고, 당시 本洞은 1, 2里로 分離 實施하다가 1950년 4월 1일에 행정구역상 한 마을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마을은 모래사장을 끼고 있어 멸치어장이 있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다. 業도 농업과 아울러 멸치잡이가 성행하였다.

이 마을의 신앙을 살펴볼 때 다른 마을처럼 巫俗의 本鄕堂과 멸치잡이의 풍요를 비는 그물접제가 있어 왔는데, 1955년 제주시 본당으로부터 천주교가, 1977년 장 정조 집사에 의해 예수재림교회 등의 公認宗教와 그외 類似宗教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처럼 포교되었던 여러 信仰들은 産業이 變化함에 따라서 본향당은 마을청년들에 의해서 말잣오름(귀부리)으로 옮겨졌고, 그물접제도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公認宗教인 천주교는 처음 구호물자를 배급하면서 포교할 때는 성황을 이루었으나 그것이 끊어진 후부터는 신자가 줄기 시작하여 지금은 閉鎖된 상태이며, 예수재림교회도 포교를 포기하고 지금의 집사님代만 끝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이라 한다.

그외 가정 신앙은 약간 殘存하고 있으나, 거의 사라지고 있어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郭支里 信仰現況을 다른 마을의 포교 현황과 비교해 볼 때, 이 마을이 班村的 性格을 지니고 있어서 諸信仰이 위축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된다.

Ⅱ. 公認宗教

郭支에는 천주교 곽지공소 1個所와 예수재림교회 1個所가 있었으나 現在는 천주교 곽지공소가 폐쇄된 상태이다. 또한 곽지에서 분리되어 나간 금성리에 불교 사찰이 있는데, 곽지 신도들은 그곳에 다닌다.

곽지리에는 이외의 公認宗教가 없고, 그나마 남아 있는 公認宗教도 포교가 되지 못하는 상태이다.

1. 천주교

ㄱ. 名稱 : 한림 천주교회 곽지공소

ㄴ. 沿革 : 제주시 천주교회의 구신부님이 郭支里에 포교를 시작하여 1955년에 공소가 設立되었다.

ㄷ. 教人現況 : 1955년 경 미국의 救護物資 援助가 있어 교인들에게 배급될 때에는 약 100명 程度의 교인이 있었으나, 救護物資 배급이 없어지면서 점점 減小趨勢를 보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1960년 경 정 스테파노 신부가 있을 때는 盛況을 이루어 약 50명(男 : 15명, 女子 및 어린이 : 35명)이 있었지만 現在는 10내지 15명 정도의 교인이 있을 뿐이다.

現在 郭支公所에서 곽지리 내의 교인 외로 예배를 보는 자는 한 명도 없으며, 그 교인 중에도 성의있는 사람은 한림 본당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본다. 그 숫자는 28년 동안에 4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ㄹ. 教會現況 : 교무금은 한림본당에 가서 내는데 곽지에서 한림 본당까지 교무금을 내러 가는 신자는 거의 없다. 또한 봉헌금은 예전에 곽지공소에서 주일미사를 볼 때 내었으나 지금은 그러한 신자가 없고, 단지 회장 한 분만 한림 본당으로 가서 미사를 보는 실정이다.

ㅁ. 禮拜 : 원래 아침미사를 보았었으나 아침 일찍 밭에 나가야 하는 농촌의 실정 때문에 신자들을 모을 수가 없어 2주일에 한 번 저녁미사로 옮겼다. 그리고 그 미사는 토요일에 행해 오다가 수요일로 옮겼으나 거의 신자가 모이지 않아 지금은 예배가 없는 실정이다.

ㅂ. 代表者 : 代表者는 회장으로 稱하며 제1대 회장에서 제5대 회장까지 내려왔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1대 : 김 마리아(김 병출), 곽지에 籍을 둠.
2대 : 고 안나, 한림에 籍을 둠.
3대 : 세실리아, 한림에 籍을 둠.
4대 : 고 말구, 곽지에 籍을 둠.
5대 : 김 레지나, 곽지에 籍을 둠.

前에는 代表者를 한림천주교회 신부가 임명했었으나, 제4대 고 말구 회장 때부터는 신자들이 없는 탓으로 신자들의 추천에 의해 마지못해 회장직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ㅅ. 布教 : 그나마 남아 있는 소수의 신자들은 소극적으로나마 전교해 오다가 지친 나머지 佛教와 巫俗에 관심 쏟는 주민들을 보고 포기상태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차라리 시원하다"는 말로 表現하고 있었으며, 자신만이라도 한

림 성당에 나가면서 신앙 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한 傳教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신자였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교회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까닭에 더욱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ㅇ. 宗教와 住民들과의 관계

① 住民의 立場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와 병든 자들이 救福宗教의 形態로 美國의 救護物資 援助에 마음이 끌려 신자가 되었는데, 그러한 물자 원조가 끊기자 신앙심이 희박하여 점점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어 갔다.

② 천주교의 立場

생소한 宗教를 포교하기 위해서 일단은 住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함과 헐벗은 住民들을 돕기 위하여 物質的 援助를 하였으며 차차 신앙심이 깊어지기를 바랐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2. 예수재림교회

ㄱ. 名稱 :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곽지교회

ㄴ. 沿革 : 1977년에 장 정조 집사(女·82세)가 42세 때 120평의 초가(草家)를 빌어 재봉틀 일을 하며 傳教를 始作했으며, 약 6년 뒤인 1977년 호남에 있는 本部로부터 융자를 받고 집사 소유의 집터를 팔아 교회를 마련했다.

ㄷ. 教人現況 : 처음부터 포교가 거의 되지 않아 교회건물은 휴양관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도 정식적인 신자는 없고, 병든 자들이 찾는 기도원의 구실을 하는 데 불과하다.

ㄹ. 교리 : 성경 66권으로 된 교리서가 있으며 他教會와 다른점은,

• 十誡命을 모두 지킨다 (十誡命中 네 번째 項目인 "안식일을 지켜라" 는 誡命을 철저히 중시한다).

• 침례식은 천주교의 영세성사와 같으나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 예수가 세례를 받던 그 형식과 똑 같으며 성사는 목사가 행한다.

• 성만찬식은 천주교리에 의한 최후의 만찬식을 여기서는 성만찬식이라 부르며 그 예식은 서로간의 友愛敦篤을 위하여 서로의 발을 씻어 준다.

ㅁ. 教會現況 : 현재 垈地 135평에 건평 25평의 교당이 있다. 장 정조 집사 한 분과 근래에 온 황 순심 집사가 운영하고 있다.

ㅂ. 禮拜 : 火·金·土曜日에 모이며 화요일은 3일 예배를 갖고, 금요일은 성경책을 읽고 해설하는 정도의 예배를 갖는 것으로 끝내며, 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과 공부를 한다.

ㅅ. 代表者 : 代表는 82세의 장 정조 집사이나 장 정조 집사가 돌아가면 교회를 팔고 애월에 다시 지을 계획이나, 만일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생기면 계속 운영토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Ⅲ. 類似宗教

ㄱ. 名稱 : 社團法人 三法 修道教化院 (郭支 布教所)

ㄴ. 沿革 : 본교(김해읍 불암동 62의 14번지)에서 임명장을 받고 玄仁娘(58세)이 곽지에 1971년도에 지부를 設立하여 계속 운영 중이다.

ㄷ. 教人現況 : 고정된 신자가 없다. 구복신앙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사람은 한 달에 30여 명 정도이나 그들 대부분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라 한다.

ㄹ. 教理 : 보통 佛教의 교리와 비슷하나 차이점은 목탁·염주를 使用하지 않으며 육식을 허용한다는 것과 제단에는 청수물이나 과일 등을 올리는데, 그 청수물을 내려서 환자들에게 영험을 담은 뜻으로 나누어 먹인다는 것 등이다. 그리고 염불(경)을 하는데, 그것은 魔를 쫓아내는 것을 뜻하며 "아미타불"이라고 외면서 마음을 닦는다.

ㅁ. 布教地域 : 郭支里와 기타 다른 마을에서 환자들이 찾아오는데, 이들은 교리를 이해하는 신자이기보다 병을 치료하기 위한 요양이 主目的이다.

Ⅳ. 部落信仰

마을 共同의 儀式인 酺祭와 그물접제가 행해졌으나 産業의 變化에 따라 사라졌다. 그리고 郭支里 자체에서 行하는 祈雨祭는 없고 涯月面 수산오름에서 면장의 지휘하에 면단위로 행해졌었으나 지금은 그것조차도 사라진 실정이다.

1. 포제(酺祭)

ㄱ. 祭名 : 酺祭, 또는 마을제라 한다.

ㄴ. 祭神 : 天神之靈·酺神之靈

ㄷ. 祭日 : 일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행하는데, 正月의 吉日과 가을의 吉日을 택해서 행했었다.

ㄹ. 祭壇 : 원래는 세오름에 있었는데, 속칭 무루애(다라쿠시)에 옮겨 놓았다. 그 후 酺祭를 행하지 않게 되자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이다.

ㅁ. 祭儀 管理 : 마을 里長의 주도로 鄕會를 열어 祭官과 祭日 등을 의논해서 결정하였다. 그리고 마을의 用人을 시켜 祭가 끝날 때까지 모든 일을 처리하게 했다. 이 때 祭의 費用은 家戶米를 걷어 충당했다.

ㅂ. 祭官 : 祭官은 鄕會에서 학식이 있고 부정이 없는 者로 선출한다. 그 數는 12명인데, 初獻·亞獻·終獻·執禮·大祝·贊者·謁者·奉香·奉爐·司樽·奉酌·奠酌·典祀官 등이다.

ㅅ. 祭物 : 메는 稻·粱·黍·稷 4가지를 올리는 것이 상례이나 번거로움 때문에 나중에는 쌀로 지은 메 한 그릇과 좁쌀메 한 그릇씩을 올렸다. 채소류는 熟菜·菁芹·沉菜 등, 각종 과일, 脯와 海魚, 그리고 犧牲은 동네에서 기르던 돼지 큰 것 하나와 작은 것 하나를 통째 올렸다.

ㅇ. 齋戒 : 祭日 3일 전부터 목욕재계하여 祭場을 떠나지 않으며 정성을 드린다.

ㅈ. 祭享費 : 各 家戶에서 수령한 家戶米와 돈으로 충당한다.

ㅊ. 祝文 : 특정한 樣式은 없고 해마다 그 해 마을 사정에 맞는 祝文을 지어서 使用했다.

ㅋ. 行祭 : 執禮가 부르는 笏記에 따라 행하는데, 그 순서는 奠幣禮·初獻禮·讀祝·亞獻禮·終獻禮·徹籩豆·望燎位의 順으로 行했다.

ㅌ. 禁忌 및 予兆 : 몸이 不淨한 사람은 물론 일반인은 3일 동안 祭場 근처를 출입하지 않는다. 行祭中이나 後에 꿩소리, 말의 소리가 들리면 吉하다고 하고 소의 울음 소리가 들리면 凶하다고 한다. 또 立祭日에 날씨가 좋으면 吉하다고 한다.

ㅍ. 飮福 : 祭가 끝나면 祭官을 中心으로 마을 어른들이 飮福한다.

위와 같은 酺祭를 해 오다가 1959년에 없앴는데, 酺祭를 없앤 이유는 里長의 권한이 세어서 酺祭를 없애자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과 官에서 필요치 않은 部落祭를 철폐하라 하여 그 대세에 맞춘 것이라고 한다.

※ 제보자 : a. 신 정중 (남・84) 1958년까지 祭를 지냄.
b. 양 도하 (남・76)
c. 최 인백 (남・77)

2. 그물접제

ㄱ. 祭名 : 그물접제

ㄴ. 祭神 : 도채비

ㄷ. 祭日 : 어장 형성 시기인데, 정월과 음력 5월이다. 정월은 미리 정성을 드리는 意味의 祭이고 5월에는 감사제와 같은 성격의 제사이다.

ㄹ. 祭場 : 곽지바닷가의 동쪽・서쪽에 있는 막(모살접・신접・서접・중접)에서 드린다.

ㅁ. 祭儀 管理 : 契員 61명의 소임을 받은 公員이 처음부터 끝까지 祭儀를 管理하고, 정식 祭官이 없이 공원이 제사를 집행한다.

ㅂ. 祭物 : 돼지 두 마리와 메를 배에 싣고 가서 바다에 코시(告祀)하고 돌아와 그물막에서 접(契)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다.

V. 巫俗信仰

— 할망당 중심 —

1. 송씨 할망당

ㄱ. 名稱 : 할망당(일레당)

ㄴ. 形態 : 신목형(神木인 나무 앞에 제단을 만들고 돌로 울타리를 둘러 놓았다)

ㄷ. 당의 위치 : 곽지리 리사무소 앞에 있었는데, 1963년 경에 말젯오름으로 옮겼다.

ㄹ. 祭神 : 송씨 할망

ㅁ. 祭日 : 정월 초이레, 열이레, 스무어레가 祭日이다. 이 날 중 吉日을 택하여 축원하러 간다. 지금은 정월 초이렛날 다니는 사람이 많다.

ㅂ. 祭儀執行者 : 현재는 매인 심방의 형식으로 女巫(66세) 고 군희 라는 할머니가 맡고 있다.

ㅅ. 祭物 : 원래 송씨할망당과 문씨하르방당이 각각 있었는데, 지금은 송씨할망당만 남아 있다. 송씨할망당에 제물을 해 갈 때는 문씨하르방의 제물도 같이 해서 올린다. 제물은 메 두 그릇, 과실, 제육, 술 등을 올리는데, 할망당에는 돼지고기를 올리고 문씨하르방에게는 닭고기를 올린다.

ㅇ. 祭次 : 사방으로 절 세 번을 한 후, 날과 국 섬김 — 문읊림 — 본풀이(송씨할망내력) — 비념 — 쌀점 — 하직인사의 순으로 지낸다.

ㅈ. 入巫過程 : 고 군희 할머니는 안덕면 동광리에서 시집을 왔는데, 시집살이가 무척 어려웠다. 47세 되던 해 사월 초파일에 친정집을 갔다 오는 길에 점쾌와 명도칼, 쌀 두 되, 한문책, 명주 1필이 담구멍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점쾌와 명도칼, 한문책은 제자리에 놓아 두고 필요한 쌀 두 되와 명주만을 가지고 왔는데, 다음 해부터는 몸이 아프는 증세가 나타났다. 이웃에게 이 말을 하면 이웃사람들은 믿지를 않았고 명월에 가서 점을 치니 신험을 받았다고 하여 지난날 점쾌, 명도칼, 한문책을 찾아 오라고 했다. 그 곳에 가 보니 명도칼은 없어졌고 점쾌와 한문책만 남아 있었다. 그것을 가지고 와 할망당에 가서 쌀을 놓고 "조상님 먹을 게 있으면 자손들도 먹을 게 있을 것이 아니우꽈"라고 하면서 축원을 하였다. 그 후 꿈에 도인이 나타나서 "신을 받으라"하였다. 잠에서 깨어나 집근처(무당집)에 두 평 남짓하게 파다 보니 엽전 8냥이 나왔는데, 이 때부터 신험을 얻었다 한다. 이렇게 하는 중에 국가시책과 마을의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미신타파 운동을 일으키자 고 군희 할머니는 모든 사

물을 경찰서에 갖다 바쳤다.

지금 현재는 마을 사람들과 아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마을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가끔씩 할망당에 찾아가 기원을 해 주고 있다.

ㅊ. 당비념 : 간단히 제물을 준비하고 당에 가서 女巫 고 군희 할머니에게 비념(기원)을 부탁했다. 녹음된 비념의 사설을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녹음상태가 좋지 못하여 청취하지 못하는 부분이 군데군데 있었는데, 그 부분은 〈청불〉로 표시했다. 청취불능을 意味한다.

할마님 해는 갈라 봅서(갈라 보십시요). 계해년(癸亥年) 올수웨다. 둘(月) 이언정 갈라 봅서. 정칠월 계해년올수웨다. 날이언정 갈라 봅서. 칠월은 초열흘날, 대명천지 붉은 날 할마님 위해연 황조시가 뒈여집네다.

ᄆᆞ을 들어 촌촌(村村)들어 갈르난 ᄆᆞ을 부락(部落)에서 당제(堂祭) 지내는 것도 아닙네다. 천신제(天神祭) 지내는 일도 아닙네다. 새ᄆᆞ을 ᄀᆞᄭᆞ기로 우리 제준 관광지가 뒈여지고 법도 바뀌여 헌 법이 뒈여지고, 종간 엿날 선성(先生), 엿날 황수(行首)님네도 다 돌아가 불고, 글 선성은 공접네다. 활 선성은 공접네다. 불도(佛道) 선성(先生) 노ᄌᆞ님(老子) 나순 법 아닙네까. 불도선성님 〈청불〉 엄마 베안(腹中)에서 배울 거 다 배완 세경땅 걸어지고 보니, 몬저(먼저) 날 열두셍인데 법이 법적 홀 일을 다 마련허여 부니(버리니), 불도노ᄌᆞ선성님 홀 일이 없어서 석곽(石槨)으로 배를 짓고 무쇠로 돗을 돌아서천도산국 동 개남 상저절(東觀音 上住寺) 올라강 석가모니안티(에게) 푼체(부처) 흔착(한부분) 갈라당 우리 제주 사름 앞상 열손 받앙 멩(命)도 빌저, 복 없는 자 복도 빌저 비는 법은 소중법을 내수와진 법으롭서 신도님 덕이 소중이 뒈여지었읍니다.

공ᄉᆞ 엇는 일 어디 있겠읍니까?

오널날은 동소문 밧(東小門外) 내돌으민 서른 ᄋᆞ듭 우도장문 열려줍서. 서수문밧(西小門外) 나사민 장구장문 열려줍서. 남수문밧(南小門外) 올라사민 이십여리 팔십여리 넘어가는 저 모가 올라사민 제주읍네다. 애월면 도장 갈르난 촘촘 집이 대로한질(大路한길) 새로 생겨부난(생겨 버리니) 일각제인 상동 올라 천아대촌(天下大村) 일은 무촌(無村) 뒙네다. 천아대촌 아닙네까.

곽지 상동, 웃동넨 반포 웃동네 당 만년폭낭 천년폭낭 알로(아래로) 엿날 선성님 곽지에 당 비는 설련, 진조방장설련, 심방 선성 문 조방장 설련 법으로 거리에 안네(안에) 할로영산(漢拏靈山) 동어깨 ᄇᆞ름(風) 우(上) 문씨영감(文氏令監) 문통정 아닙네까.

축일(丑日)한 집 마누라님 만년 아질(앉을) 딜로(데로) 좌정(坐定)허연 일년 흔 번 장ᄃᆞᆨ 흔 머리, 소지(燒紙) 석 장, 술 흔 병 받아오던 축일한집 마누라님도 상궤·중궤·하궤문 열립서.

낳는 날은 생산ᄎᆞ지, 죽는 날은 물고(物故)·호적(戶籍) 열십자 붉은 낙점(落點) 맞혀오던 일뤠정중 송씨 할마님은 아덜 일곱 뚤 일곱 설잰 ᄒᆞ난 제육궤기(豬肉고기) 좋아허연 ᄇᆞ름 알로 ᄎᆞ지ᄒᆞ여 오던 영급좋던 할마님 수덕좋던 할마님.

저 곽지 거릿 가운 디 있단 상귀꼬리에 말젯뚤은 엿날 천제(天祭)·별제(別祭)ᄒᆞ여난 자리에 오란(와서) 좌정(坐定)ᄒᆞ여근 흔ᄃᆞᆯ이민 초사흘(初三日) 초일뤠엔(初七日) ᄌᆞ순(子孫) 올 때 지드립네다. 열사흘, 열일뤠엔 아장(앉아서) 지드립네다. 스무 사흘 스무 일뤠엔 누워 지드립네다.

너까짓 ᄌᆞ순덜 오거나 말거나 ᄒᆞ영 지드립네다마는, 할마님아./ 오널날랑 나사민 각서본향, 들어사민〈청불〉 영급(靈及) 좋고 수덕(授德) 좋던 할마님, 올금년 곽지랑 상하동 오백(五百) 여호(餘戶) 각성친(各姓親) 오는 일이 아닙네다.

이 당 설립ᄒᆞ던 엿날 선성님네 문 올립서.

옛날 황수님네 문 올립서.

이 당 앞의 앗던 선성 엿날 얼굴 모른 선성님, 성명 모른 선성님네 문 올립서.

중간 들어 문씨선성, 이씨, 부씨선성, 팔제 궂어오던 삼싱할마님네덜, 이 당 앞의 아장 ᄉᆞᆯ 빌곡 돈 빌곡 밥 빌곡 옷 빌어먹던 팔제궂인 동간 성제간(兄弟間)덜 문 올립서.

천변(天變)은 조훰네다. 물로 환싱(還生)ᄒᆞ는 법 아닙네까?

천금산(天金山) 대불법(大佛法) 멩진국 할마님도 문 올립서.

혼합초지 벨금상 아닙네까. 큰 한집 족은 한집님네ᄁᆞ지 할마님 밋돌로(밑으

로) 할마님 당에 오민 문 율리는 법입네다. 무렴ᄒᆞ지 마옵소서.

할마님 밋돌로 문 율리민 전일월(前日月) 정벵ᄉᆞ(前兵使)나 신일월(新日月) 신벵ᄉᆞ나 각ᄉᆞ낭 도ᄉᆞ(都事), 짐치염래(金緻閻羅) 태선대왕(泰山大王) 범ᄀᆞ뜬(같은) 사ᄌᆞ왕(獅子王) 님네 문 율립네다.

초제(初第) 진광(秦廣), 이제 초강(二第 初江) 제삼 송제(第三 宋帝) 제ᄉᆞ 오간(第四 伍官), 제다섯은 염래대왕(閻羅大王), ᄋᆞ섯은 번성대왕(變成大王), 일곱 태선대왕(泰山大王), ᄋᆞ돕평등(平等), 아홉 지옥(地獄), 열에 전륜대왕(轉輪大王) 십전대왕, 앞도 캄캄, 뒤도 캄캄ᄒᆞ는 이 대왕 문 율립네다.

할마님아, 열하나 생불대왕(生佛大王) 열둘 지장대왕(地藏大王), 열셋이랑 좌도(左頭), 넷우도, 열에 다섯 십오도 저승문서 츠지흔 최판관ᄒᆞ는 대왕.

할마님 앞으로 오랑 아장 빌잰ᄒᆞ민 도도마다 문문마다 열려 비는 법 아닙네까? 열ᄋᆞ섯 ᄉᆞ제(使者) 왕 천왕멩감(天皇·冥官) 지왕멩감 일흔ᄋᆞ돕 멩감에도 비는 법입네다. 멩감이민 한둘입네까? 그 뒤흐로랑 제숙멩감 착볼멩감 아닙네까.

상세경 연농실 문왕성 한세경은 ᄌᆞ청비 김진국의 대감 조제국의 마누라님, 남단북답 너른 밧, 광청답, 수전답 정수남이 정술덱이 느진덕정하님 거느령 쉐(牛) 아홉 ᄆᆞᆯ(馬) 아홉 거느령 세경 봄갈이 철갈이 열두시만국 거리농장해영 정수남이 ᄆᆞᆯ 아홉 쉐 아홉 〈청불〉 열두시만국(十二新萬穀) 벌어오민 일년 흔 번 할마님안티 오랑 상궤가 넘어지게 ᄒᆞ던 인간백성덜 궤 무슨 후제(후에) 오곡풍등, 우마번성(牛馬繁盛) 시켜 주는 법 아닙네까.

이 ᄌᆞ순덜, 체ᄉᆞ(差使)민 흔불입네까. 저싱 체ᄉᆞ 이원나장 강님체ᄉᆞ(姜林差使) 옥황체ᄉᆞ 금부도ᄉᆞ(禁府都使), 우리 정시 이원 심방 ᄃᆞᆯ고가던 체ᄉᆞ 멩두멩감삼체ᄉᆞ관장님됩네다. 체ᄉᆞ민 흔불입네까 총칼에 맞아 죽어간 건 대명왕(大冥王)에 체ᄉᆞ, 낭(木)게 절량체ᄉᆞ(結項差使), 불에 목사체ᄉᆞ, 아기 낳다 죽은 건 구천(九泉)체솝네다. 급ᄒᆞ게 죽어간 건 급흔 체ᄉᆞ 아닙네까. 마누라ᄒᆞ다 죽어간 건 벨방체ᄉᆞ가 됩네다. 영급좋고 수덕좋고, 할마님아 만물 못 출려 왔읍니다.

좋은 일을 ᄒᆞ쟁 ᄒᆞ민 할마님은 성은 고씨 신이아이 됩네다. 이저 멧년간 할마님안티 누게 오라그네 ᄒᆞ썰 빌어 도랜 ᄒᆞ민 할마님안티 빌어나곡 ᄒᆞ나네 천변은 조에가 됩네다.

새ᄆᆞ을 ᄀᆞ꾸기로 이 애기덜 성도 모른 애기웨다. 얼굴도 모른 애기웨다. 정칠월 초아흐렛날은 신이아이 동넷사름덜 심방ᄒᆞᆫ다, 그 집의 가민 안댕 집 ᄀᆞ리쳐부난 춪아온 질을 할마님아 나가 아니 ᄀᆞᆯ아 주민 나가 줴(罪)가 뒈곡, 이ᄌᆞ순덜 각 성친덜 춪앙 역ᄉᆞ(歷史)에 올릴 일이우다.

('김씨 ○살입네다' 하는 식으로 조사자들의 성과 나이를 신에게 고해 올리고 나서)

할마님, 이 애기덜 역ᄉᆞ에 꾸미켄 녹음기영 사진기계영 ᄀᆞ정오라근(갖고와서) ᄌᆞ순덜 나쁜 일을 ᄒᆞᆯ 수가 있겠읍니까?

(심방은 큰절 2배를 올리고 나서 계속 비념하기 시작함)

할마님 궷문 열리는디, ᄌᆞ순덜 예명공ᄉᆞ 올리는디 이 예명 올리건 할마님 불싼(켠) 몲은 질, 이 ᄌᆞ순덜 오고 가는디 깡패, 쑤리쟁이, 술 먹엉 댕기는 인간덜 막아줍서, 이 ᄌᆞ순덜 올름ᄐᆞᆯ름 ᄌᆞ수지(소주), 할마님 좋아ᄒᆞ는 수박 실과(實果) 상(사서) 오라수다(왔읍니다). 지성이민 감천 아닙네까. 삼·구월에 고장쏠입네다.

(제단으로 쌀을 던지고 나서 쌀점을 치기 시작함)

할마님아, 이 아기덜 오고 가곡, 신이아이도 오고 가건, ᄌᆞ순가지 좋다 ᄒᆞ건 열ᄒᆞᆫ 방울이나 단 ᄒᆞᆫ 방울이나 이 ᄌᆞ순덜 멩(命) 제빌 ᄂᆞ리웁서.[1] 할마님 은덕으로 삼시왕질을 걷는 신이아이(심방) 할마님 오널 날이 아니 좋아도 인일이 되어도 비는 법이난 그중 해영(그렇게 알고) 할마님 비는 사름 목 ᄀᆞ리는 법 없읍네다. 종이 네귀 들러 바르는 법 없읍네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법 없읍네다. 모진 광풍에라도 공을 디렁(드려) 저 바당에 저 밸 띄우민 패ᄒᆞ는 법 없읍네다.

오쟁 ᄒᆞ민(오려고 하면), 할마님아, 입으로 험담이라도 아니 해여지멍, 신이아이도 홍허물 너벅지시 낭 부정서정 ᄒᆞ여도 할마님 어떵 ᄒᆞᆸ네까. 궤양궤양(곱게곱게)오랑 빌엄수다(빌고 있읍니다). 녹디타락 물타락 시켜 줍서. 가믄닥지 새닥지 한닥지 저 얼굴에 전 메치도 시켜 줍서. 할마님아, 이 ᄌᆞ순덜 오고 가는 질 운액이나, (점침) 고맙고 황송ᄒᆞᆸ네다 예……

(조사자들이 제단에 술만으로 잡식을 끝내고 나서)… 할마님아 ᄌᆞ순 가지

1) 제비 : 쌀알을 쥐어 던져 잡히는 수로, 길·흉을 점치는 일

덜 불러당 상궤영 문 무섬수다.[2] 부정도 신가입서 서정도 신가입서 (술을 사방으로 뿌리고 나서) 아, 당에 옛날에 서립ᄒᆞ던(설립하던) 엿날 선성님네 일부ᄒᆞᆫ 잔 받읍서. 엿날 선성 황수님네 일부ᄒᆞᆫ 잔 받읍서. 비명에 가던 처ᄉᆞ 관장님네, 어제 그지게(그저께) 죽은 성은 강씨 스믈 아홉 돌고 가던 처ᄉᆞ 관장님네덜 목 ᄆᆞ른(마른) 처ᄉᆞ로구나. 애ᄆᆞ른 처ᄉᆞ로구나. 일부 ᄒᆞᆫ 잔 받읍서.
(음복했음)

Ⅵ. 個人信仰

1. 土神祭

ㄱ. 祭名 : 土神祭

ㄴ. 祭神 : 土神之靈, 土地之神位

ㄷ. 祭日 : 正月에 길일, 즉 가족의 福德에 맞게 擇日하여 지낸다.

ㄹ. 祭場 : 가정에서 지내는 것과 장사가 났을 때 장사치르기 전에 지내는 두 가지 형식이 있다.

ㅁ. 祭官 : 몸이 부정하지 않은 남자를 택하여 부탁한다. 부탁을 받은 제관은 3일 동안 몸 정성을 하고 제를 지낸다.

ㅂ. 祭物 : 메, 돼지머리, 상어, 과실, 채소, 술 등 이전에는 벼, 피, 찹쌀, 지장메 4가지를 올렸었는데 근래에는 좁쌀메 둘, 쌀메 둘로 대신하고 있다.

ㅅ. 祝文

① 家庭에서 지낼 때 쓰는 祝文

維歲次 ○年 ○月 ○日, 獻官幼學某(姓名)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伏以 元陽大周 萬物暢氣 普開壽域 濟上衆庶 玆爲宅主某宅 婦某 幼學 敢祈壽福 駐世下率 子女病疾消除 增福延壽 無憂和樂 牛馬昌盛 百穀豊登 財物萬堂 滅却消罪 道人善境 勿踐惡途 官災口舌 三災八厄 伏冀免除 永賜福錄 謹薦菲薄 願垂慈悲 哀憐納受 伏乞尙饗

2) 궤뭇다 : 신에게 올리는 意味로 갖가지 제물을 조금씩 떠 모아 땅에 붓는다.

北濟州郡 涯月邑 郭支里

② 장사지낼 때 쓰는 祝文

維歲次 某年 某月干支朔 某日干支獻官幼學姓名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某官姓名 塋建宅兆 神其保祐 俾無後艱 謹以淸酌庶羞脯醢 祇薦于神尙饗

ㅇ. 葬後

土地之神 今爲某官姓名 窆玆幽宅 神其保祐 俾無後艱 謹以淸酌脯醢 祇薦于神尙饗

2. 문전제

문전제는 정월달에 택일하여 巫式으로 지내는 新年祭이다. 문전(상방의 대문 앞)에 메, 해어, 과일, 채소 등을 상에 차려 놓고 심방이 문전신에게 집안의 행운을 빈 후 액막이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문전제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다.

3. 삼승할망 비념

ㄱ. 産育神인 삼승할망에게 子女의 無病成長을 비는 祭이다.

ㄴ. 祭日 : 초사흘, 열사흘, 스무사흘, 초이레, 열이레, 스무이레

ㄷ. 場所 : 場所에 관계없이 동쪽으로 앉아 빈다. 이때 아버지, 어머니, 그들의 아들, 딸들의 列名(姓氏, 나이를 神에게 告하는 것)을 올리고 "할머니 즈손 좋게 해줍서"하며 축원한다.

4. 七星祭

ㄱ. 祭名 : 칠성코스

ㄴ. 祭日 : 정월, 이월, 삼월 중에 하는 것이며 가족의 생년월일 등을 봐서 생기(生氣)에 맞춰 택일한다.

ㄷ. 祭物 : 침떡, 인절미, 오물떡, 묵, 실과, 바닷고기 등

ㄹ. 場所 : 각 가정의 마루에서 제사를 지내듯 지낸다.

ㅁ. 祭官 : 심방이 하기도 하고 祭官이 축문을 고하기도 하였으나, 요즘은 심방만 빌어서 하는 곳이 많다.

ㅂ. 금기 : 동네에 장사가 나면 그날 안하고 5일 후 쯤에 한다.

5. 맹 감 제

이것은 칠성제—초감제—맹감제 順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제물은 온 시루떡, 돌래떡, 오물떡, 묵, 바닷고기(조기, 생선, 명태) 등을 쓰는데, 그외 형식은 칠성제와 같다.

이때 제물에는 칼집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통째 그대로 옮긴다고 한다.

이 제(祭)는 4·3사건 이전에는 들(野)에서 지냈으나 그후는 가정에서 지낸다고 한다.

Ⅶ. 其他雜信

생불 도채비 (I)

옛날 젊은 과수가 살았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날마다 살이 빠져갔다. 이것을 보고 동네 할머니가 "늬 무슨 일이 이시냐?" 하고 그 이유를 물으니 젊은 과수 하는 말이, "날마다 밤만 되면 털벙거지 쓴 사람이 와서 잤다 갑니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그거 생불 도채비 닮구나" 라고 생각하여 이것을 물리칠 계략을 짜서 젊은 과수에게 "다시 생불 도채비가 오면 동지섣달에 외가 먹고 싶어 죽겠으니 그것을 가져오면 쫓아내지 않겠다. 하라" 고 일러 주었다. 젊은 과수는 저녁이 되어 털벙거지 쓴 사람이 다시 오자 할머니가 시킨 대로 말했다. 그런데 그 사내는 뒷날 저녁이 되자 오이를 가지고 왔다. 이에 놀란 젊은 과수가, "어떵허난 동지섯달에 외를 가졍 와 집디가?" 하고 물으니, 강남밭에는 오이가 많아서 가져올 수 있었다고 했다. 이래서 쫓을 수 없게 되자, 할머니는 다시 옆집할머니와 방안을 의논하여 과수에게 일러주었다. 저녁이 되어 털벙거지 쓴 사람이 들어오자 젊은 과수는 "옆집 마당을 베어다가 우리

마당에 붙여 놓읍서" 하였다. 이번에는 생불 도채비가 이것을 하지 못하여 물러갔다. 과수가 이 사실을 할머니에게 말을 하자 "그거 정말 생불 도채비로구나"하여 생불 도채비를 완전히 쫓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했다. "백마를 죽여서 말가죽은 올레담에 걸쳐 놓고 말피는 사방에 뿌리면 도채비가 놀래어 들어오지 못하고 달아나니 그렇게 하라" 했다. 이 말을 듣고 젊은 과수는 할머니의 말 그대로 하자, 다시는 털벙거지 쓴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았다 한다.

생불 도채비(Ⅲ)

술이 얼큰하게 취한 사람이 어느 날 밤길을 가는데, 자꾸 말을 걸어 오는 것이 있어 '생불도채비로구나' 생각하여 정신을 차리고 이것을 떼어버릴 궁리를 하였다. 그가 꾀를 생각해 내고 생불도채비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의 아비한테 돈 몇천냥을 꾸어 주었는데 너의 아비는 그것을 갚지 않고 죽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는 나에게 고맙다는 말은 고사하고 도리어 나를 욕보이려 하니 이는 정말 괘씸하구나, 오늘은 너를 사생결단 내야겠다" 하고 엄포를 놓았다. 이 말을 들은 생불도채비는 깜짝 놀래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 이번만 살려 주면 그 빚을 꼭 갚겠다 하면서 사정을 하였다. 그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척 하면서 떼어 버리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밤중이 되자 방문 밖에 덜거덕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생불도채비가 여기까지 따라오지 않았는가 의심하면서도 무서워서 밖을 내다 보지 못했다. 날이 밝아 밖으로 나갈려고 문을 여는데 문을 열 수가 없었다. 부엌문으로 나가 보니 밤사이에 어리석은 생불도채비가 자기 아버지 빚을 갚는다고 갖다 놓은 어마어마한 돈 궤짝들이 쌓여 있었다. 이로 인해 그사람은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다. 이것을 본 동네사람 하나가 어떻게 하여 부자가 되었는가 물으니 그사람은 자기가 겪었던 자초지종을 말해 주었다. 말을 듣고 이 사람도 밤에 술취한 척하여 길에 있다가 그 생불도채비를 만나 먼젓번 사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생불도채비는 죽는 시늉을 하면서 그 빚을 꼭 갚겠다 말하고 사라져 버렸다 이 사람은 '옳지 부자가 되었구나'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다.

오밤중이 되자 아닌게 아니라 밖에서 무거운 짐들이 옮겨지는 소리가 들렸다. 밝기를 기다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려고 하니 방문 앞에 물건이 쌓여 있어 열 수가 없었다. 부엌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니 방문앞에 쌓여진 물건은 돈 궤짝들이 아니라 배를 타고 육지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 물에 빠져 죽은 송장들이었다.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많은 송장들의 영장을 치르었는데 이때 재산을 전부 탕진하여 가난뱅이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유래로 이 생불도채비 들린 사람은 담돌을 닥닥 부딪치면 돌가루 냄새가 나서 도채비가 정신을 못 차리고 도망간다고 하여 이런 방법으로 퇴치했다. 또한 생불도채비를 위해 제물을 차려 놓으면 생불도채비가 버릇이 나서 다시 들린다고 하여 그것을 금기하였다. 그리고 제주도의 말에 '부자 될 사람은 사주를 타고 나야 부자가 된다'는 속담도 전해진다.

北濟州郡 涯月邑 郭支里

地　　名

指導教授 金 洪 植
班　　員 金 貞 烈(國文・3)
李 敬 淑(國文・3)
張 宰 榮(國文・2)

여기서는 郭支里 地域에 속하는 地形의 地名에 限해서 調査했고, 地名은 알아보기 쉽게 대략 地圖에 表示하여 놓았다. 地名의 構成은 대개 ~동산, ~밭, ~왓, ~우영, ~터, ~거리, ~질, ~동네, ~골, ~물, ~못, ~빌레, ~머를, ~돌, ~당, ~오름, ~여, ~개(浦), ~코지, ~수덕, ~낭, ~드르… 등과 같은 接尾辭를 중심으로 分類시켰고 接尾辭가 다른 것은 모두 기타로 넣어 설명하였다.

1. 동 산 類

'동산'은 平地보다 높고 경사가 진 地形을 말한다.

1) 유지낭동산 : '유지낭'이란 '유자나무'의 方言인데, 과거 귤나무가 있었던 동산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 눌루시동산 : '눌우시'로 소가 드러누운 形相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3) 대붕이동산 : '大夫人동산'으로 唐王夫婦가 船遊 왔다가 태풍을 만나 해안에 난파하게 된다. 이때 왕은 죽고 왕비는 홀로 살아남아 매일 이 동산에 나와서 지나쪽을 향하여 울었다고 한다.

4) 절수영동산

5) 진동산 : '진' 이란 '길다' 의 뜻으로 동산이 길다는 데서 이러한 이름이 불리운다.

6) 툰동산 : '툰' 은 '따로 떼어졌다' 는 方言으로 다른 동산에 비하여 사이가 벌어져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7) 알새미동산

8) 오케머를동산

9) 개숭이동산 : 개가 잘 놀던 곳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10) 소동이동산 : 목동이 소를 치던 동산으로 '소동이' 는 곧 '소치는 아이' 를 이른다.

11) 개머를동산

12) 앞동산

13) 숨북동산 : '숨북' 이 많이 자라는 동산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14) 꿩쟁이동산 : ① '꿩쟁이' 는 '꿩사냥꾼' 이라는 方言으로 꿩사냥꾼이 많이 찾아들던 동산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② '꿩지동산' 이라고도 하는데, '꿩지' 는 '꿩의 꼬리' 라는 方言이다.

15) 오전동산 : ① '課顚동산' 으로 사냥꾼이 노루를 쫓다가 지쳐서 엎어진 곳이라는 데서 유래한다. ② '오전(五錢)' 을 주고 산 밭이라는 데서 유래. ③아침에 일하러 가다 보면 한나절이 될 정도로 먼 곳에 위치해 있다는 데서 생겨난 이름이다.

2. 밭 類

1) 엉밭 : 언덕 밑의 밭을 이른다.

2) 광남밭 : '郭南밭' 으로 곽지 남쪽에 위치했다는 데서 생긴 이름이다.

3) 오동밭 : '오동나무' 가 있던 밭이란 데서 생긴 이름이다.

4) 백문밭 : '屛門밭' 으로 과거에 훈련소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5) 물든밭 : 물이 잘 드는 밭이여서 생긴 이름이다.

6) 너븐밭 : '넓다'란 데서 생긴 이름이다.

7) 홍유역밭 : '유역'은 '유학'이란 벼슬이름을 뜻한다. 곧, 홍씨의 밭이란 데서 생긴 이름이다.

8) 배드락밭 : 돌도 많고 빌레(땅 속에 묻혀진 바위)도 많아 '배드락배드락'하여 밭갈기 어렵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9) 가달밭 : '가달'이란 '다리'의 方言으로 '사람의 다리 모양과 비슷하게 생긴 토지'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0) 에운밭 : '에우다'는 '둘러쌓다'라는 뜻의 方言으로, 모래가 많이 날려와 이를 막기 위해 사방을 돌로 쌓았다는 데서 생겨난 이름이다.

11) 흔착밭 : '흔착'은 '하나에서 반쪽'이란 방언으로, 반쪽 밭이여서 생겨난 이름이다.

12) 지픈밭 : '지픈'은 '깊은'의 방언으로, 근처의 밭보다 지형이 조금 낮은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13) 신장밭

14) 숨북밭 : '숨북'이 많이 자라는 밭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15) 셋동밭 : 세 형제 가운데 둘째의 밭이란 뜻이다.

16) 안석밭 : 빌레가 납작납작한 것이 있다는 데서 생긴 이름이다.

17) 개당밭 : 개 한 마리를 주어서 산 밭이란 데서 생긴 이름이다.

18) 하원밭 : ① '花苑밭'으로 꽃밭을 이른다. ② 하급계급이 관할하던 밭이다.

19) 당밭(팟) : '당'이 위치하여 있던 곳의 밭을 이른다.

20) 복쟁이밭

21) 새오름밭 : 큰 오름 곁에 새로이 생긴 밭으로, 오름같이 약간 높게 위치하여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22) 사장밭 : '射場밭'으로 활쏘는 장소였다는 데서 생겨난 이름이다.

23) 답밭 : '답'은 '탑'의 변형된 말로, 탑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4) 맹꽁이밭 : 비가 온 뒤에 물이 잘 고여서 맹꽁이가 잘 우는 밭이란 데서 생겨난 이름이다.

25) 답아진밭 : '탑'이 쌓아 올려져 있었던 곳이라는 데서 생긴 이름이다.

26) 소곰밭

3. 왓 類

"밭(田)"에서 변형된 것으로 修飾要素가 母音이거나 "ㄹ"로 끝났을 때 "왓"으로 쓰인다.

1) 절왓 : 과거 절터였던 밭이란 데서 생겨난 이름이며, 현재 그 증거로 기왓장이 남아 있어 절터였음을 증명한다.

2) 봉수왓 : 봉황새가 집지을 만한 땅이라는 데서 유래한다.

3) 자가왓 : '左'씨가 경작하던 밭을 이른다.

4) 고생이왓 : ①고씨가 살면서 장사했던 밭을 이른다.
②고생원이 경작하던 밭을 이른다.

5) 걱대왓 : '걱대'란 '십자 모양의 나무'를 말하는데, 홍수가 터지지 못하도록 걱대를 세워 놓은 것이 있다는 데서 생겨난 이름이다.

6) 왕돌왓 : '왕돌'은 '큰 돌'이란 뜻으로 큰 돌이 있는 밭을 말한다.

7) 범네왓 : '범씨'가 경작하던 밭을 이른다.

8) 뒷새왓 : 집 뒤에 새로이 경작하게끔 만든 밭을 이른다.

9) 골왓 : ①관가(골)에서 경작하던 밭을 이른다.
②후미지고 골처져서 생긴 이름이다.

10) 안골왓 : 안으로 들어간 밭이란 데서 생겨난 이름이다.

11) 주냉이왓 : '주냉이'는 '지네'의 방언으로 지네 형태의 밭이란 뜻이다.

12) 임지왓 : '기름 찌꺼기'를 가지고 밭을 바꿨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13) 장퉁이왓 : 장군이 대좌하여 인주를 찍던 곳으로, 인주통 모양의 형태를 닮았다는 데서 생긴 이름이다.

14) 조도리왓(조총생이왓)

15) 살래왓 : "살래'는 '찬장'이란 방언으로 '살래 모양으로 층층이 생

겼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16) 우머니왓

17) 족새왓 : 족제비 모양으로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18) 검새왓 : '檢屍왓'으로 죄인을 취조하던 장소라는 데서 생긴 이름이다.

19) 백개왓

20) 광대왓

21) 뽀롱새왓

22) 귀마구리왓

23) 싀미왓 : '싀미'는 '샘'의 방언으로 물이 잘 고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4) 잽시왓 : '잽시'는 '접시'의 방언으로 접시 모양으로 생긴 데서 유래한다.

25) 김개왓 : '김씨'가 경작하던 밭을 이른다.

4. 우 영 類

'우영'이란 집울타리 안이나 바로 곁에 위치한 작은 밭으로 채소 따위를 경작하는 곳을 말한다.

1) 선비장우영 : 현씨가 가꾸던 우영을 말한다.

2) 정굴랑우영

3) 몰뱅이우영 : '말방아'가 옆에 위치하여 있어 생겨난 이름이다.

4) 모살우녕 : '모살'은 '모래'의 방언으로 모래가 많은 우영이란 데서 생긴 이름이다.

5) 섯모살우영 : '섯'은 '서편'이란 뜻으로, 서편에 있는 모래가 많은 우영을 가리킨다.

5. 터 類

'터'란 집이나 어떤 일이 있었던 자리를 말한다.

1) 시구터 : 묵은 집터를 이른다.

2) 능터 : ① '능벼슬'을 가진 양반이 산(묘자리)을 쓴 곳을 이른다. ②당나라 왕이 죽어 묻혀 있는 터를 이른다.

3) 매부리집터

4) 황천이집터 : '황천'이란 사람이 살던 집터였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6. 거 리 類

1) 등틍거리 : 원래 '등돌거리'에서 '등틍거리'로 변한 것으로, 힘 겨루기에 쓰였던 등돌이 있던 거리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2) 새양거리 : '쌍인거리'라 칭하며 인품이 좋지 못한 사람이 살던 곳이라 한다.

3) 비석거리 : '천덕이 비석'이 있어서 붙여진 거리 이름이다.

7. 질 類

'질'은 곧 '길'을 말한다.

1) 사기질 : 네 갈래로 갈려진 길을 이른다.

2) 구린질 : ①귀인질(貴人질). ② '九人'이 처음 그 동네에 살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3) 성질 : 성이 있었던 곳으로 가는 길을 가리킨다.

4) 중질 : '僧路'로,절이 있어 중이 출입하던 길을 가리킨다.

8. 동 네 類

1) 진모살동네 : 모래밭이 동쪽과 서쪽으로 약 500 m 가량 장거리로 펼쳐져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 모믈동네

3) 동모살동네

4) 섯모살동네

5) 옥골동네 : ①감옥이 있었던 동네. ②모양이 구슬 닮았다는 데서 붙

여진 이름이다.

6) 당쿨동네 : '할망당'이 있었던 동네로, '당골동네'에서 생긴 이름이다.

9. 골 類

1) 큰안골
2) 천안골

10. 물 類

'물'은 물이 고이거나 고였던 곳을 일컫는다.

1) 엉덕물 : '큰 돌' 밑에서 나오는 물을 이른다.
2) 고린물
3) 섯물
4) 선두물
5) 남당물 : 남쪽에 있는 당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물을 이른다.
6) 과물
7) ᄆᆞ믈수 : 'ᄆᆞ믈'은 곧 마물(馬水)로,말이 와서 먹는 물을 이른다.

11. 못 類

땅에 물이 고여 있거나, 고여 있었던 곳을 말한다.

1) 답다니못 : 탑이 있었던 자리에 못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2) 빌레못 : 돌 위에 물이 고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 버딜못 : '버드나무'가 사방에 산재하여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2. 빌레 類

'빌레'란 주로 農事를 짓지 못하는 곳인데, 地形은 평탄하고 흙이 덮혀 있지만 岩盤으로 깔려 있는 땅을 말한다.

1) 대추낭빌레 : '대추나무'가 많이 있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여기서 낭은 나무의 방언이다.

2) 지게빌레

3) 엉장이빌레

4) 강생이빌레

5) 천지빌레(빌레천지) : 빌레가 굉장히 많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6) 삼동낭빌레 : '삼동나무'가 있는 빌레를 일컫는다.

7) 촌믈빌레

8) 도깨비빌레

13. 머 롤 類

'머를'이란 오름보다는 훨씬 낮고 평지보다는 높아, 사람이 다니기 불편한 곳을 이른다.

1) 오계머를 : 일명 "검은돍(닭)머를'이라 하며, 이는 '烏鷄'에서 나온 말이다.

2) 신산머를 : '神仙머리'를 닮았다는 데서 생겨난 이름이다.

3) 정머를

4) 꿩이머를 : 꿩형체의 머를.

5) 잣머를 : 작은 돌맹이(자갈)가 모여 있는 머를을 말한다.

14. 돌 類

1) 몰팡돌 : ①말을 타기 위한 디딤돌. ②말발굽 모양으로 패여 있는 돌.

2) 알지방돌 : 밭 중간에 '지방' 형태의 돌로 된 턱이 있어, 이를 경계로 아랫쪽을 알지방돌, 윗쪽을 웃지방돌이라 한다.

3) 가린돌 : 돌이 두 갈래로 나눠진 모양에서 생겨난 이름이다.

4) 구븐돌 : 굽은 모양의 돌 형상으로 생겼다는 데서 나온 이름이다.

5) 절수영팡돌 : 절에 가다가 쉬는 위치에 놓여 있는 큰 돌로, '팡'이란 말을 타고 내리거나 짐을 지고 부리거나 할 적에 대(臺)가 되게끔 넓적한 큰 돌 따위로 놓은 것을 말한다.

15. 당 類

1) 할망당
2) 하르방당
3) 남당

16. 오름 類

'오름'이란 아주 자그마한 산을 일컫는다.

1) 큰오름·셋오름·말젯오름 : 연이은 세 개의 오름을 삼형제에 빗대어서 붙여진 명칭으로, '큰오름'은 '과오름'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곽지오름'에서 생겨난 이름이며, 혹은 곽지에 일어난 해일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을 때 이 오름의 끝부분에 곽(상자) 모양만큼이 물에 잠기지 않았다고 해서 생겨난 이름이라고도 한다.

2) 새오름 : 농지 곁에 새로이 생긴 오름을 이른다.

3) 등여오름 : 과오름의 마지막 끝부근으로 우마(牛馬)의 등같이 생겼다는 데서 유래한다.

4) 개약쉐오름

17. 여 類

'여'는 '코지'(19. 코지類 참조)와 비슷하긴 하지만 바닷물 속에 岩盤이 깔려 있는 곳을 말한다. 밀물일 때는 물 속에 잠겨 있지만 썰물일 때는 물 위에 나타나기도 한다.

1) 구쟁기여 : '구쟁기'는 '소라'의 방언으로, 구쟁기 모양을 닮았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2) 단지여 : 단지 모양으로 가운데가 비어 있는 여를 가리킨다.

3) 질수여 : 潛水(물질) 하다가 쉬는 여를 이른다.

4) 시리여 : '시리'는 '시루'의 방언으로, 시루 모양을 닮았다는 데서 생겨난 이름이다.

5) 무너

6) 툰너 : 다른 여에 비하여 따로 떨어져 있다는 데서 생겨난 이름이다.

18. 개(浦)類

1) 태드린개 : ①뗏목(태)이 몰려 들어오는 개. ②바람이 불면 이 곳에 태를 매어 놓았다는 데서 생긴 이름이다.

2) 색경개 : ①색경이란 사람이 개를 이용하기 시작한 데서 생겨난 이름 ②돌이 많이 쌓인 개라는 뜻.

19. 코지 類

'코지'란 陸地와 連結되어서 바다쪽으로 길게 뻗어 나간 곳을 이르는 말인데, 바위들이 물 위에 나타나 있다.

1) 보섭코지 : 지형이 보섭(쟁기의 앞) 형체를 닮았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2) 궤기지름코지 : 떼지은 고기가 코지에 많이 거치게 되어서 생겨난 이름이다.

3) 상코지 : '上코지'로 곽지에서 제일 위에 있는 코지를 이른다.

20. 수덕 類

'수덕'은 숲의 방언이다.

1) 복수수덕

2) 압개수덕 : 앞개에 있는 숲을 이른다.

21. 낭 類

'낭'은 '나무'의 방언이다.

1) 정머를폭낭

2) 답다니퐁낭

3) 등틍거리퐁낭

22. 드르 類

'드르'는 '들'의 뜻이고 넓게는 '동네'라는 뜻도 된다.

1) 정머를드르

2) 고산드르

23. 기 타

관문 : 곽지현(곽지리)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첫 길목의 밭 이름이다.

송쉐미 : ①松池. ②송씨가 쉐미(샘)를 팠다는 데서 나온 말로 주변에 있는 밭을 송쉐미밭이라 부르기도 한다.

솟바리 : 화덕 형태로 세 개의 돌이 솟아 있는 데서 나온 말로, '바리'는 '발'을 말한다.

장퉁이 : 장군이 대좌하여 인주를 찍을 만한 장소에 인주통같이 생긴 돌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귓뿌리 : '뿌리'는 '볼'의 뜻으로, 귓볼같이 생긴 돌의 이름이다.

몰머리혹 : '몰'은 '말'의 방언으로 말머리 모양의 큰 돌이 혹같이 튀어나와 있는 데서 생긴 이름이다.

소로기통 : 암석 위에 소로기(매)가 잘 앉아서 둥지를 틀었다는 데서 생긴 이름이다.

소언 : '소원'으로 자그마한 원 모양으로 천연석이 둘러진 여를 이른다.

골채어음

조개철 : 때에 따라 대합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는 데서 생겨난 이름이다.

갯맛 : '맛'은 '곁이나 근처'라는 뜻으로 개(浦) 밑(근처)을 이른다.

배너리 : 배를 만들어서 내려놓았던 곳을 이른다.

돗드루 : 'ᄃᆞ루'는 '자그마한 밭하나'를 이르는데, 이는 돼지만큼 작은 밭이라는 뜻이다.

득술 : '득술'이란 '말갈기'를 말하며, 밭 모양이 득술 닮아서 생겨난 이름이다.

오로콤 : '오로'는 '오소리'의 방언으로 오소리가 많이 산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안이

개불숭이

압은쟁이

검블랑숭이

투수

압개 : '오리압(鴨)', '닭계(鷄)'를 칭하는 것으로 그 형체가 오리도 닮고 닭도 닮았다는 데서 유래된 밭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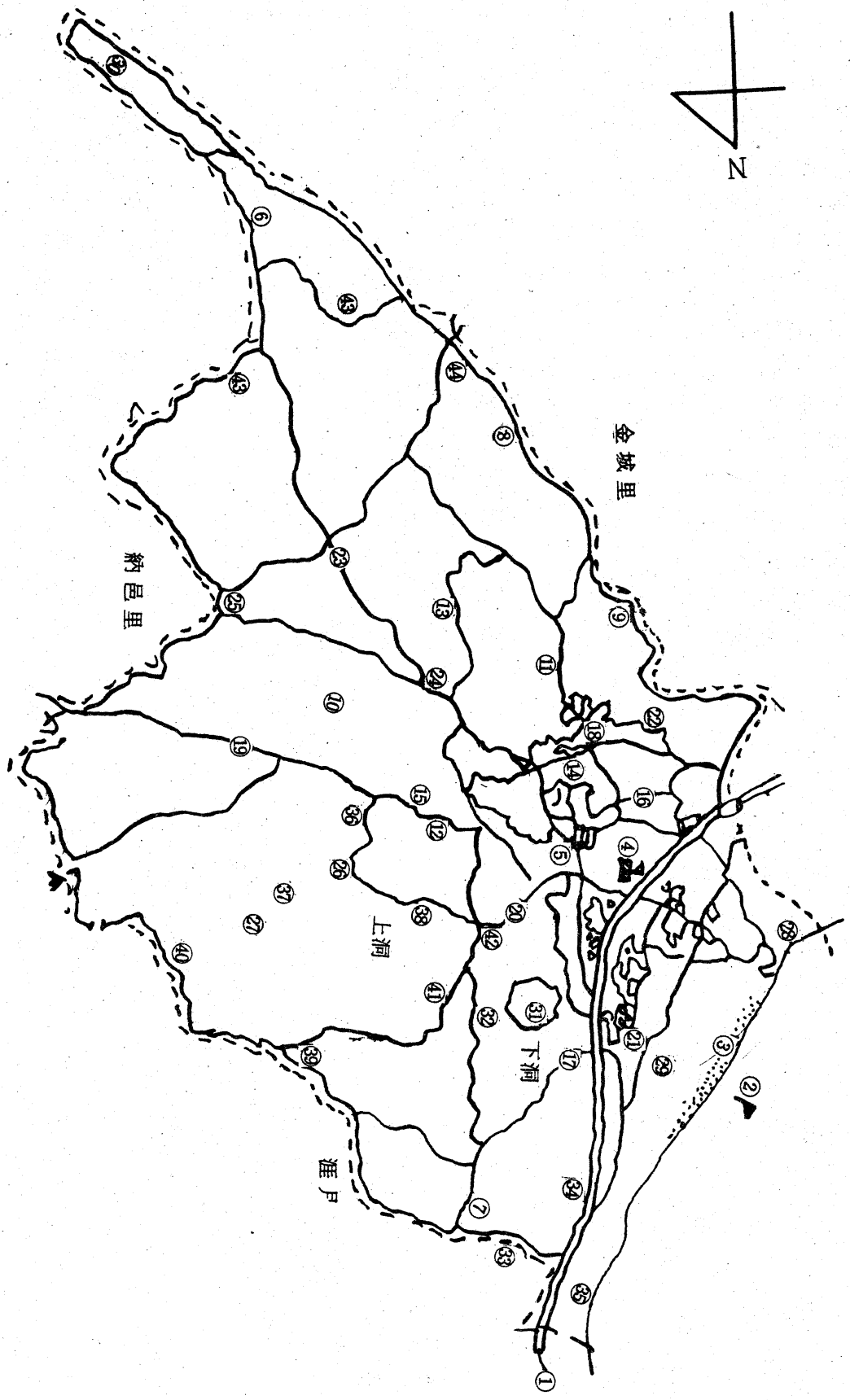
옥ᄃᆞ루

해야미 : 바다에 있는 게의 등을 닮아서 생겨난 밭 이름이다.

불미땅 : 불미(풀무)하던 사람이 살던 터를 이른다.

〈提報者〉 장 병 언 (남・45)
최 종 실 (남・35)
장 권 하 (남・79)
김 관 식 (남・54)
문 어 형 (여・80)
장 두 신 (남・51)
좌 석 년 (남・51)
최 인 백 (남・77)

北濟州郡　涯月邑　郭支里



① 일주도로
② 곽지해수욕장
③ 진모살
④ 국민학교
⑤ 리사무소
⑥ 오전동산
⑦ 유지낭동산
⑧ 진동산
⑨ 엉밭
⑩ 광남밭
⑪ 너븐밭
⑫ 봉수왓
⑬ 살레왓
⑭ 왕돌왓
⑮ 새양거리
⑯ 등틍거리
⑰ 사기질
⑱ 구린질
⑲ 성질
⑳ 중질
㉑ 엉덕물
㉒ 답다니못
㉓ 버딜못
㉔ 몰팡돌
㉕ 알지방돌
㉖ 새오름
㉗ 과오름
㉘ 색경개
㉙ 믁물
㉚ 보섭코지
㉛ 관문
㉜ 송석미
㉝ 지게빌레
㉞ 솟바리
㉟ 조개철
㊱ 돗드루
㊲ 공동묘지
㊳ 귓뿌리
㊴ 족은압개
㊵ 큰압개
㊶ 할망당
㊷ 시구터
㊸ 해야미
㊹ 섯머을

北濟州郡 涯月邑 郭支里

遺　　跡

李 青 圭
(濟州大史學科 敎授)

目　　次

Ⅰ.1979년 발굴지점(제Ⅱ지구)
Ⅱ.1984년 발굴지점(제Ⅲ지구)
Ⅲ.1985년 발굴지점(제Ⅳ지구)
Ⅳ.1989년 발굴지점(제Ⅴ, Ⅵ지구)

유적의 분포범위는 동쪽으로 郭支里의 郭錦국민학교에서 서쪽으로는 錦城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북쪽으로 해안일주도로변에서 남쪽으로 곽지리 윗마을을 포함한 동서 1㎞, 남북 0.5㎞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있는데, 패총지대와 유물산포지가 섞여 있다. (지도 1, 2 : 사진 1, 2)

이 지역은 土層의 두께가 제주도내에서 가장 두터운 지역중의 하나로서 경작에 유리하며, 앞서 말한 錦城川이 유적 가까이에 있고, 해안지대를 포함하여 湧泉水가 잘 발달한 지역이므로 取水가 용이하다.

그 뿐만 아니라 해안과의 거리가 불과 0.5-0.8㎞ 정도에 불과한 해발 30-40미터의 낮은 구릉지대로서 어로생활에 보다 용이한 바, 이러한 여러 좋은 입지조건 때문에 일찍부터 큰 취락이 형성되었고 그래서 제주도내에서 가장 넓은 유적지대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현재 유적의 대부분은 경작지로 되어 있으며 그 중 貝塚에 대해서는 1973년 宋錫範씨와 일본의 江坂輝彌교수가 처음 발견하였고, 그후 1979년, 1984년,

1985년, 1989년 각기 다른 지점에서 濟州大學校博物館이 발굴 조사한 바 있다.

여기서는 앞서 말한 濟州大學校博物館의 네차례에 걸친 발굴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각 지점별로 유적 유물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1979년 발굴지점 (제Ⅱ지구) (사진 3)

1. 유 적

李白圭가 발굴하였으며 郭支里 2070번지 (제Ⅰ지구)와 2091번지 (제Ⅱ지구) 두지점을 발굴하였는데, 그 중 2091번지 제Ⅱ지구에서 4개의 層位를 확인하고, 청동기시대 말에서 철기시대에 이르는 다량의 유물을 수집하였다. 그 층위는 다음과 같다.

1) 제1층

포토층으로서 지하 20-30㎝까지이며 경작으로 인해 교란된 층위이다. 일부 동물뼈와 조개류가 혼입되었다.

2) 제2층

지하 60-80㎝까지이며 그 두께는 40-50㎝에 이른다. 많은양의 조개, 동물뼈와 검은 부식토가 혼합된 混土貝層으로서, 이 층위에서 대부분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3) 제3층

50-60㎝의 두께를 가진 黑褐色 부식토층으로 조개의 양은 현저하게 줄어 들었다. 지하 80-130㎝의 범위에 있으며, 출토유물 또한 2층에 비해 격감하고 있다.

4) 제4층

30㎝내외의 두께를 가진 黃褐色 土層으로서 지하 130-160㎝ 범위에 있는 最河層이다. 조개는 거의 없으며 토기유물의 작은 파편이 적은 양 출토할 뿐이다. 이 아래층은 황갈색 생토층이다.

2. 유 물

여기서는 同지점의 시기적 성격을 잘 나타내주는 무문토기 및 석기유물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공렬 및 골아가리 토기

맨 아랫층인 4층과 3층에서 출토한 것으로 입술면에 톱날장식이 있거나 口緣部에 고렬장식이 가해진 것으로 上摹里 유적의 같은 형식의 토기에 비해 태토의 두께가 두텁고 단단하며, 톱날 및 공렬장식이 간략화된 인상이다.

① (그림 1-1 : 사진 9-1)

안으로 휘인 직립구연의 深鉢形土器 口緣部로서 그릇 겉면에 위아래 방향으로 빗질 정면한 자국이 뚜렷이 남아 있다. 구연부에 바깥에서 얕게 뚫은 공렬장식이 있고, 입술면에는 톱날장식이 가해져 있다. 입지름 31.2㎝, 두께 1㎝

② (그림 1-2 : 사진 9-2)

역시 직립구연에 빗질정면한 深鉢形 土器 口緣部로서 입술면에 톱날장식만이 가해진 골아가리 토기이다. 입지름 20㎝, 두께 1㎝

③ (그림 1-3 : 사진 9-4)

外反口緣의 항아리 목부분으로 입술면에 톱날장식이 있다. 입지름 17.4㎝, 두께 1.1㎝

④ (그림 1-4 : 사진 9-3)

역시 외반구연의 목부분으로 입술부분의 톱날장식과 아울러, 그 아래 안쪽면으로 공렬장식이 가해진 것이다.

上摹里 유적에서도 볼 수 있는 例로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남한지방의 이 시대 무문토기 항아리에는 골아가리 토기 뿐인 점과 대조가 된다. 두께 1.1㎝

2) 外反口綠 항아리 토기 (그림 2 : 사진 9-5, 6)

김해식 토기편이 공반출토하여 철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1,2층에서 출토한 무문토기로 同층위 출토토기는 거의 대부분이 이와 동일한 형식을 이루는데, 여기서는 完形土器 2점만 소개한다.

크게 벌어진 구연부와 바닥에 비해 훨씬 넓은 입지름, 胴體部 상단에 형성된 팽창된 어깨, 축약현상 없이 이어지는 胴體部와 바닥의 접합면, 그리고 두텁고 거칠며 단단한 태토가 특징적인 적갈색 무문토기로 철기시대 제주도 전역의 토기가 이와 같아. 濟州島式 혹은 郭支式 外反口綠 무문토기 항아리라고 불러도 좋을 만하다.

물론 같은 시기에 남한지방, 특히 북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이와 비슷한 무문토기가 성행하여 中島式이라고 부를 정도이지만, 그와는 태토의 두께, 硬度, 바닥의 형태등에 있어서 서로 지역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각각 크기는 입지름 23.2, 13.6㎝, 높이 32, 17.5㎝, 두께 1.3, 1.2㎝

3) 石　　器

출토된 磨製石器의 양은 극히 적으며, 석기의 대부분이 제분용 공이, 갈판, 갈돌과 어로도구인 어망추로서 많은 수가 현무암제이다.

① (그림 3-1 : 사진 14-1)

전형적인 조갯날도끼로서 제주도産 粗面岩製로 도끼 전체표면을 곰보처럼 쪼아서 성형하였고 날부분은 정연하게 갈았다. 머리부분은 부러져 없어지고 횡단면은 납작한 타원형을 이룬다.

현재길이 9㎝, 폭 8㎝, 두께 4㎝

② (그림 3-2 : 사진 14-3)

염기성맥암製로 날부분을 포함해서 마연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떼기 및 쪼으기 수법으로만 성형하였다. 길이 9㎝, 폭 8㎝, 두께 4㎝

③ (그림 3-3 : 사진 14-4)

전면을 쪼으기 잔다듬하였고, 타격면은 장축에 대해 비스듬히 갈아서 만든 공이(여石) 이다.

길이 11㎝, 폭 6.5㎝, 두께 4㎝

④ (그림 3-4 : 사진 14-2)

제주도産 安山岩製로 넓적두툼한 몽돌로 위 아래끝 모두를 타격면으로 이용하였으나 주로 아랫面을 사용하였다. 길이 9.5㎝, 폭 8.5㎝, 현재두께 3.5㎝

⑤ (그림 3-5,6 : 사진 14-6,7)

작은 공이와 이와 짝을 이루는 홈돌(석)로서, 공이 길이 9.4㎝, 폭 4.3㎝, 홈돌크기 11.3㎝ 8.6㎝, 두께 3.3㎝이다.

⑥ (그림 3-7 : 사진 14-5)

현무암돌의 한가운데를 양면에서 움푹 파내어 만든 어망추이다. 길이 11㎝, 폭 9㎝, 두께 4.2㎝

4) 骨角器 기타

토기 유물에 비해 골각기의 출토량은 남해안지방의 다른 패총유적과 비교하여 적은 편이고 또한 다양하지 못하다.

① (그림 4-1 : 사진 16-4,5)

사슴뿔을 절단하여 뿌리끝을 납작하게 칼질하여 다듬은 것으로 용도는 확실치 않다. 길이 17㎝ 내외.

② (그림 4-3 : 사진 16-3)

사슴뿔을 절단하여 다듬은 것인데 속이 비어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알려진 칼자루는 아니다. 길이 8.2㎝

③ (그림 4-4,5 : 사진 16-1,2)

끝을 뾰족하게 다듬은 골각기로 사슴의 뿔과 다리뼈를 이용해서 만든 것으로 그림 4-5는 전복등의 조개를 따는데 사용했으리라 추정이 되는 것이다. 길이 10.6㎝, 15.2㎝

④ (그림 4-8, 9, 10, 11 : 사진 16-8, 9, 10, 11)

4-9, 11은 Ⅱ지구 층위에서 출토한 土製模造 曲玉이고, 4-8은 石製模造曲玉과 유리제 곡옥으로 표토채집품이다.

유리제 곡옥의 머리에는 3줄기의 가로 홈이 나 있는데, 南韓의 중심문화권과 교역을 한 증거물로서 중요하다. 현재길이 2.2-3㎝

Ⅱ. 1984년 발굴지점 (제Ⅲ지구) (사진 4)

1. 유 적

1984년 李淸圭에 의해 발굴된 郭支里 2019번지의 경작지를 말하며 층위는 역시 4개 층위로 구분된다. 이 지점의 연대는 출토유물로 보아 Ⅱ지구보다 늦은 것으로 대체로 三國時代 이후의 것으로 파악된다.

층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1층

표토층으로서 지하 15-25㎝까지이며 앞서 Ⅱ지구와 마찬가지로 경작으로 인해 교란된 층위이다. 원래 조개 및 동물뼈의 퇴적은 이 층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② 제2층

지표아래 45-65㎝까지로 층위 두께는 25-45㎝이며, 조개 및 동물뼈의 혼입량이 가장 많은 흑갈색 토층이다. 유물 출토량도 이 층위에서 가장 많다.

③ 제3층

지표아래 85-97㎝로서 두께는 25-43㎝정도인 混土貝層이다. 2층보다 유물 출토량은 적은편이나 2층과 함께 Ⅲ지구를 대표하는 층위가 되겠다.

④ 제4층

지표아래 100-117㎝까지로 18-37㎝의 두께를 갖고 있으며, 다소 밝은 황갈색 사질토양으로 극히 작은 파편의 토기유물 수점만이 출토되었다.

2. 유　　물(그림 5 : 사진 10)

이 지점에서는 삼국시대 陶質土器가 출토하며, 이와 공반하여 전통적인 무문토기 계통인 적갈색을 띤 深鉢形土器가 다량 출토한다. 이 토기는 다른 지방에 없는 독특한 형식으로 완전한 濟州島式이라 할 수 있겠으며, 앞서 廣口外反口緣이　제주도 철기시대의 標識遺物이라고 한다면, 同 深鉢形土器는 三國時代의 標識遺物로 삼을 만 하나, 구체적인 시기 판정은 금후의 연구 과제이다. 이 토기의 속성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口緣部의 外反度는 철기시대 무문토기 항아리보다 훨씬 작고, 바닥지름과 입지름이 거의 같으며 동체부의 최대지름이 높이의 중간 쯤에 위치하며 보다 안정된 감을 준다.

태토 또한 보다 정선된 점토이고, 겉면을 매끈하게 다듬었으며, 슬립을 입혀서인지 몰라도 태토의 안과 속이 거의 구분된다. 전반적으로 색깔이 짙어서 暗赤褐色을 띠고 더욱 단단하여 토기를 구워 내는 燒成度는 이제 무문토기를 훨씬 지난 改良形이다.

그뿐만 아니라 태토의 두께는 훨씬 고르고 얇아져, 가장 두터운 동체부의 두께는 0.8㎝내외이다. 또한 구연부를 成形할 때 초보적인 회전받침을 이용한 흔적이 보이는 등 제작수법은 전반적으로 廣口外反口緣이 無文土器보다 발전된 양상을 보인다.

이 토기에는 그릇 겉면에 끓일때 음식물 액체가 흘러 시꺼멓게 탄화된 흔적을 보이는 예가 많아, 이 토기형식은 음식물을 끓이는 일정한 용도에 국한해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5-1) 높이 28㎝, 입지름 13.4㎝, 바닥지름 13.7㎝
(그림 5-2) 높이 8㎝, 입지름 7.1㎝, 바닥지름 6.6㎝
(그림 5-3) 높이 8.7㎝, 입지름 8.6㎝, 바닥지름 8.6㎝
(그림 5-4) 높이 19.4㎝, 입지름 11㎝, 바닥지름 11.1㎝
(그림 5-5) 높이 22.6㎝, 입지름 12㎝, 바닥지름 12.6㎝

Ⅲ. 1985년 발굴지점 (제Ⅳ지구)

1. 유　　적(사진 5, 6, 7, 8)

곽지신용협도조합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공사중에 貝塚을 발견하여 긴급구제발굴을 하게된 지점이다.

원래 이곳은 경작지로서 地表下 130㎝까지 패각층을 이루고 있는데, 4개층위로 구분되나 제Ⅲ지구처럼 거의 한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패각층 밑의 바닥은 북쪽이 다소 낮은 경사면을 이루고 있고, 보다 경사도가 남쪽편에서 1기의 石槨墓가 발견되었다. (그림 6)

石槨墓는 큼직한 割石을 2-3단 쌓아 벽을 만든 다음, 주위를 積石한 것으로 불규칙한 장방형을 이루고 있다.

장축은 북동 남서 방향을 가리키며, 길이 230㎝, 폭 50㎝, 깊이 30㎝ 정도의 細長한 석곽묘로서 북동쪽 벽끝에서 30㎝ 떨어져 큰 川石 수매로 구획하여 빈공간을 남기었으며, 이곳은 석곽묘 중간의 적석 바닥 보다 10㎝정도 낮았다. 이러한 공간은 남동쪽 끝에도 보이며, 석곽묘 상부는 3-4매의 不定形 割石으로 뚜껑을 하였다. 이곳에서의 출토유물은 적갈색 토기유물 뿐으로 副葬品으로 인정할만한 것은 없었다.

2. 유　　물

여기 제Ⅳ지구 패총에서 다량의 토기 유물과 조개, 동물뼈가 수습되었는데, 토기는 기본적으로 1984년 발굴의 제Ⅲ지구와 비슷하다.

1) 赤褐色 硬質 土器

① (그림 7-1, 2, 3, 4 : 사진 11-1, 2, 3, 4)

Ⅲ지구 출토 적갈색 경질의 深鉢形土器와 같은 형식의 구연부편이다.

② (그림 7-5, 6 : 사진 11-5, 6)

역시 곽지패총 Ⅲ지구 출토 토기뚜껑과 같은 형식으로 원판형 뚜껑에 둥근 원형꼭지가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직경 16, 7.7㎝, 두께 2.1, 1.2㎝

2) 陶質土器

新羅, 伽倻地方에서 성행하는 高杯형식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百濟 後期土器에서 보이는 盤口甁 스타일의 口綠部와 팽창된 어깨를 가진 토기형식이 보인다.

이 陶質土器가 앞서의 적갈색 토기와 공반출토 되므로 후자의 시기 소속을 분명히 할 수가 있으며, 금후 이 측면에서의 연구가 기대가 된다.

① (그림 8-1, 2, 5, 6 : 사진 12-1, 3, 4, 5)

口綠部 下端에 턱이 지고 입술면 가장자리에 한 두줄의 홈이 있으며 목부분이 급하게 움츠러들다가 어깨가 크게 팽창되는 土器形式이다. 목과 어깨의 경계에 突起線이 한줄 혹은 두줄이 있다. 입지름 6.1-10.3㎝

② (그림 8-3 : 사진 12-6)

크게 밖으로 벌어진 長頸이 구연부편으로 목 上端에 二重突起가 있다. 입지름 18.7㎝

③ (그림 8-4 : 사진 12-2)

좁고 긴 목부분에 여러 줄의 홈이 돌려 있는 甁形土器片이다. 목지름 4㎝

④ (그림 8-7, 8, 9, 10, 11 : 사진 12-7, 8, 9. 및 13-4, 5, 6)

낮은 굽이 있거나 평평한 바닥의 底部片으로 統一新羅때 성행한 형식이다. 바닥지름 8.6-12.3㎝

⑤ (사진 12-10)

胴體部에 굵고 납작한 突帶線이 있는 것으로 百濟末期 統一新羅初에 보이는 예이다.

⑥ (사진 13-1, 2, 3)

역시 三國時代末 이후에나 보이는 변형된 陰刻密集波行曲線무늬가 장식된 토기편으로 古新羅土器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밀집파행곡선 무늬와는 한눈에 차이가 난다.

3) 철제유물

① (그림 9-1 : 사진 15-1)

자귀모양의 도끼로 횡단면 사다리꼴 모양의 소켓트를 가졌고 도끼몸 가장자리와 한 가운데에 突起線이 있다. 현재길이 16.3㎝, 폭 7.6㎝, 두께 2.3㎝

② (그림 9-2, 3, 4, 5 : 사진 15-4, 5, 7, 8)

칼몸이 일직선으로 된 刀子로 자루부분의 횡단면은 장방형이다. 길이 8.8-24.7㎝, 폭 0.9-3㎝

③ (그림 9-6 : 사진 15-6)

앞서와는 달리 칼끝이 크게 휘어진 刀子이다. 길이 18㎝, 폭 2.6㎝

④ (그림 9-7 : 사진 15-3)

삼각형의 鐵身 下端이 양쪽으로 돌출된 兩翼形 有莖式 화살촉이다. 길이 8.3㎝, 두께 0.8㎝

⑤ (그림 9-8 : 사진 15-2)

鐵身은 횡단면이 볼록렌즈모양인 버들잎形으로, 2段으로 된 莖部를 갖고 있다. 길이 9.7㎝, 鐵身幅 1.4㎝, 두께 0.3㎝

4) 기타유물

① (그림 7-7, 8 : 사진 11-7, 8)

원판모양의 土製紡錘車로 직경 3.9, 4㎝, 두께 1.2, 2.2㎝이다.

② (그림 4-2)

사슴뿔을 끝부분은 날카롭게, 뿌리부분은 납작하게 칼질한 것으로 같은 형식의 골각기가 Ⅱ지구에서 출토한 바 있다. 길이 22.8㎝

③ (그림 4-7, 8 : 사진 16-7)

管玉으로 길이 5.3㎝ 직경 2.1㎝이다.

Ⅳ. 1989년 발굴지점 (제 Ⅴ, Ⅵ지구) (사진 17-20)

1989년의 郭支里 유적 발굴은 북제주군에서 시행하는 곽지-어음간 폭 12m 도로 공사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 양쪽의 유물포함층이 깎여나가는 상황에서 실시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로 공사구간을 확정하고 주민들로부터 토지 매입이 끝나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될 즈음에, 주민들이 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경작토를 이용할 목적으로 파헤치게 됨으로써, 긴급 구제 발굴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구간은 지난 1986년 제주대학교박물관의 지표조사를 통해 다량의 매장유물이 부존되어 있으리라 예상되어, 제주도 당국에 사적지 지정과 중요 관리구역으로 건의한 바 있는 것이다. 지상에 드러난 유물의 출토상황과 조사기간을 고려하여, 2개 지점만을 선택하여 소규모 핏트 발굴 조사를 하였다. 조사의 기대 목적은 기왕에 훼손된 구간을 포함한 인근 범위의 유적 성격을 파악하여 장래의 발굴 및 보존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그 2개 지점 중 1개 지점으로 앞서 1973년 江坂輝彌 교수가 패총의 퇴적 상태를 처음 발견 확인하고, 1984년 전주공사에서 2점의 完形 무문토기가 수습되었던 장소와 바로 붙은 필지의 밭 지점이다. 또한 이 지점은 1985년 유리제 曲玉 1점을 지표에서 수습한 지점이기도 하다.

이미 도로 연변을 따라 깎여 나간 길이 15m의 단면을 수직으로 다듬어 그 층위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그 층위 단면에서 노출된 5점의 完形 무문토기가 있는 구역에 2x2m의 방형 핏트를 구획하여 발굴하였다. 유물포함층은 경작표토층 바로 밑에서 드러났는데, 패총의 퇴적층이 아니고, 극히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토기 集落群이었다. 遺構의 범위는 동서 3m, 남북 2.5m로 南高 北低東高 西低의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적갈색 토기 수십점이 겹겹히 쌓여 있

었다.

토기는 퇴적층의 압력에 눌려 깨어져 있었지만, 完形 복원 가능한 것이 그 대부분이다. 야외 가마일 가능성을 생각하여 바닥면에 특별한 시설이 있는가 여부를 살펴보았으나, 보통 가마터에서 기대되는 불에 구워져 단단하게 된 층도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토기 燒成의 증거로 필요한 검은 목탄재도 확인되지 않았다. 토기가 매립된 주위로 별다른 시설도 없었으며, 더우기 출토된 完形 토기내에 유기물질이 부착되어 있음을 볼때, 이 遺構가 가마터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完形의 토기를 이렇게 무더기로 쌓은 것에 특정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발굴조사 현장에서의 단기간적이고 육안적 관찰을 통해서 아무런 해석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토기 集落群의 예는 1978년 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경북 월성군 현곡면 金丈二里의 勤島一群谷里식 토기군의 유적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다. 다만 그 유적과 틀리는 것은 그 유적에서는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비하여, 이번 곽지 유적의 경우는 그 대부분이 完形 토기라는 점이다. 장래 비슷한 양상의 유적 발견례를 기다려 비교 검토될 때, 이러한 토기군 유적의 성격에 대해 보다 사실에 접근한 이해가 가능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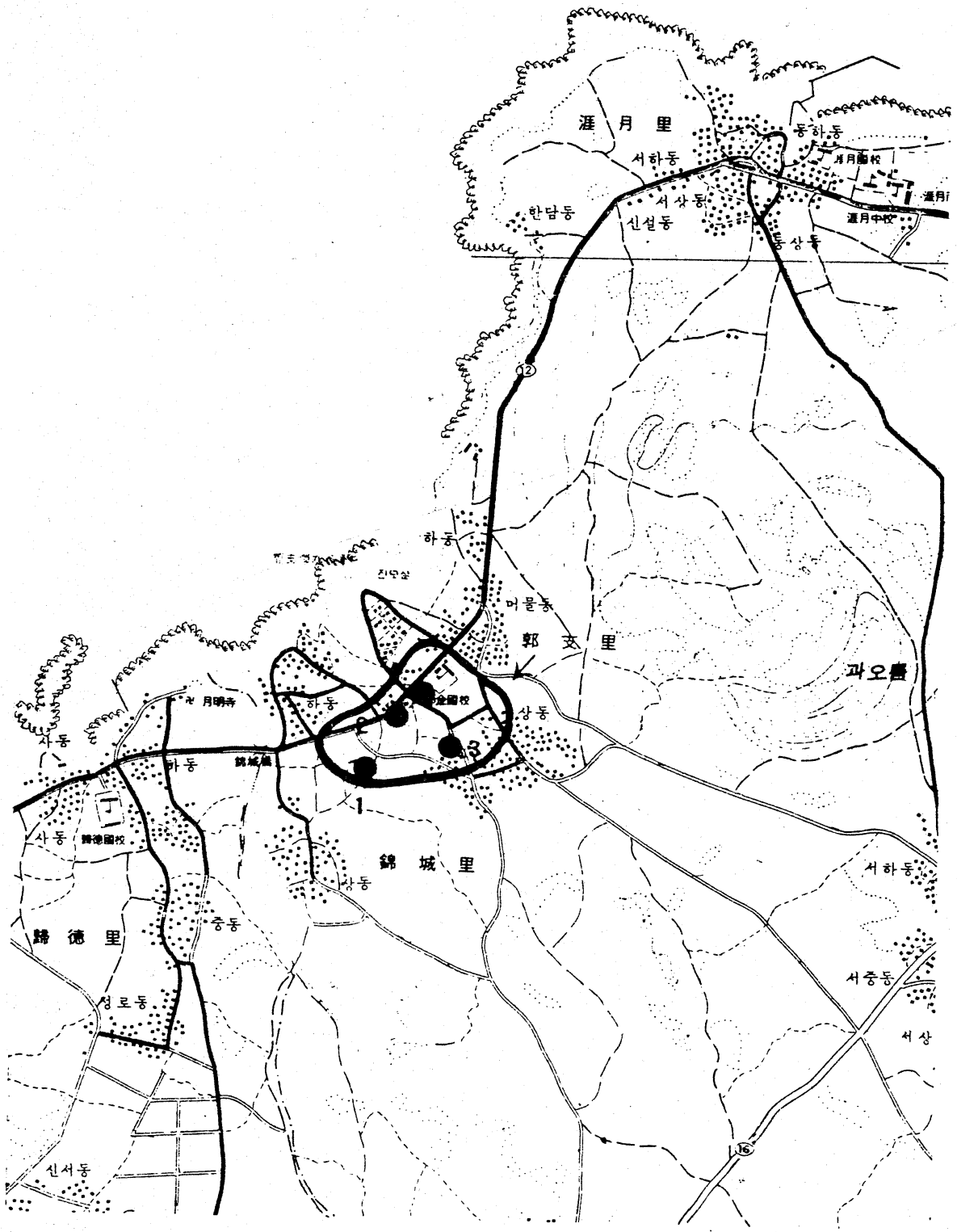
유적의 성격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지만, 이 유적의 토기工作이 극히 짧은 단기간에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제주도 토기유물복합군을 아는 標識的 유적이 되겠다.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原三國期 토기군의 양상을 알려주는 유적으로 지난 1979년 李白圭 교수가 발굴한 곽지 패총 2지구와 1984년 제주대 박물관에서 발굴한 제주시 龍潭洞 북구역 甕棺 유적의 예가 있다. 전자의 경우 完形의 예가 드물어, 확인된 器形이 한정적이며, 시간의 폭을 가름하기가 어렵고, 후자의 경우는 독무덤으로 사용된 壺形토기 형식만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그 아래층에 말기 공렬토기층이 연결되어 있고, 打捺무늬 軟質 토기가 공반되며, 후자에서는 다량의 漢代 철제품이 부장되어, 이 단계가 제주도에서는 공렬토기문화층에 바로 이어 타날 무늬와질토기와 한대 철기 유물과 동일 시기라는 것을 알게 하였다.

금번의 발굴에서 器形上으로 이전에 확인되지 않았던 맥주컵형토기, 鉢形토기, 소형 토기 등이 출토되어, 원삼국시대의 제주도 토기 공작을 분명하게 하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器形은 전형적인 곽지 A식 토기로서 廣口外反口綠 壺形土器라는 지난번 양상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이른바 타날무늬 와질 혹은 연질의 회백색토기는 2점의 파편만 출토되어, 이시대 제주도 지방에서는 이 종류의 토기가 극히 예외적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출토 토기의 대부분을 크기에 관계 없이 무문토기 전통의 적갈색 광구외반구연의 항아리가 차지하고 있는 器種의 획일적 현상을 단순히 제주도 이 시대의 토기문화의 특성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검토해 들어갈 때, 그러한 현상을 배태하게 한 이유 혹은 원인이 무엇일까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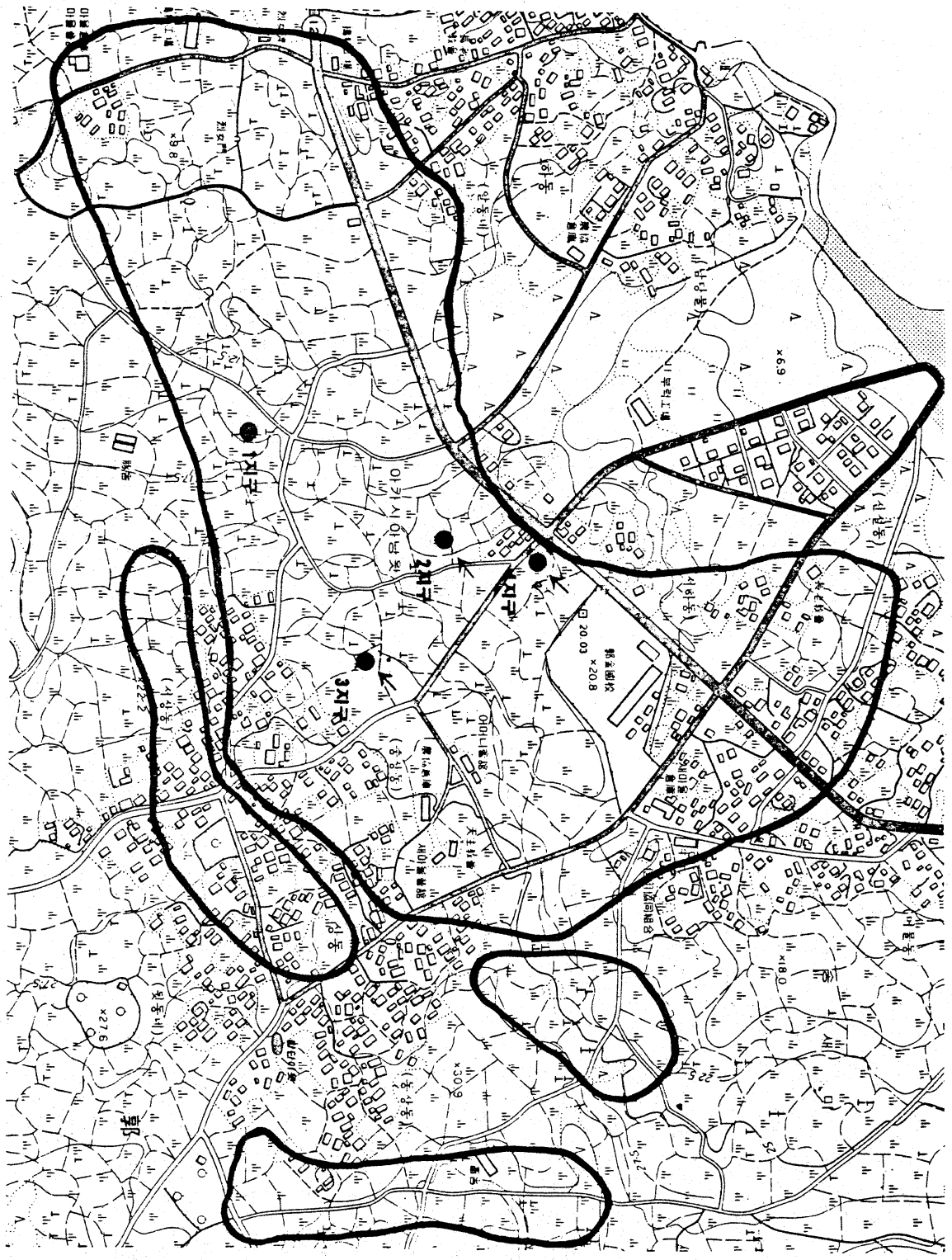
음식을 만들고 저장하고 먹고 마시는데 사용하는 그릇으로 흙으로 빚어 만든 토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제주도 지방에 근래에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다양한 木器 종류를 염두에 두면, 먹고 마시는 食器로서는 나무로 만든 그릇, 木器를 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원삼국시대 제주도 토기 器種의 획일적인 현상은 다음 단계인 삼국시대 이후의 곽지 B식 토기 군에서도 확인되는 데, 비슷한 시기의 남한 지방 삼국의 토기 기종의 다양성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정황로 미루어 제주도 선사 혹은 역사 초기에 나무로 만든 목기가 육지부 지방보다 더욱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동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 보고서로 미루고자 한다.



(지도 1) 郭支里 貝塚 및 유물산포지 위치

北濟州郡 涯月邑 郭支里



(지도 2) 郭支里 貝塚 및 유물산포지 위치



〈사진 1〉 郭支里 유적 전경(1)



〈사진 2〉 郭支里 유적 전경(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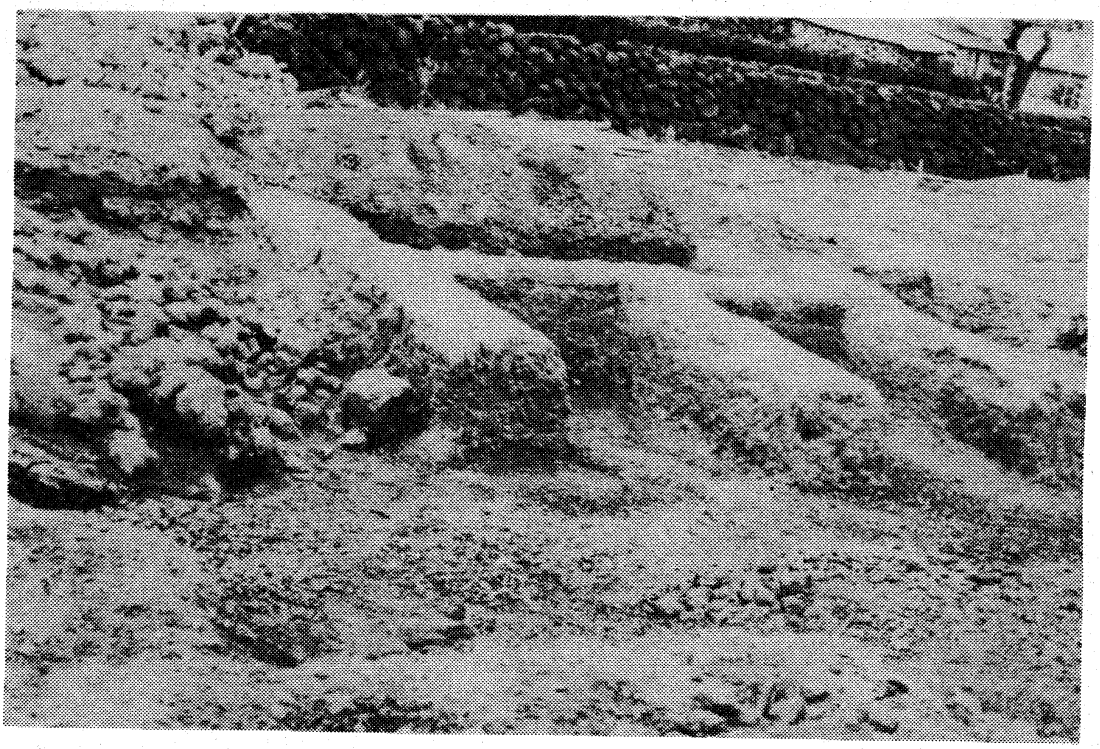
〈사진 3〉 郭支里 貝塚 1979년 발굴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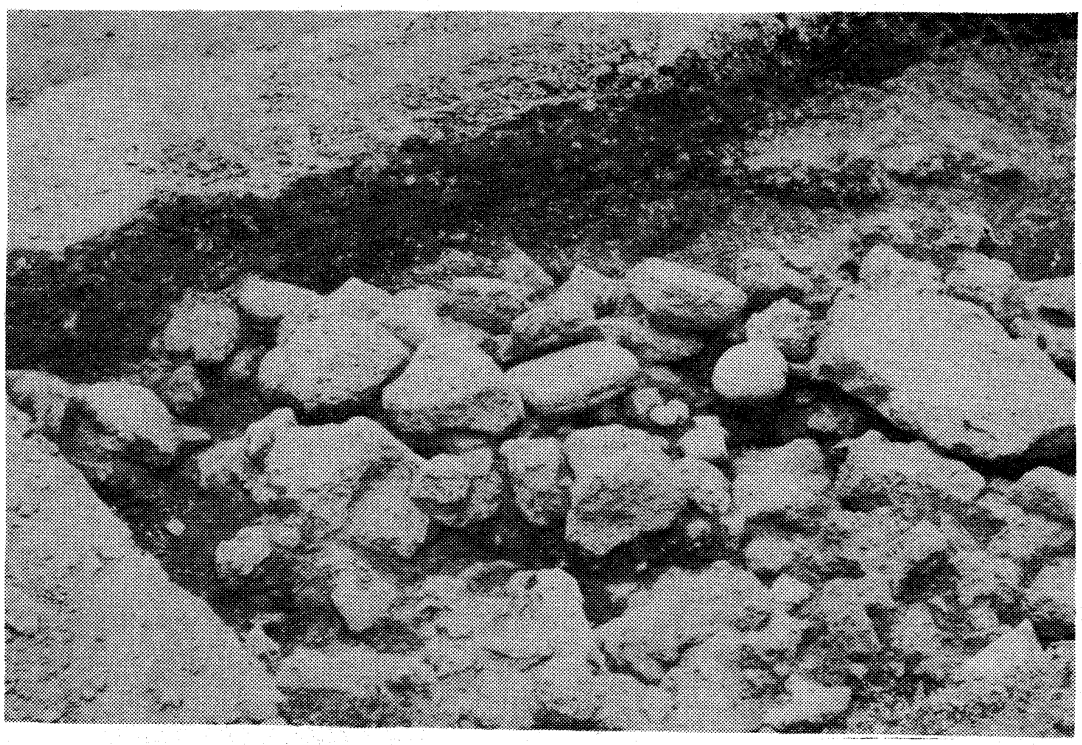
〈사진 4〉 郭支里 貝塚 1984년 발굴 핏트 층위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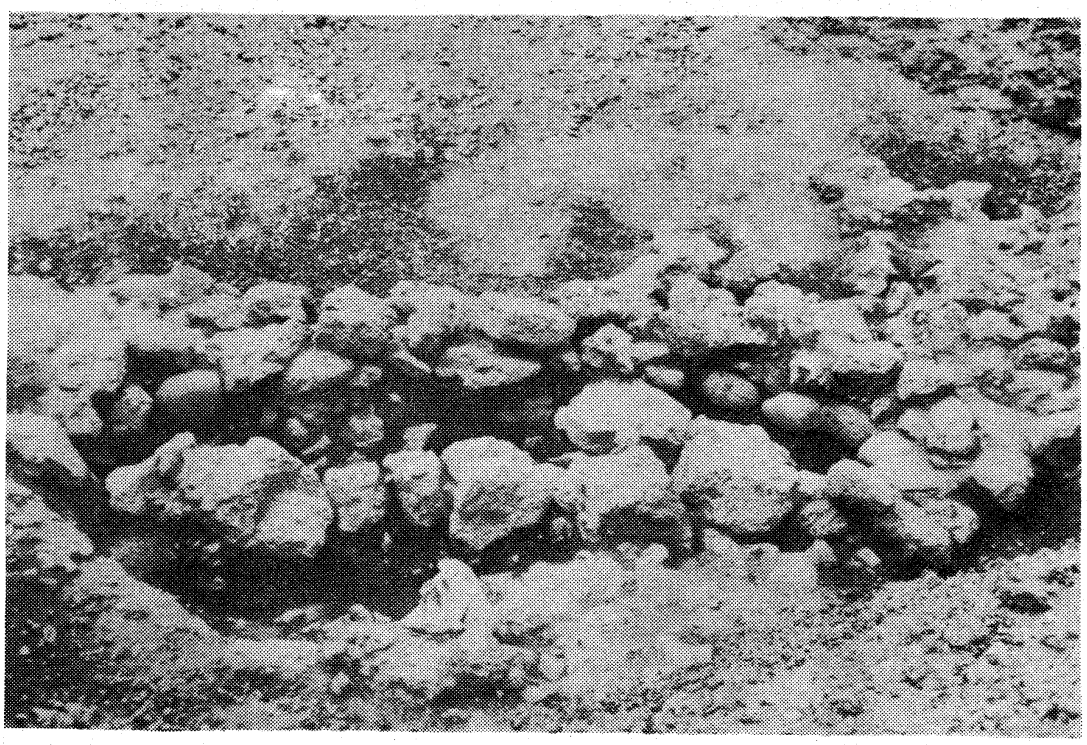
〈사진 5〉 郭支里 貝塚 1985년 발굴 지점 원경 (북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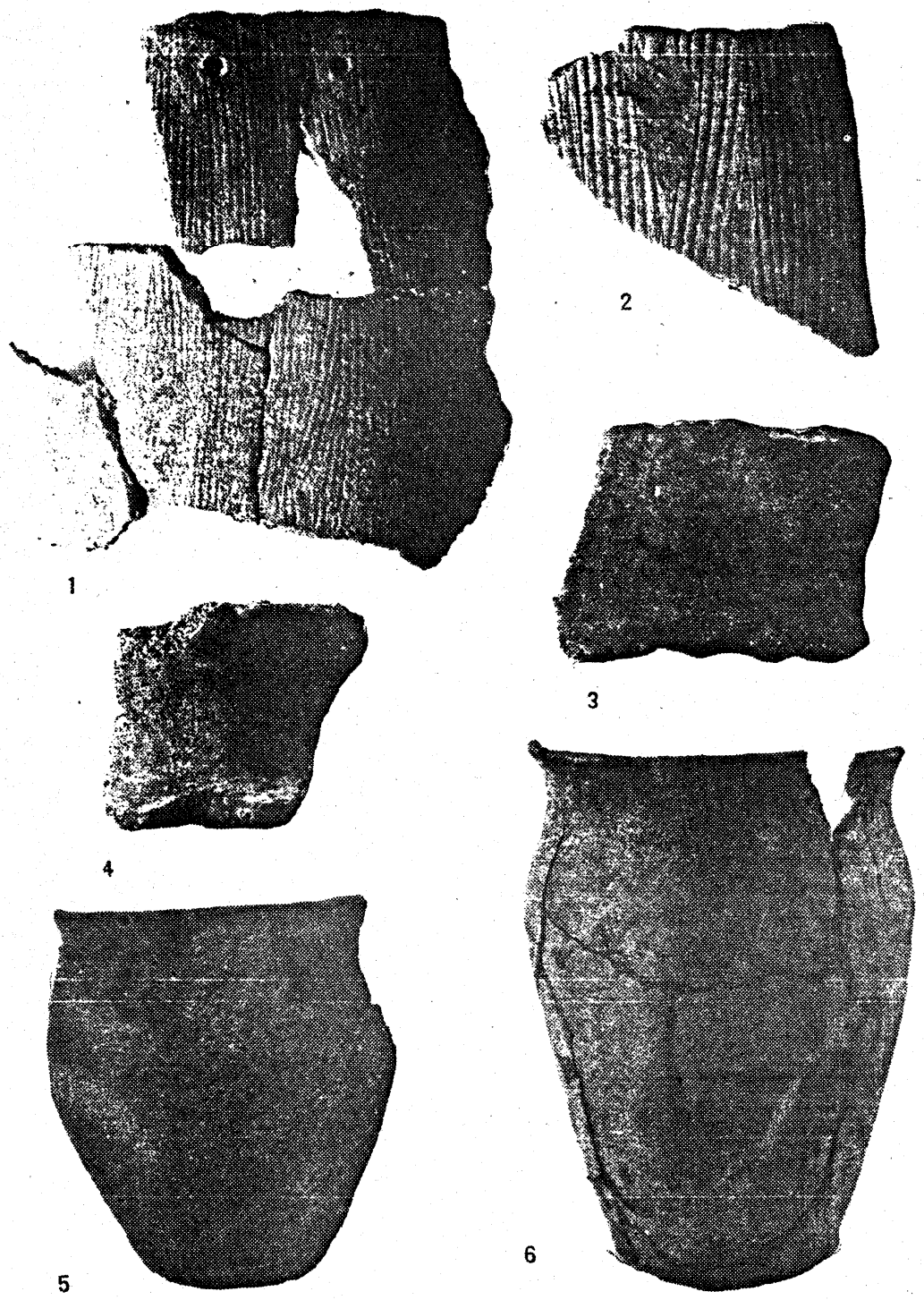
〈사진 6〉 郭支里 貝塚 1985년 발굴 지점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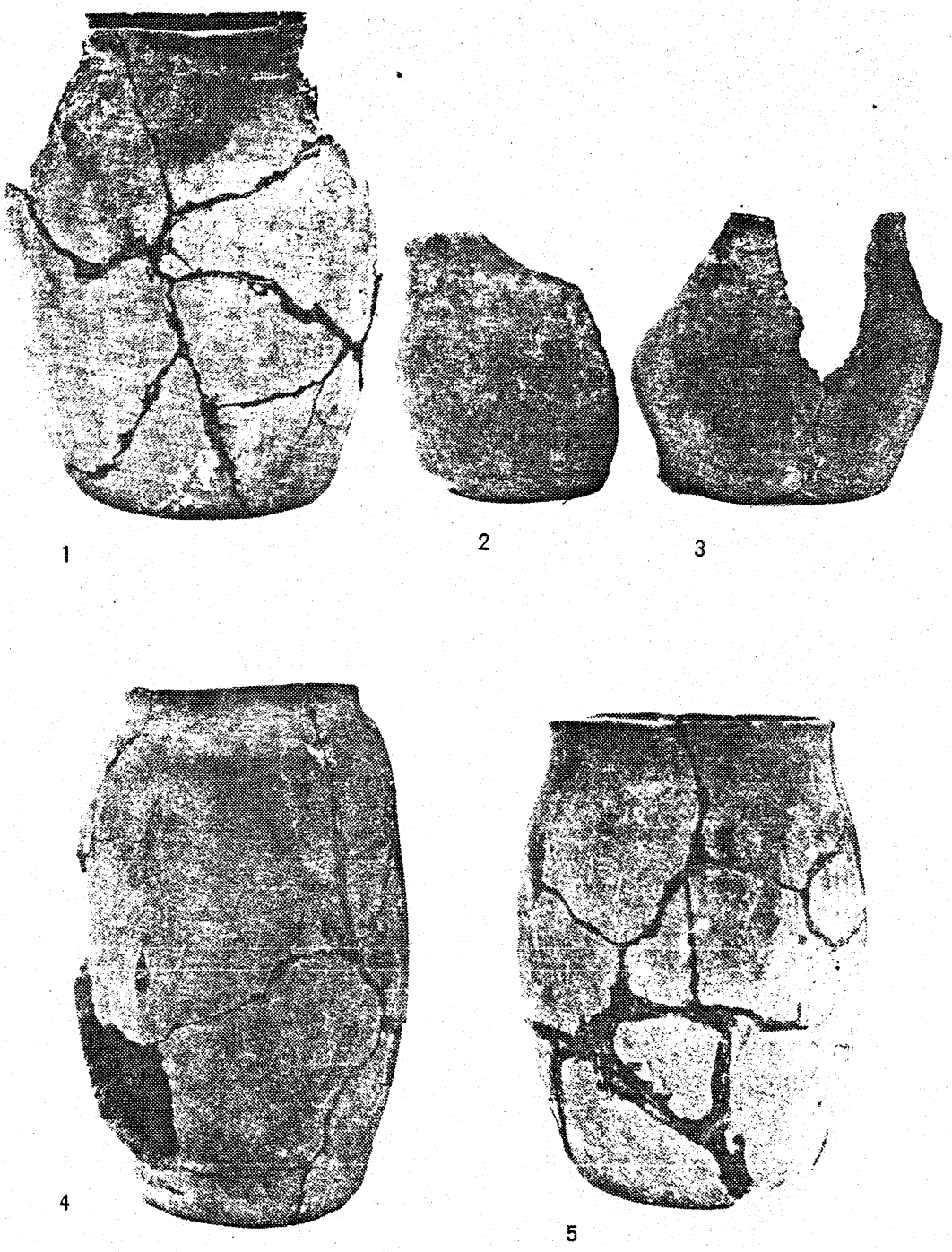
〈사진 7〉 郭支里 貝塚 1985년 발굴 石槨墓(뚜껑들어내기 전)



〈사진 8〉 郭支里 貝塚 1985년 발굴 石槨墓(뚜껑들어내기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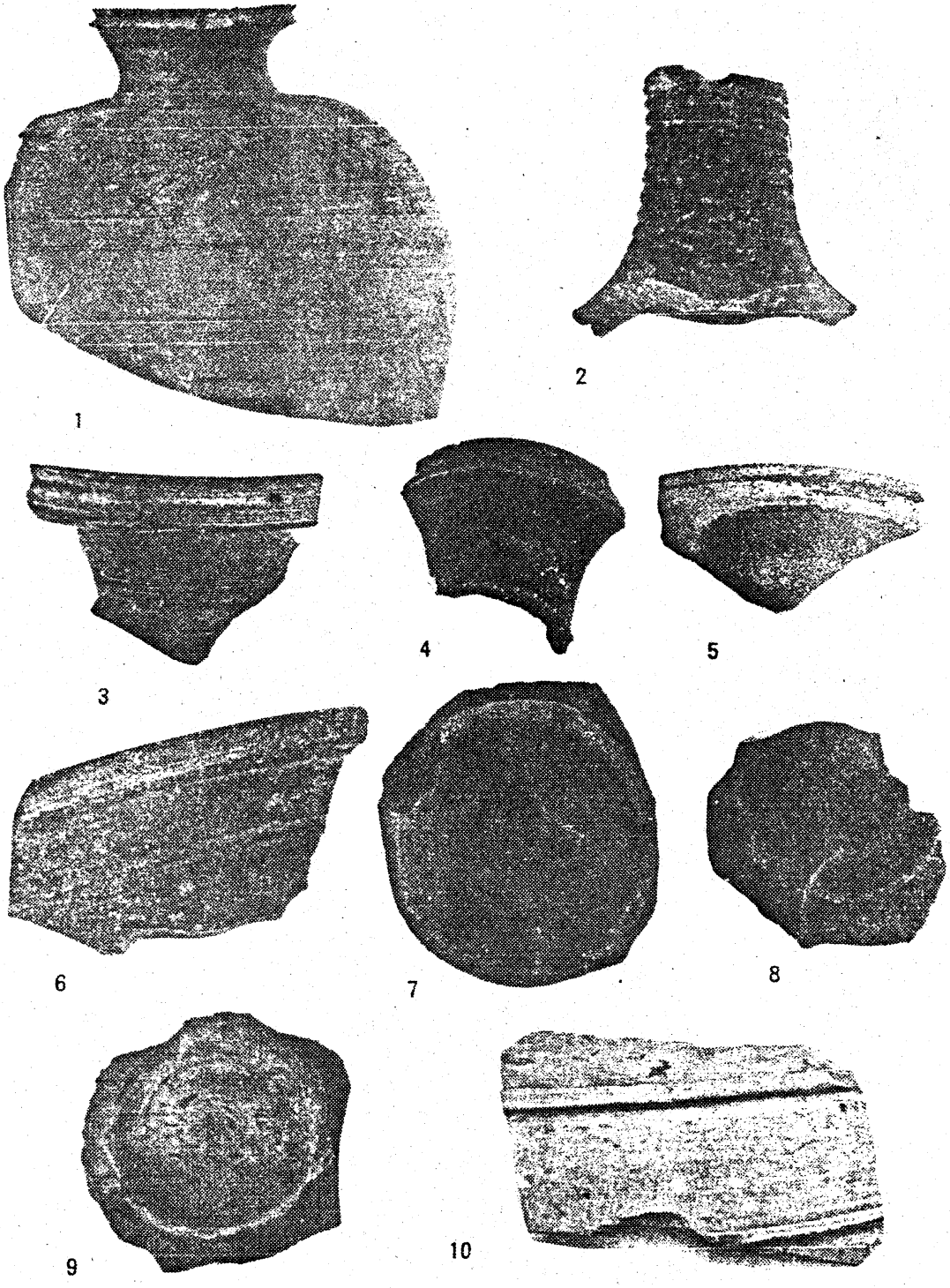
〈사진 9〉 郭支里 貝塚 1979년 발굴 출토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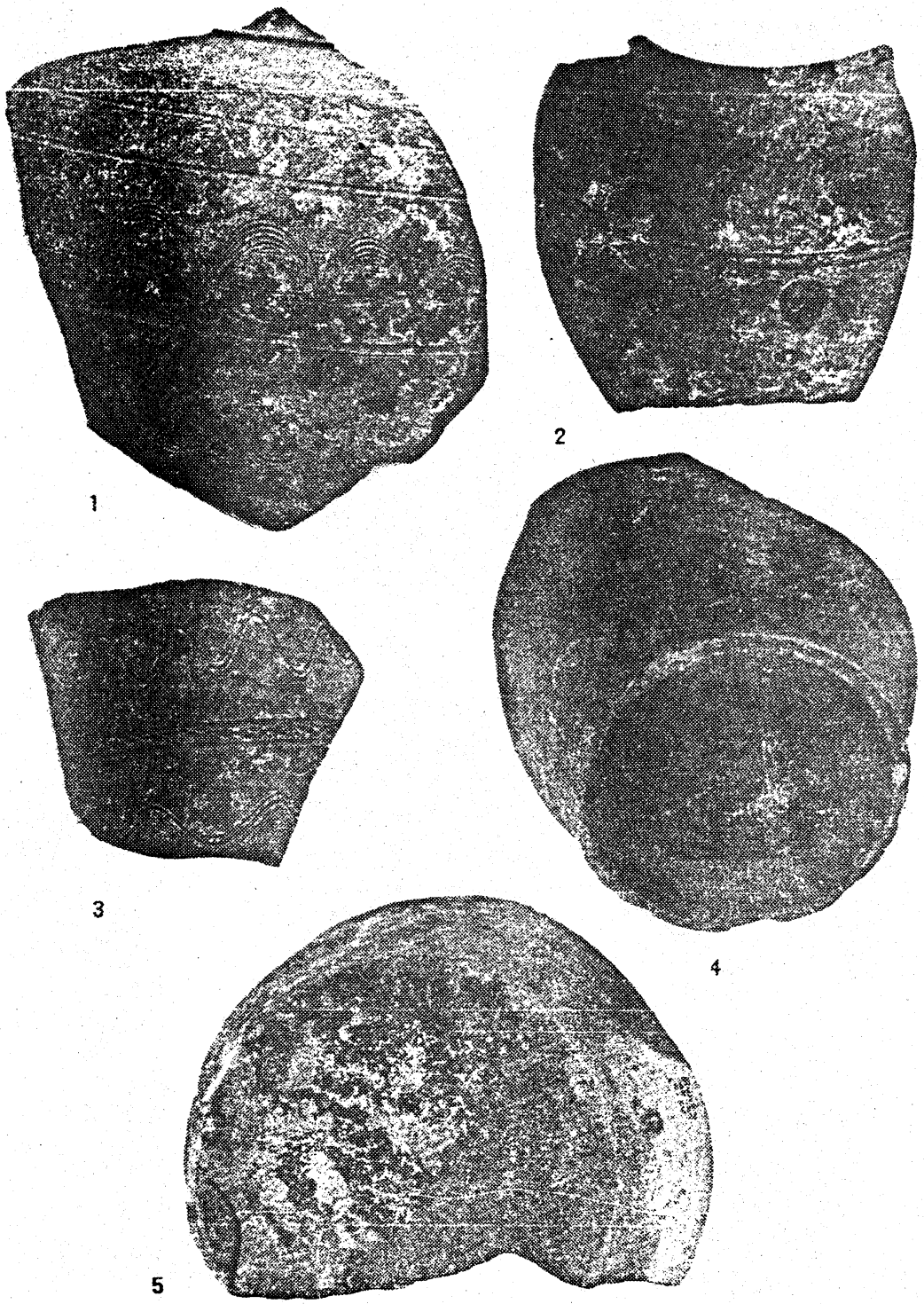
〈사진 10〉 郭支里 貝塚 1984년 발굴 출토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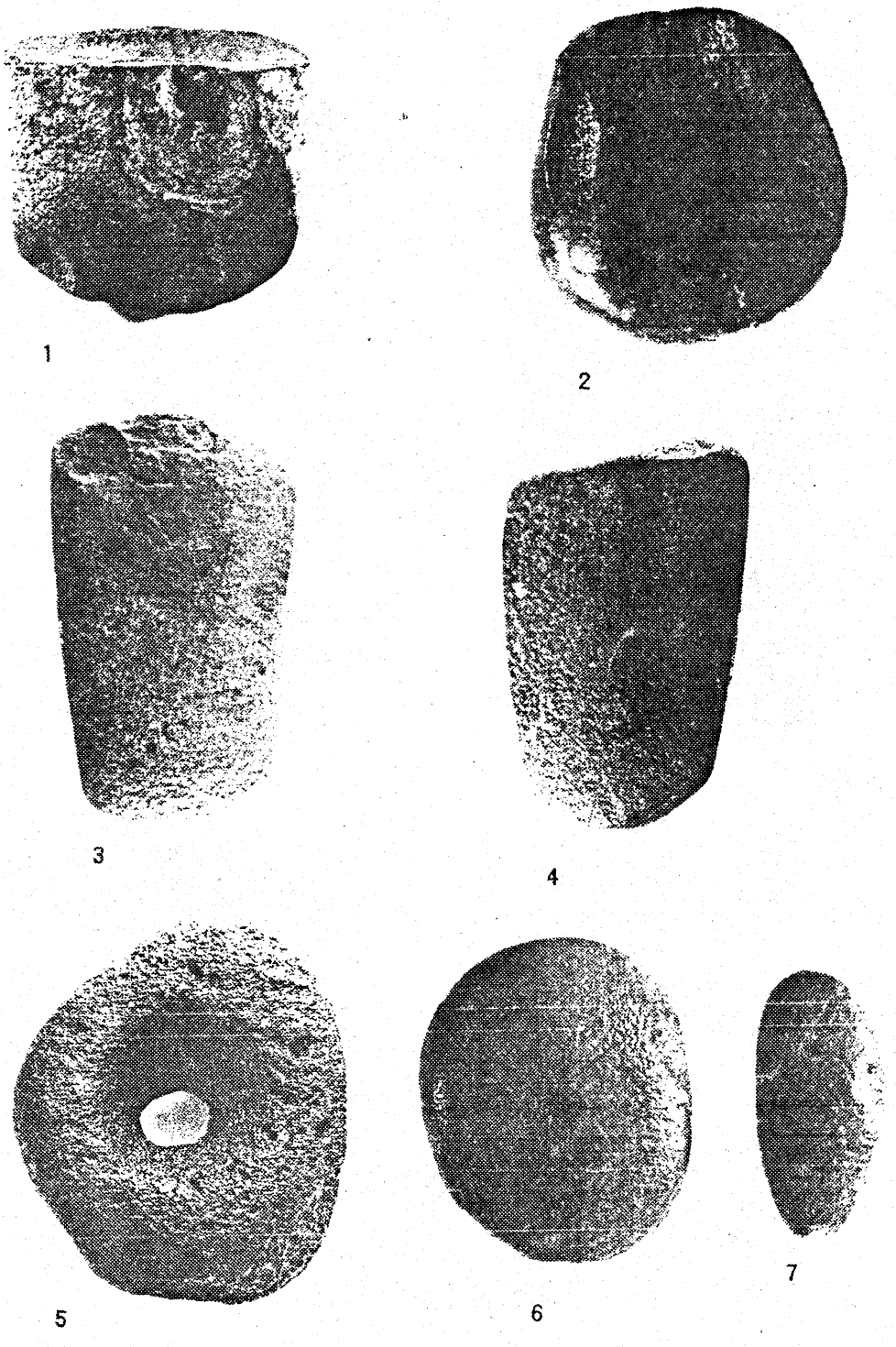
〈사진 11〉 郭支里 貝塚 1985년 발굴 출토 土製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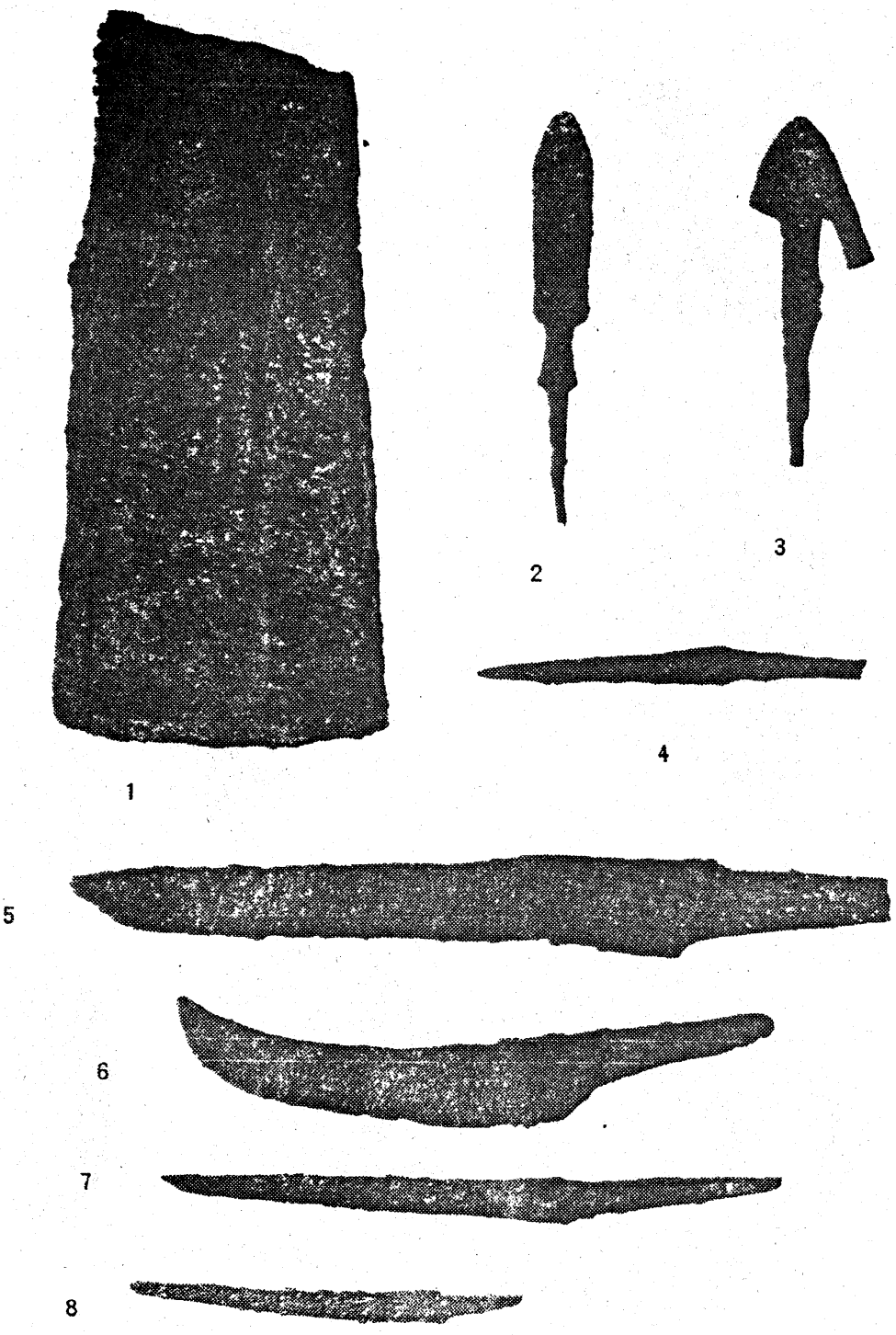
〈사진 12〉 郭支里 貝塚 1985년 발굴 출토 硬質土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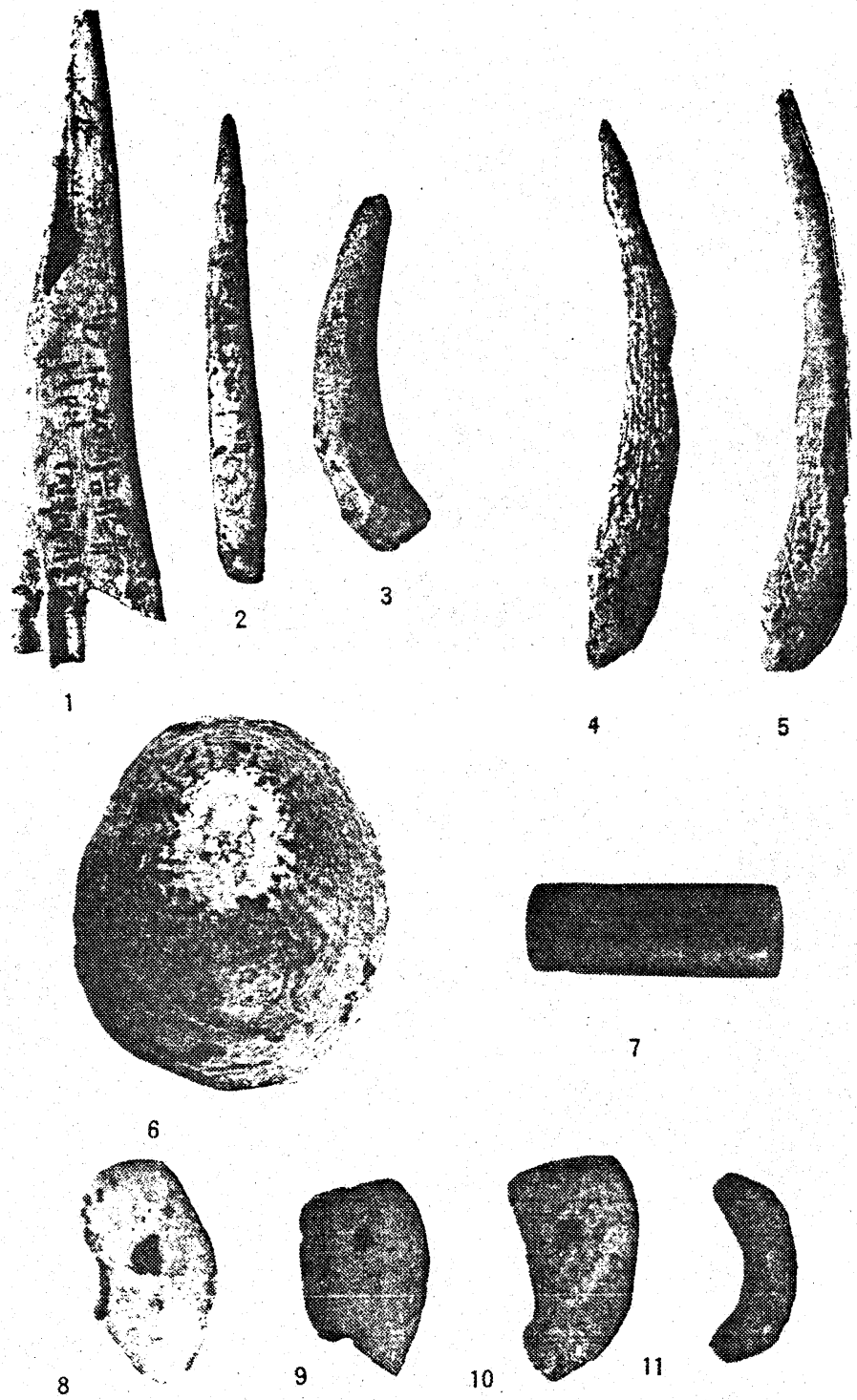
〈사진 13〉 郭支里 貝塚 1985년 발굴 출토 硬質土器(2)



〈사진 14〉 郭支里 貝塚 1979년 발굴 출토 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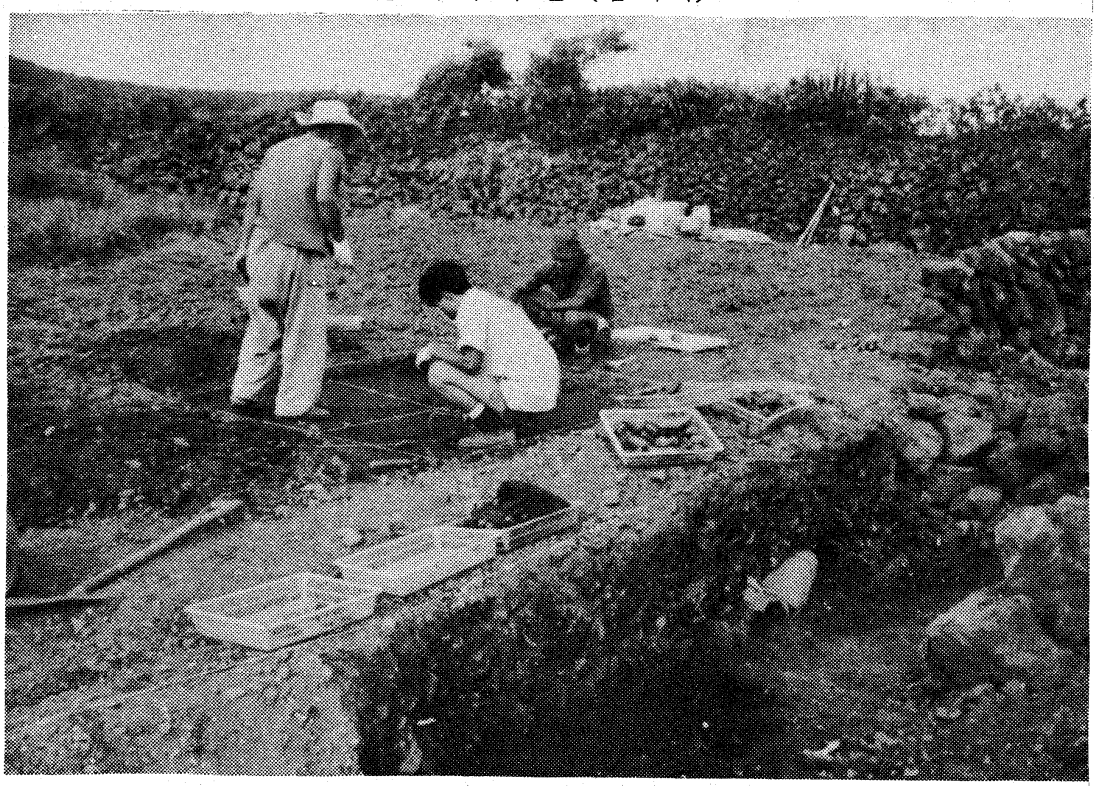
〈사진 15〉 郭支里 貝塚 1979년 발굴 출토 철제유물



〈사진 16〉 郭支里 貝塚 출토 각종 유물



〈사진 17〉 1989년 발굴 유적 주변 (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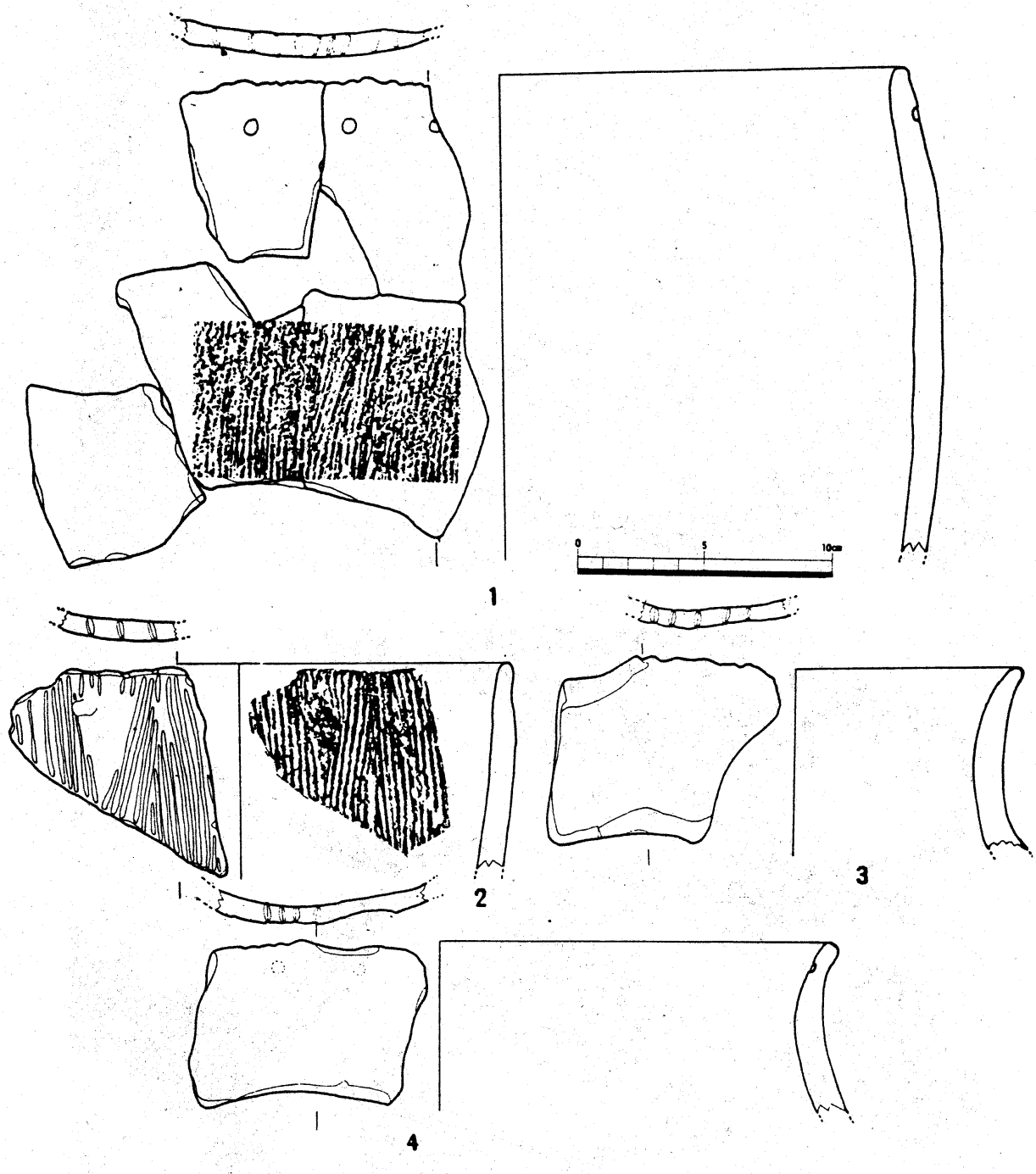
〈사진 18〉 1989년 유적 발굴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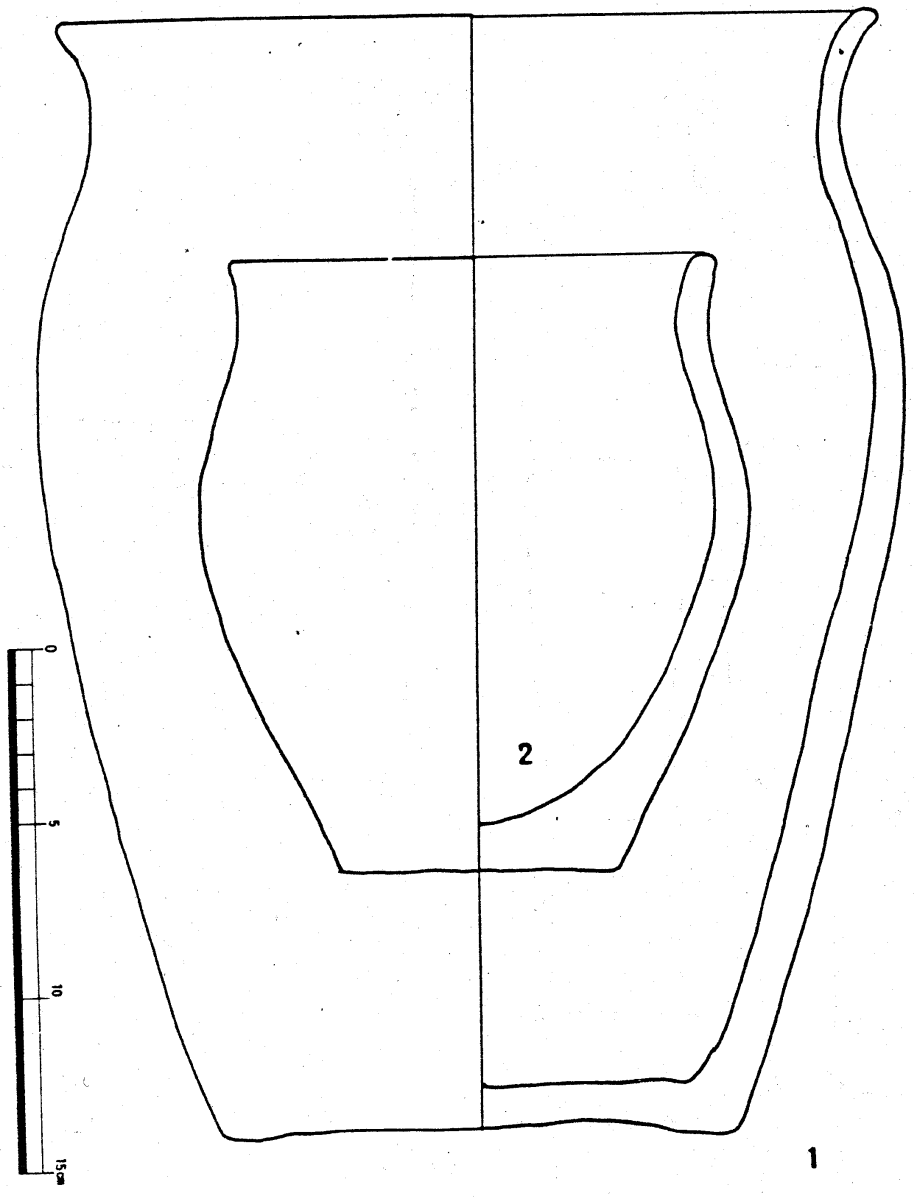
〈사진 19〉 1989년 유적 유물 출토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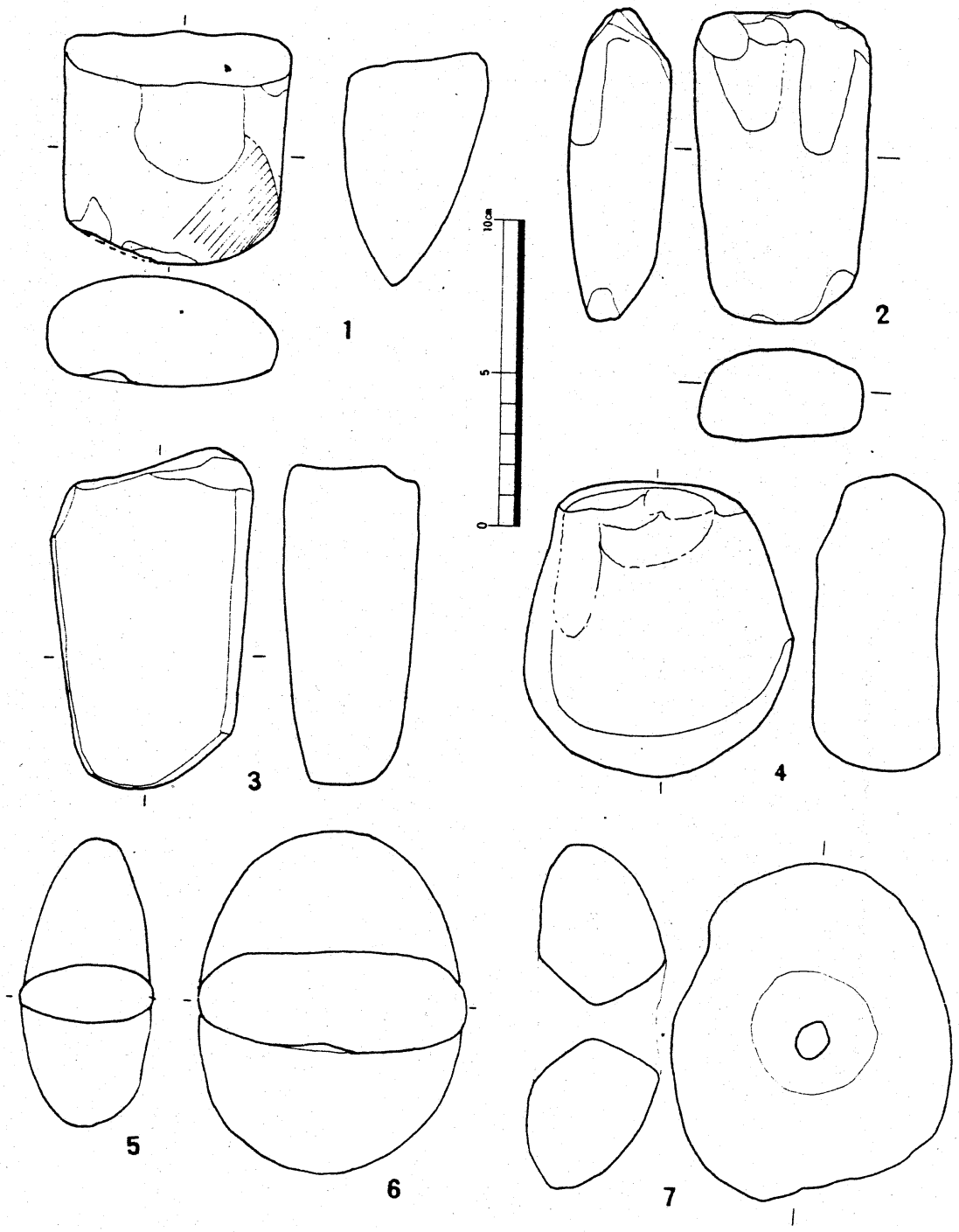
〈사진 20〉 1989년 유적 출토 조경



(그림 1) 郭支里 貝塚 1979년 발굴 출토 무문토기편
(그림31) 郭支里 貝塚 1979년 발굴 출토 무문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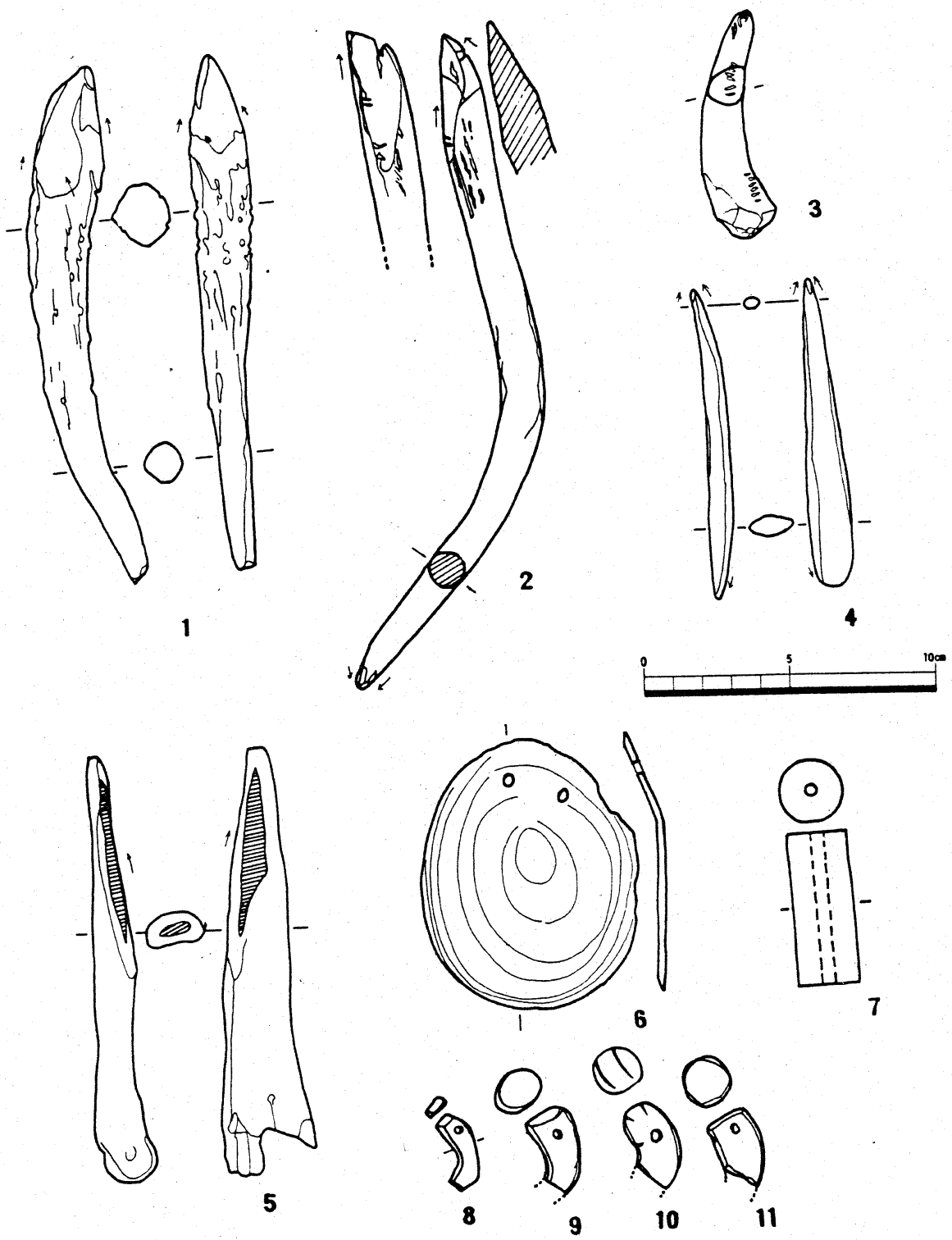


(그림 2) 郭支里 貝塚 1979년 발굴 출토 무문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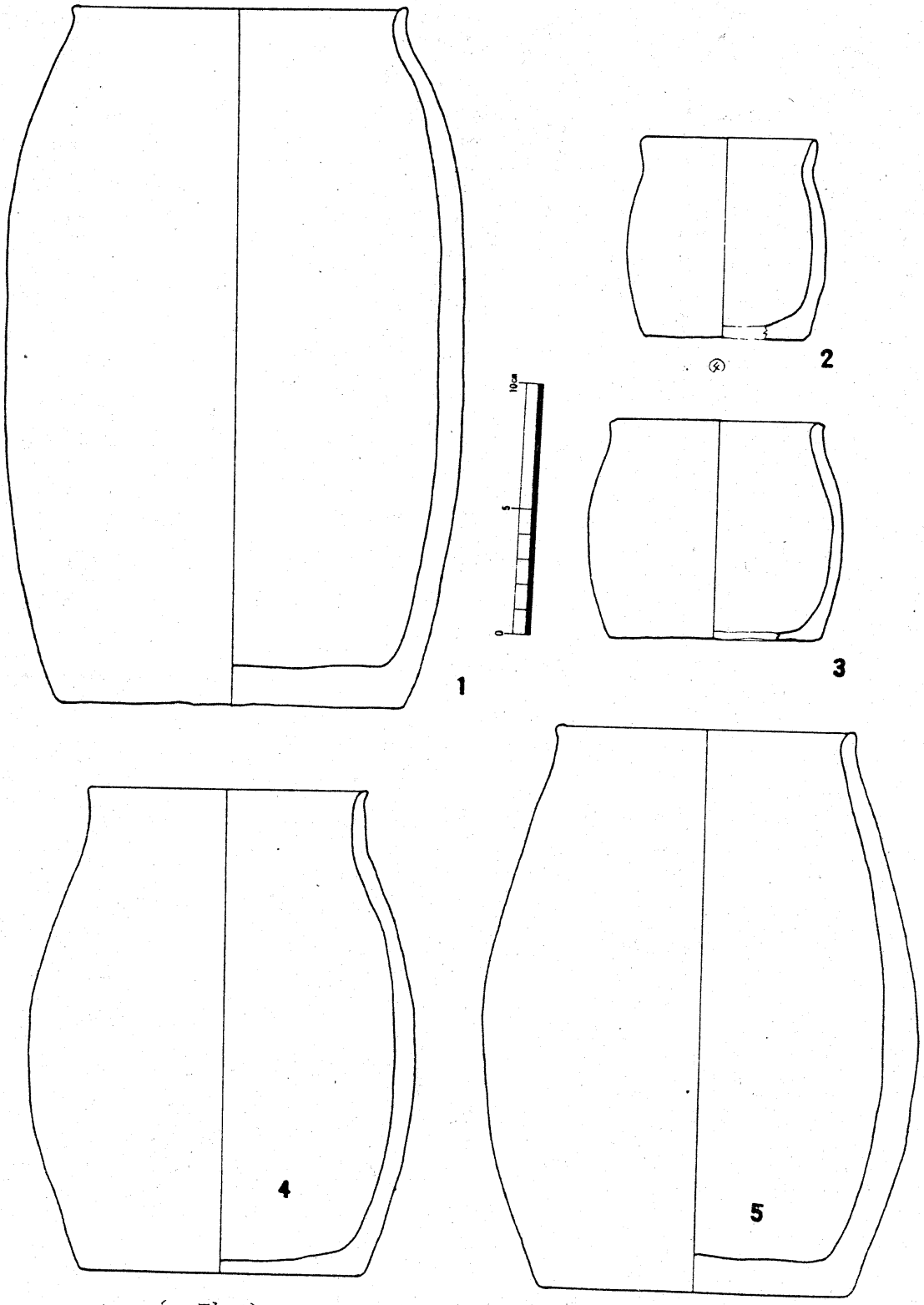


(그림 3) 郭支里 貝塚 1979년 발굴 출토 석기

北濟州郡 涯月邑 郭支里



(그림 4) 郭支里 貝塚 출토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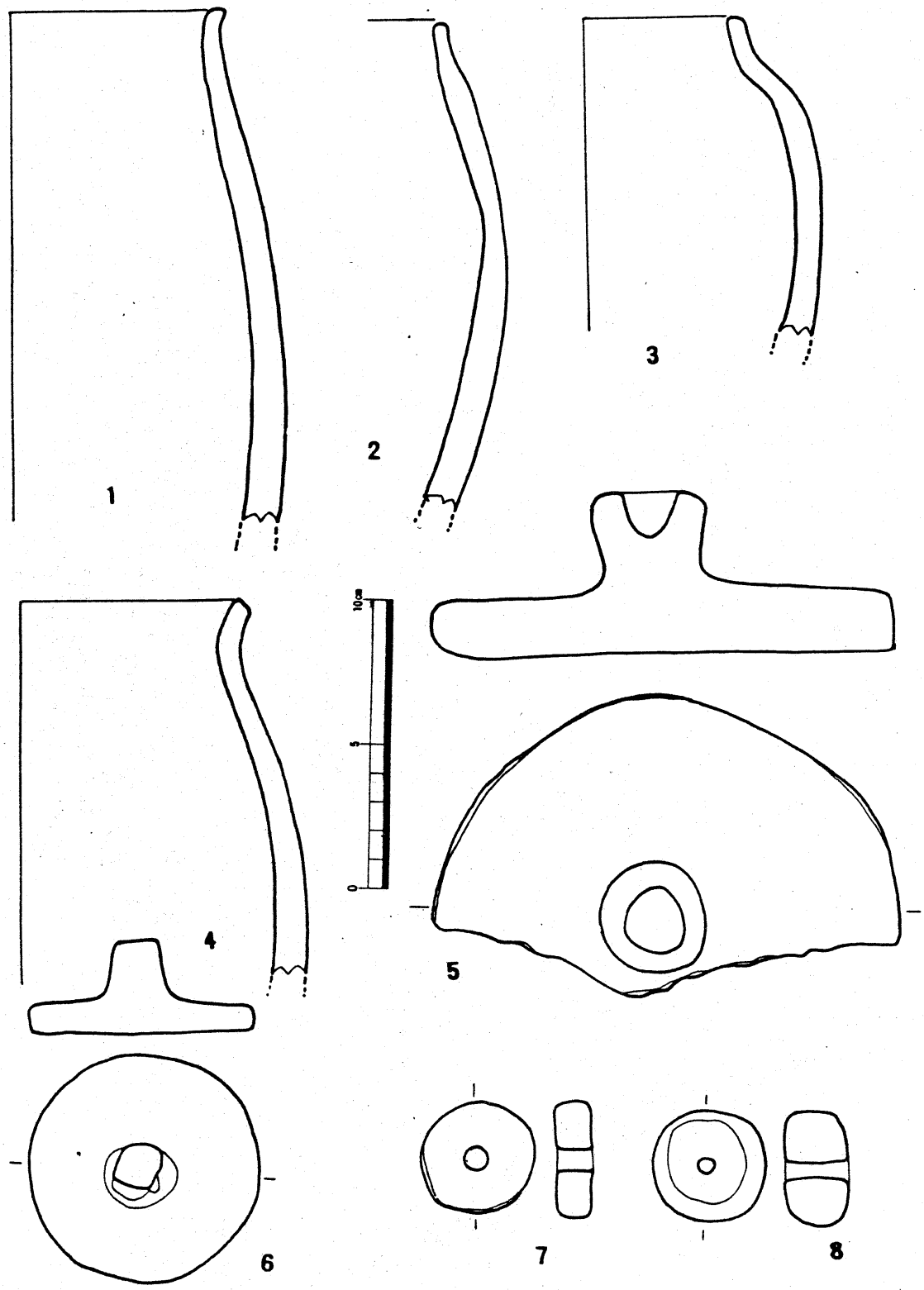


(그림 5) 郭支里 貝塚 1984년 발굴 출토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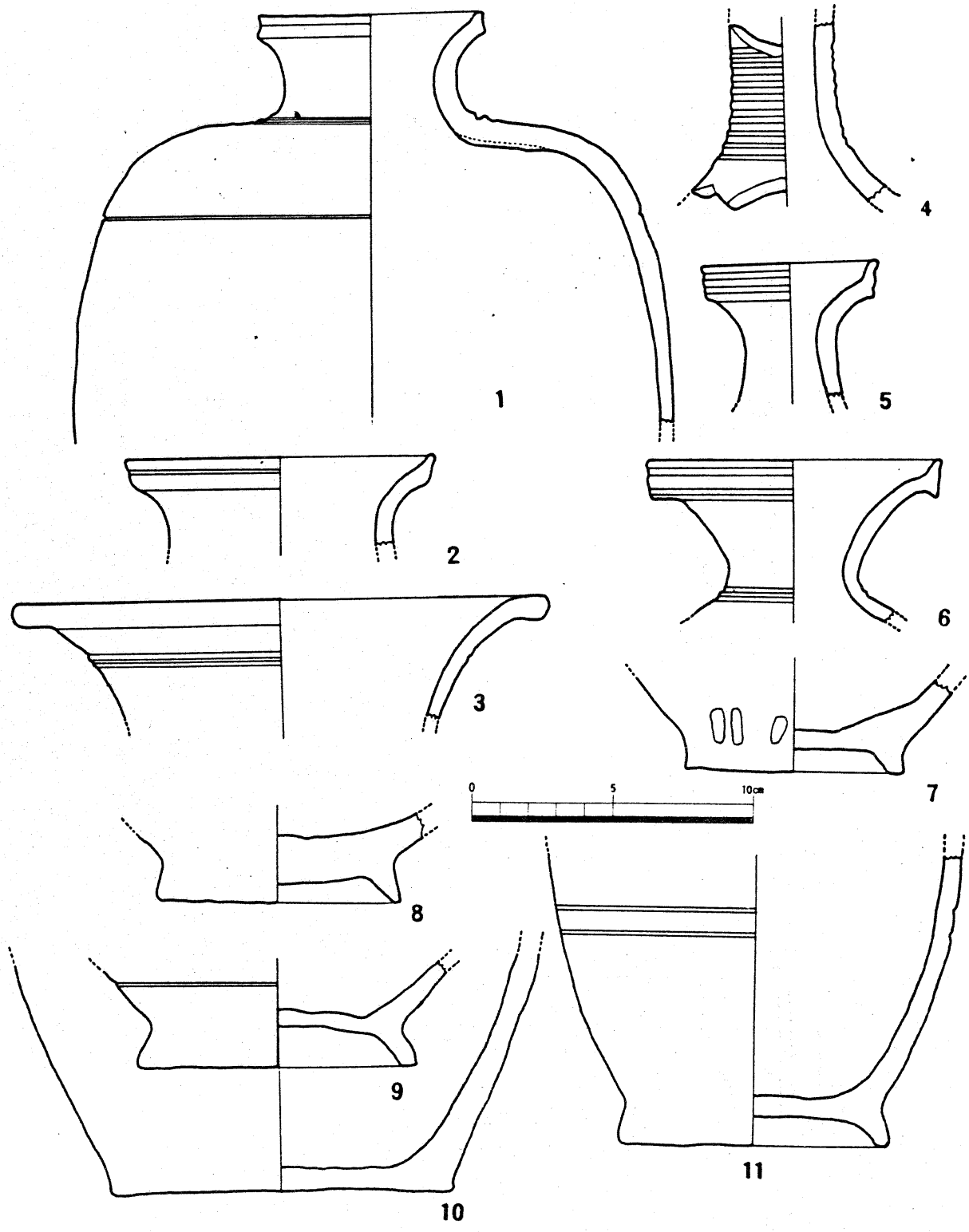
北濟州郡 涯月邑 郭支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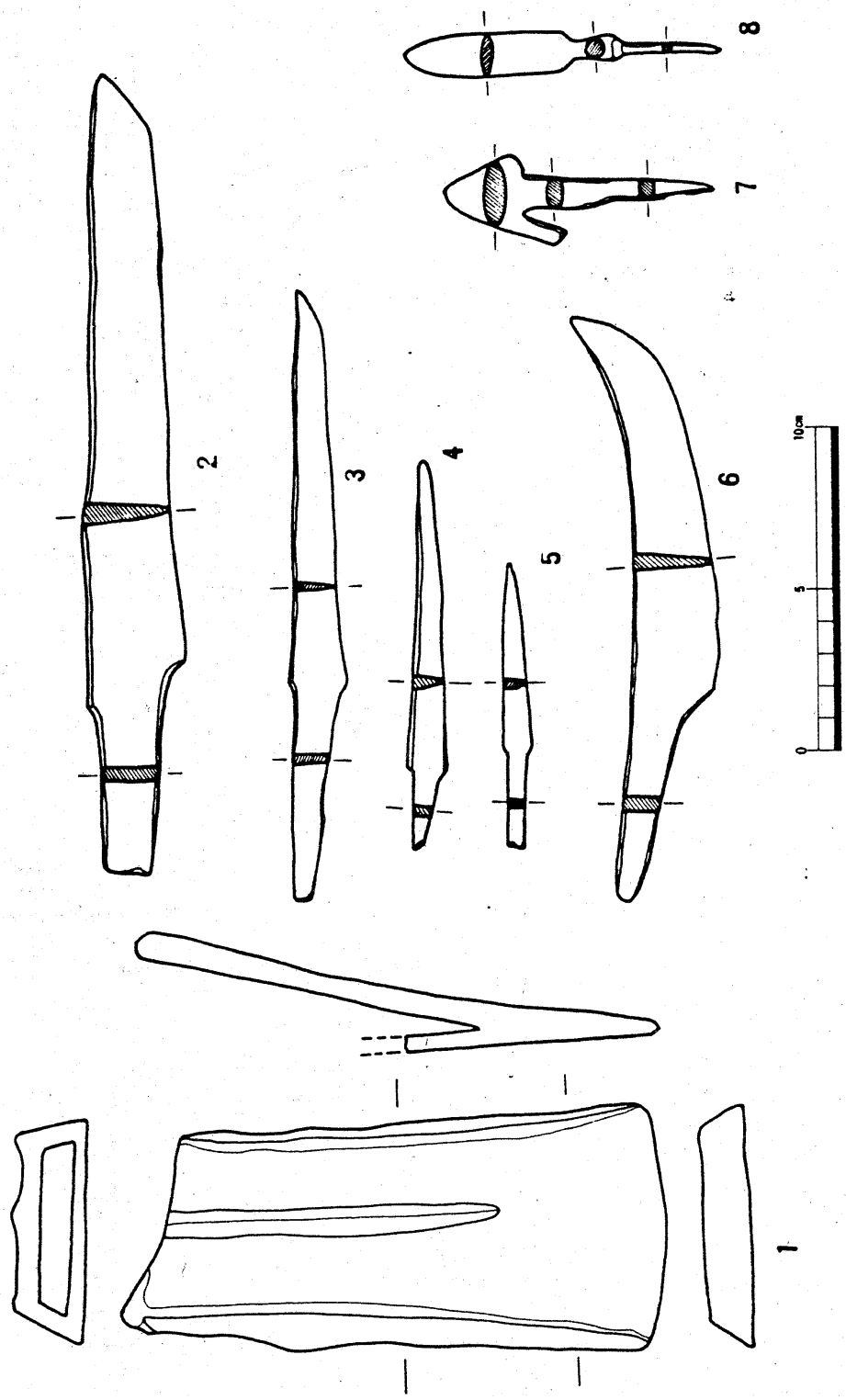
(그림 6) 郭支里 貝塚 1985년 발굴지점 石槨墓 실측도



(그림 7) 郭支里 貝塚 1985년 발굴 출토 토기유물



(그림 8) 郭支里 貝塚 1985년 발굴 출토 陶質土器片



(그림 9) 郭支里 貝塚 1985년 발굴 출토 철기유물